



12

1992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2. 12호

(루게 542)



◆◆◆◆◆◆◆◆◆◆

차 례

◆◆◆◆◆◆◆◆◆◆

주체의 기치높이 혁명적원칙을 지켜내는데 힘있게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활발히 창작하자	4
그사랑 끝이 없어	6
명언해설	7
화평	8
나는 전초병	10
력사의 령마루에서	11
아 잊을수 없네	12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 만세	12
날개돋친 흰말	13
김정숙녀사	15
밀림속에 생겨난 목욕탕	16
김정숙어머님 마을에 오시면	18
하나의 생활세부도	19
그날을 믿으시고	21
명제해설	22
나는 《금성동》에서 산다.....	23

크나큰 사랑	24
세계의 벗들과 함께 (외 1 편)	34
동지로 함께 사는 삶	35
백두의 눈보라소리를 들으며	36
조국의 운명을 구원한 위대한 령도에 대한 불멸의 서사시적화폭	37
물맛이란 참	43
화선당세포결정서	44
고향에 들어다오	50
문학작품창작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를 구현하는것은 우리 문학 발전의 절박한 문제	51
레사로운 날의 생각	53
덕의 흐름	54
우리는 당의 군대	56
다시 출발지점에서	57
백두산	66
사랑의 권리	67
병사의 보람	69
어서오세요	70
전호가에 새겨쓴 글발 (외 1 편)	76
병사의 맹세	76
위훈에 대한 생각	77
친우의 성장을 두고	78

주체의 기치높이 혁명적원칙을 지켜내는데 힘있게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활발히 창작하자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인민은 온갖 력사의 시련을 이겨내면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하며 더욱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최근년간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됨으로써 인류의 자주위업을 위한 투쟁이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고있으나 우리 인민은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림없이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견지해나가고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노래에도 있지만 사회주의는 지키면 승리이고 버리면 죽음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선택하고 개척하여온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옹호고수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이 선택하고 개척하여온 우리 식 사회주의이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빛내여주시는 우리 식 사회주의야말로 자신의 운명뿐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룡성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이 마련되는 삶의 요람이라는것을 력사의 체험을 통하여 신념으로 간직하고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간직된 확고부동한 리념이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제아무리 사회주의를 압살하려고 온갖 책동을 다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민을 놀래울수도 없으며 굴복시킬수도 없다.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의 필승불패의 위력을 생활로 체득하고 주체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있는 우리 인민은 그어떤 원썬들의 온갖 모략과 회유기만, 전쟁책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사회주의기치를 끝까지 지키려는 혁명적원칙을 추호도 양보하지 않고 굳세게 싸워나가고있다.

우리 문학은 응당 시대의 의지이며 지향이고 리념인 이 위대한 시대정신을 깊이있게 반영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력사의 시련과 우여곡절이 심할수록 혁명적원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나가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패의 위력을 더욱 굳게 다지도록 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한다.

우리문학이 사회주의의 기치, 혁명적원칙을 튼튼히 지켜나가도록 사람들을 이끌어줄에 있어서 근본문제는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형상

하는것이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세워주시고 빛내여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바람이 불고 력사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쳐도 추호의 동요나 변심이 없이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의 길로 드림없이 전진해나갈수 있다.

모든 작가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는데서도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형상한 문학작품을 창작하는것이 근본문제라는것을 명심하고 수령형상작품창작에 모든 탐구와 사색, 창작적열정과 량심을 다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끄시는 길로만 나아간다면 우리 식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을 굳게 간직하고 당과 수령이 천리를 가면 천리를 따르고 만리를 가면 만리를 따라 기어이 이 땅위에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도록 힘있게 고무하여주어야 한다.

우리 문학작품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있게 전진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작품의 문제성을 사회주의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이다.

우리는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지킬데 대한 당의 요구를 명심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체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가도록 하는데 근본목표를 두고 작품의 문제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 있어서 현시기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간부들이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대중의 앞장에서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 헌신하는 전형적인 성격을 창조하는것은 매우 의의있는 일이다.

우리 문학은 최근에만 하여도 장편소설 《환희》에서와 같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하여 진심으로 당의 뜻을 받들어나가는 혁명의 지휘성원인 한 련합기업소 지배인의 형상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형상함으로써 사람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을 간직하도록 하는데서 긍정적인 경험을 쌓았다.

우리 작가들은 사람들을 당정책관철에로 적극

조직동원하며 대중의 앞장에 서서 사회주의건설 투쟁을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이끌어어나가는 지도 일군들의 모습을 더욱 진실하고 생동하게 형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형상들은 지도일군들자신들이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도록 하는데도 의의가 있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혁명의 지휘성원들의 모범을 따라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적극 발휘하도록 이끌어주는 데서도 매우 의의있는것이다.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지키는데 대한 우리 당 사상사업의 요구에 맞게 현시기 우리 문학의 문제성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인테리들의 형상을 잘 창조하는것이다.

우리 당의 가장 올바른 인테리정책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 인테리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그 어떤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고 자기의 모든 지혜와 재능을 다 바쳐나가고있다.

그 어떤 세상풍파에도 동요하지 않고 오직 당과 수령을 따라 모진 시련도 이겨내며 사회주의위업에 충실하고있는 인테리들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의 자랑이고 긍지이며 이것은 또한 우리 식 사회주의에서만이 볼수 있는 경이적인 사변이다.

우리 문학은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연자로서의 우리 인테리들의 모습과 당정책의 적극적인 옹호자, 관철자로서의 인테리들의 형상을 훌륭하게 그려냄으로써 그들이 당과 수령께 끝까지 충성과 효성을 다하며 혁명적원칙을 지켜나가기도록 더욱 힘있게 고무해주어야 한다.

력사적경험은 인테리들이 혁명적원칙을 저버리게 되면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초래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모든 작가들은 우리 당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인테리들의 훌륭한 형상을 창조하는것이 바로 그들을 당에 끝까지 충실하도록 이끌어주는데 힘있게 이바지하는것이라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인테리들의 전형적인 성격을 창조한 훌륭한 문학작품을 활발히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해나가기도록 할데 대한 당의 요구에 맞게 우리 문학의 문제성을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청소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내용을 작품에 구현하는것이다.

혁명의 준엄한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3세, 4세들이 주체혁명위업을 훌륭히 계승해나가는 문제가 시대적인 요구로 나서고있는 때에 청소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것은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지금 우리 당은 혁명의 3세, 4세들을 혁명적으

로 교양할데 대한 문제에 특별한 주목을 돌리고 있다.

우리 작가들은 당의 요구에 맞게 새 세대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청소년들이 혁명적원칙을 끝까지 지키며 대를 이어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기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당사상사업의 요구에 맞게 새 세대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청소년들이 혁명적원칙을 끝까지 지키며 대를 이어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기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당사상사업의 요구에 맞게 모든 사람들이 주체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기도록 힘있게 이끌어주기 위하여서는 작품에 혁명적락관주의를 깊이있게 구현하여야 한다. 혁명적락관주의는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과 혁명위업의 정당성, 승리의 필연성을 굳게 믿고 그 어떤 간고한 조건에서도 절개를 굽히지 않는 백철불굴의 혁명정신이며 휘황한 앞날을 내다보면서 언제나 락관적으로 생활하고 투쟁하는 고상한 사상감정이다.

오늘 정세가 복잡하고 사회주의위업이 시련을 겪고있지만 우리 인민은 자기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지고있다.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우리의 사회주의의 전도는 양양하며 락관적이다.

오늘 세계의 많은 나라 사람들은 우리 나라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면서 사회주의길로 나갈 굳은 결의를 가지고 사회주의운동을 재건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인민이 지금까지 남들이 어떻게 하건, 무엇이라고 하건 관계없이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따라 우리 식 사회주의의 길을 개척하고 지켜온것이 얼마나 정당하고 긍지높은 일인가 하는것을 실증하여주고있다.

오늘 분별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우리 인민이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는것이 얼마나 정당하며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는것을 인정하고있다.

혁명적락관주의는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를 확신할 때 가지게 된다.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도 바로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는것을 신념으로 간직할 때 발휘될수 있는것이다.

문학작품에서는 자주성의 시대인 우리 시대에는 오직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만이 백전백승의 길이며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지켜 우리가 가는 길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진리를 잘 보여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문학작품에 자기 위력에 대한 굳은 확신을 잘 반영하여야 한다. 자기 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혁명과 건설을 주건있게 밀고나갈수

없으며 자그마한 난관앞에서도 주저하고 동요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혁명적원칙도 저버리게 된다.

우리의 위력은 곧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된 위력이며 그 힘을 당해낼자는 이 세상에 없다.

우리가 혁명적원칙을 끝까지 지켜나가며 승승장구하는것도 일심단결의 위력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작가들은 우리의 힘에 대한 굳은 확신이 차넘치는 좋은 문학작품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우리 인민이 용기백배하여 투쟁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문학작품에 그 어떤 폭풍이 불어와도 주체의 혁명적신념과 사회주의기치를 끝까지 지켜나가려는 백절불굴의 의지와 혁명적지조를 잘 반영하여야 한다.

우리의 문학작품은 혁명의 변절자들이 사회주의를 때버린다 하여도 우리는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켜나할것이라는 드높지 않는 신념을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주어 모두가 다 혁명적원칙을 끝까지 지켜나가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작가들은 이 모든 문제를 미학적으로 담보하는 것이 바로 작품에 혁명적관주의를 깊이있게 구현하는것이라는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혁명승리에 대한 우리 인민의 막관적인 의지를 잘 반영하여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혁명적원칙을 끝까지 지키며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 작품을 창작하는것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며 당사상전신의 초병인 우리 작가들이 지닌 숭고한 임무이다.

모든 작가들은 어떤 주제의 작품을 창작하든지 현시기 사람들이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 내용을 창작실천에 구현함으로써 당적작가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그사랑 끝이 없어

정렬

꽃피는 봄날
초소의 언덕길을
다시 한번 밟아보시며
친애하는 그이는 말씀하셨네
-다시 오겠소

눈내리는 날
숫눈길에 자욱을 내시며
전호가를 떠나시던 그날도
친애하는 그이는 말씀하셨네
-다시 오겠소

다시 오겠소
다시 오겠소
못잊을 그 음성
초소의 숲속에 남아있고
 시내물도 노래로 받아외우네

아, 분계선초소의 병사들이
얼마나 보고싶으셨으면
한번 밟아보신 길
한해에도 그 몇번 다시 밟으실가

아버이 그 사랑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어
꽃피는 봄에도
눈내리는 겨울에도

초소길을 걷고걸으시는것인가

눈덮인 훈련장을 찾으시여
병사들의 장구류를 살펴주신 그 걸음으로
우리과 함께 사격좌지에도 오르시여
무적의 용맹을 안겨주신 그 자욱

푸른 오이 싱싱한
봄빛길은 온실에도
병실과 취사장에도
아버이 사랑은 넘치여
병사의 삶 티없이 꽃피는 초소

아,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그이의 드림없는 담력과 의지의 세계에
우리 무력이 있고
그이 마음의 한복판에는
언제나 병사들이 있어

외진 산정의 한끝에 초소가 있어도
원췌와 총부리를 맞대인곳에
한치 전호가 있어도
사랑을 안고 영광을 안고
그이께서는 세월을 이어 찾아주시리

-다시 오겠소
-다시 오겠소

《<이민위천>, 인민을 하늘같이 여긴다는 이것이 나의 지론이고 좌우명이였다.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믿고 그 힘에 의거할데 대한 주체의 원리야말로 내가 가장 숭상하는 정치적신앙이며 바로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한생을 인민을 위하여 바치게 한 생활의 본령이였다.》

김일성

명언해설

인간사랑의 대서사시 회고록의 첫페이지를 읽어 내려가면 우리의 심장을 격동케 하는 명언이 있다.

《이민위천》,

이것은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나긴 세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간직하고계시는 정치적신앙과 좌우명, 생활의 본령에 대한 명언이다.

4글자로 이루어진 짧막한 말속에 얼마나 심오한 폭과 깊이가 담겨져있는가, 얼마나 소박하고 통속적이면서도 인민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최상의 높이에서 우러나오는 철학적인 명언인가. 수천수백마디의 말마디들을 합쳐놓아도 대신할수 없는 명언중의 위대한 명언이다.

《이민위천》, 이것은 인민을 하늘같이 여긴다는 뜻이다.

예로부터 하늘은 사람들이 숭상하는 가장 신성하고 숭고한 존재의 상징으로 일러왔다. 인류는 자기들의 힘을 믿지 않고 인간사회에도 있지 않는 《하느님》, 《하늘신》을 세상만물을 창조 지배하는 절대적인 존재로 숭상하면서 자기들의 운명을 《의탁》하여왔다.

그러나 대대로 혁명적이고 애국적이며 인민적인 가정에서 인민의 아들로 성장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번에 지나온 혁명투쟁로정들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가장 높이 존중하며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것이 자신의 일생의 좌우명이며 생활의 본령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나라를 이끄는 정치가마다 내세우는 주의주장과 신념이 있고 좌우명이 있다. 그러나 세계 그 어느력사기록이나 위인들의 전기들 펼쳐보아도 우리 수령님처럼 인민에 대한 숭배사상이 강렬한적은 일찌기 찾아볼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어리신 나이에 인민들과 함께 《조선독립 만세!》를 부르시며 대오의 맨 앞장에 달리시면서 온 강산을 뒤흔드는 우리 인민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과 영웅성, 애국심을 체

득하시였으며 당파적목적만을 내세우며 말공부만 외우는 사람들의 초기공산주의운동과 민족주의운동을 분석하시면서 그들처럼 하여서는 독립을 이룩하지 못한다는것, 오직 인민대중을 믿고 그 힘에 의거하여 최대한 발양할 때만이 혁명이 승리할수 있다는 고귀한 진리를 쌓으시였다.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믿고 그 힘에 의거할데 대한 주체의 원리!

수령님께서서는 이에 기초하시여 오랜 세월 무지와 몽매의 대상으로, 력사의 최하층에서 억압과 착취의 대상으로만 짓눌려살아오던 인민대중을 하늘처럼 신적인 존재로, 위대한 존재로 보시고 하늘같이 떠받들어야 한다는 인민숭배사상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숭배사상에는 인민대중을 높이 존중하고 무한히 아끼고 사랑하고 인민을 위해 끝없이 헌신해야 한다는 사상,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힘에 의거하여 천하를 얻고 백번 승리하며 인민을 멀리 하게 되면 백번 패한다는 사상이 집약되어있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모든 사고활동의 중심에 인민대중을 놓으시고 인민을 선생으로, 혁명을 추동하는 기본동력으로 보시고 인민들속에 들어가는것을 전생애에 일관하는 좌우명으로 삼으시지 않았던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회고록에서 자신께서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시기 시작한것은 1927년 겨울부터였다고 하시면서 인민대중은 철학도, 문학도, 정치경제학도 다 알고있으며 산도 떠돌기고 바다도 메울 무궁무진한 힘을 가진 전지전능의 존재는 다름아닌 인민대중이라고 선언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민위천》의 사상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그대로 이어받으신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여 오늘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는 더더욱 빛나고있는것이다.

《조국에 나를 내보내면서 조선을 알아야 한다고 절절하게 말쑄한 아버지의 참뜻이 마음속에 툼툼히 뿌리를 내리었다. 나는 그 뜻을 되새기면서 비운에 잠긴 조국의 모습을 주의깊게 살펴보았다.

나에게 있어서는 그 천리길이 조국을 알게 하고 우리 인민을 알게 해준 하나의 큰 학교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중에서 -

련속기행

화평

오가산을 내려 가림리에 이르면 서쪽으로 뻗은 도로가 가산로동자구로 길손들을 이끌어가고 그곳에서 다시 서남쪽으로 내려가면 《천수려인숙》이 있는 화평읍에 이른다. 물소리 소란한 자성강의 지류를 따라 산굽이를 끼고 흘러간 이 길 역시 오가산령길과 잇닿은 유서깊은 《배움의 천리길》의 한 로정이다. 이 나라의 어느 산간지대에 가나 흔히 볼수 있는 굽인돌이와 구배많은 이 평범한 산간도로로 69년전 위대한 수령님께서 온 민족의 운명을 열두살 어린신 가슴에 안으시며 불멸할 《배움의 천리길》자국을 새겨가시었다.

《그때엔 이 길이 달구지나 겨우 다니는 소로길이었습시다. 화평이라는 이름조차 그때는 없었습시다.》

우리와 동행한 군당의 한 일군은 이렇게 말했다.

《그때는 여기가 후창군 남신면이었습니다. 집이라는것도 4개 마을에 50호 되나마나 했다고 합니다.》

소급해보면 이 화평이라는 땅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것은 불과 몇세기전 4군6진이 개척되던 중세시대부터였다. 살길을 찾아 떠난 사람들이 사람못살 땅이라고 하던 이 벽지에 화전을 일쿠었고 움막집과 귀틀집을 일으켜세웠다. 그리하여 점차 화전민들의 마을이 생겨났고 지도에도 사람사는곳으로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역사가 현대사로 취급하는 1923년 당시까지도 이곳에는 50호 되나마나한 집들이 여기저기 4개 마을에 산재해있었을뿐이 었다. 학교도 병원도 없었고 한명의 의사도 없었다. 자그마한 한문서당 하나와 목동의술밖에 없었다. 심는것은 조나 피, 감자뿐이었다. 전도에 기입되어있는 지명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구역의 상징적인 표식에 가까웠다. 말그대로 《산의 바다》에 떠있는 막바지인생들의 《작은 섬》이었다. 현대문명은 물론이고 인간에게 베풀어질 가장 초보적인 혜택도 이 땅과는 외면하고있었다. 이 땅을 찾아온것은 자연부원을 략탈하기 위한 왜놈들의 착수와 지주놈들의 착취뿐이었다. 현대사의 굴죽속에 들어선 이 땅에서 인간이 가질수 있는 고유한것으로 차례진것이란 절망과 한숨, 눈물뿐이었다.

바로 그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열두살 어린신 나이에 그 모든 절망과 한숨, 눈물을 한

몸으로 체험하시며 이곳을 지나가시었다.

1923년의 그날은 길고 긴 겨울의 평범한 하루였다. 북부내륙지대에 고유한 성예장을 품은 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쳤고 산도 강도 길도 눈에 묻혀 추위에 떨고있었다. 그날 오가산의 처서판에서는 몇명의 처서군들이 압담한 눈물속에 저쪽 세상으로 갔을수도 있었고 화전민들의 움막에서는 약한첩 써보지 못한 한 인생이 애절한 울음속에 숨졌을수도 있었다. 그리고 어느 좁은 문안에서는 한숨속에도 하나의 불행한 인생이 태어났을수도 있었다. 그야말로 특기할것 없는 1920년대의 평범한 겨울날이었다. 이 나라 산천에 봄이 오기까지에는 아직 너무도 긴긴 시간이 앞에 놓여있었다.

그날 어떤 사람들은 눈길을 헤치며 걷는 열두살소년의 모습을 보았을수도 있었다. 주의깊은 눈길이 있었다면 소년의 모습에서 어떤 천고밀림을 헤치며 걸어왔는지, 앞으로 얼마나 먼길을 걸어야할것인지를 짐작할수도 있었을것이다. 허나 그날에는 누구도 그 걸음걸음에서 무엇이 뚫고있는지, 무엇이 자라고있는지를 알지 못했다. 크지 않은 그 보폭에 미래의 조선의 걸음이 깃들어있음을 알지 못했다. 그것은 력사만이 알고있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조선으로 떠나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조선에서 태어난 남아라면 마땅히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 네가 조선에 나가서 우리 나라가 왜 망했는가 하는것만 똑똑히 알아도 그것은 큰 소득이다. 고향에 나가서 우리 인민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있는가 하는걸 체험해보아라. 그러면 네가 할바를 잘 알게 될것이다.》

아버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한걸음, 한걸음 이어간 어린신 수령님의 《배움의 천리길》, 그 천리길은 이 나라 민족의 슬픔과 고통을 체험하기 위한 천리길이었고 조국광복의 맹세에로 이어질 준엄한 천리길이었다.

어깨에 크지 않은 책보를 메시고 두루마기자락을 날리며 걸음을 옮기시던 어린신 수령님의 모습은 화평읍 《배움의 천리길》사적관앞에 동상으로 모셔져있었다.

세차게 날리는 옷자락, 그날의 눈보라소리와 얼어붙은 계곡을 줄달음치는 설한풍소리가 우리의 귀전에도 들려오는듯했다.

조국을 알게 하고 우리 민족, 우리 인민을 알게 해주었던 배움의 천리길, 그 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광복의 큰뜻을 이룩해나갈 철석같은 결심을 품게 하신 광복의 천리길과 잇닿아져 있었다.

수난에 찬 조국땅에 들어서시어 수령님께서 머무르신 《천수려인숙》의 밤에 대하여 동상옆의 현시비는 감동깊이 세상사람들에게 아뢰이고있었다.

...

헐벗고 굶주린 화전민의 긴 한숨에서
나라잃은 겨레의 신음소리 들으시였고
고역에 시달린 벌목부의 모습에서
원췌에게 짓밟힌 조국을 보시였거니
비좁은 객주집에서 머무르시는 깊은 밤에도
정처없이 고향 떠난 류랑민들의
눈물겨운 하소연 들으시며
원수님께서는 잠못드시었어!

...

그렇다, 열두살 어리신 나이에 걸으신 《배움의 천리길》은 이 나라의 암담한 지평선에 려명이 불타오르게 한 《광복의 천리길》의 시작이였고 수령님께서 한생을 두고 걸으실 이 나라 인민을 위한 수백수십만리로정의 첫 걸음이었다. 과연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에서 자신을 위한 걸음이란 있었던가, 자신을 위해 바친 시간이 한순간인들 있었던가. 모든 걸음, 모든 시간은 동지들을 위한 것, 인민을 위한 것이었다. 《이민위천》, 《이신위민》의 한생이었다.

우리는 화평읍에서 화평군당책임비서를 만났다. 그는 우리에게 화평군이 걸어온 력사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고 화평땅이 받아안은 크나큰 영광에 대하여 감동깊이 이야기했다.

《1964년 9월 우리는 화평땅에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는 영광을 지냈습니다. ...

그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 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리신 나이에 왜놈들에게 빼앗긴 조선을 반드시 찾으시려는 결심을 굳게 다지시며 걸으신 불멸의 로정에서 중요한 구간이라고 가르쳐주시면서 <배움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을 널리 조직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습니다.》

화평군에 있는 《배움의 천리길》로정은 근 200리에 달했다. 그 영광의 로정을 불멸할 력사의 로정으로 꾸리는 사업이 군적인 사업으로, 도적인 사업으로 벌어졌다. 1972년 4월에는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시던 시절의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이 읍에 모셔졌다.

《그 과정은 우리 군대 사람들의 사상정신상태

에서 전변이 일어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군당책임비서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우리 군대 사람들은 어떤 기쁜 일이나 경사가 생겼을 때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부터 찾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하루생활을 수령님의 동상 주변을 가꾸는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일은 동상이 세워진 날부터 많은 학생들속에서 매일 빠질수 없는 사업으로 생활화되었지요. 우리 군에서 자라난 학생들은 다른곳의 대학에 가셔도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땀수 없는 생활의 한부분으로 되었다고 할가요... 저기를 보십시오.》

하고 군당책임비서는 창문밖을 가리켰다.

넓은 창문으로는 《배움의 천리길》 사적관앞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이 푸른 초목과 활짝핀 꽃들사이로 보이고있었다.

꽃다발을 든 두 군인이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앞으로 가고있었다. 그들은 꽃다발을 동상앞에 놓고는 차렷자세를 하고 거수경례를 붙였다. 한동안 그들은 이렇게 서있었다. 휴가온 군인들인지, 아니면 제대군인들인지, 어떻게 그들이 이 화평땅에 고향을 둔 군인들이라는것, 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르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끝까지 빛내어나갈 새 세대의 맹세를 다지고있다는것만은 명백했다.

《1973년에는, 즉 위대한 수령님께서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신 때로부터 선뎛이 되는 해였지요. 첫 <배움의 천리길>답사행군대오가 우리 화평땅을 통과하였습니다. 포평을 떠나 오가산을 넘은 답사행군대오가 말입니다. 그때 온 군이 다 떨쳐나서서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우리 화평군으로서 는 정말 큰 명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단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군으로는<배움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대가 통과하였습니다.》

이렇게 화평땅은 인적드문 땅으로부터 온 나라 사람들이 찾아오고 밟아보기를 바라는 념원의 땅으로 되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는 9개리에서 혁명적구조문헌이 발굴되었습니다. 오가산에서만 도 수십점에 달하는 구조문헌과 많은 유물들이 발굴되었지요. 우리 화평군은 가는곳마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적으로 가득차있습니다. 어느곳에 가나 혁명적구조문헌이 우리 후대들을 기다리고있습니다. 오늘에 와서 우리 화평군은 하나의 대로 천혁명박물관이라고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잡나무림이 류달리 푸른 무늬를 놓은 저 산발들을 밟아가노라면 그 어데서 불멸의 글발을 새긴 아름드리 거목이 푸른 잎새를 흔들며 우리를 기다리고있을지 어찌 알랴. 그리고 우리가 걷는 이 길도 69년전의 그날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며 걸으시였던 그 길이 아닌가! 참으로 이 화평땅은 그 어느곳도 위

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사적, 선렬들의 자욱이 깃들지 않은곳이 없을것이다.

넓게 열린 길과 설레는 가로수, 우뚝우뚝 일어서 현대적건물들, 옛날에는 광술불 비친 움막집과 관자집박에 없던 이곳에 오늘은 전등불 밝은 다층살림집들과 아담한 꺾음식살림집들이 하나의 거리를 이루었다. 한문서당과 목동의술박에 없었던 이 땅이 전문학교를 비롯한 수많은 고등중학교들과 군병원을 비롯한 리 병원들 그리고 정연한 문화후생시설이 갖추어진 문명한고장으로 되었다. 끝까지의 물살빠른 크고작은 강마다에는 중소형발전소들이 건설되어 군내 각지에 전기를 보내주고있다.

화평군의 어제와 오늘을 더듬어보는 우리에게 는 군당책임비서가 마지막에 하던 말이 떠올랐다.

《그전에 우리 화평사람들은 다른곳에 가서도 어데서 왔느냐고 물으면 인차 대답을 못했습니다. 너무 산골이여서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랑스레 대답합니다. 화평에서 왔다고요...

몇년후에 다시 오십시오. 그러면 또 몰라보게 변모된 우리 군을 보게 될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번에 석탄을 찾아냈습니다. 자체탄광을 가지게 되었지요. 현재 확보된 매장량만도 수백만 톤에 이릅니다. 이제 석탄이 나오면 석회석은 무진장하니 세멘트를 자체로 생산하게 됩니다. 중소형수력발전소들도 계속 건설하고있습니다. 잣나무림도 해마다 수백정보씩 늘어나고있습니다.》

화평읍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길게 누워있다. 깊은 산골이라는 생각을 잊게 하는 현대적건물이 일어난 읍거리를 걸어 한끝에 이르면 나지막하고 자그마한 한채의 집이 있다. 동기와를 넣은 자그마한 집, 이 집이 바로 《배움의 천리길》과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시던 그 밤들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머무르신 《천수려인숙》이다. 읍거리에서 제일 작은 집이어서 눈에도 잘 띄우지 않는 집,

모래와 석비레를 깔아놓은 좁은 트랙 한열에서는 강원도 고성 의 천리길답사행군대 학생들이 심어 놓고 간 왕대황이 두레방석만한 잎을 펼치고 자라고있다.

조용한 집 《천수려인숙》, 강사의 안내가 아니면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칠수도 있는 작은 집, 이제 몇해 지나면 읍거리는 더 많은 현대적건물들로 장식될것이고 그러면 《천수려인숙》은 더 작아지고 눈에 띄지 않게 될것이다.

허나 주위의 집들이 커지고 높아질수록, 아름다워질수록 이 자그마한 집은 더 높이 솟아오를것이다.

《천수려인숙》앞에서 읍거리를 바라보느라니 우리에게 는 불현듯 만경대지구에 일어난 광복거리를 돌아본 한 시인이 만경대고향집앞에서 읊었던 시의 글줄들이 떠올랐다.

...

찬란한 별천지인양 펼쳐진 거리여
그끝은 어디고
시작은 또 어데나

너의 거리를 다 걸어가 닿으니
그 한끝에
아, 수수한 초가집 한채

내 초가집 사립문가에 서서
저 눈부신 거리를 내다보니
웅장하고 화려한 광복거리가
만경대초가집추녀아래 다 들어섰더라

화평군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건 이 자그마한 집은 더욱더 높이 솟아오르며 빛을 뿌릴것이다. 태양의 빛을 받아 빛나는 작은 행성처럼... 그리고 이 집 자그마한 트랙에서는 왕대황이 더욱 푸르싱싱하게 자랄것이다!...

가사

나는 전초병

갈대숲 설레이는 분계선가에
내 청춘 꽃피는 초소가 있네
찬바람 눈비도 달게 맞으며
우리 당 지키는 나는 전초병

평양은 여기서 멀리 있어도
내 마음 언제나 함께 있다네

수호의 영예로 삶을 빛내며
우리 당 지키는 나는 전초병

사나운 불바람 몰아쳐와도
병사인 신념은 흔들림없네
피끓는 병사의 심장을 바쳐
우리 당 지키는 나는 전초병

오병론

력사의 령마루에서

-1992년을 보내며-

박창화

바람따라 돛을 달고
향방없이 달려온 한해가 아니다
물결따라 남을 보며
이리저리 들려온 한해가 아니다

세기를 밝히는 당중앙의 불빛을
새해의 첫 해살로 받아안은 우리 조국
주체의 붉은기 높이 추켜들고
역풍을 맞받아 곧바로 달려왔으니

얼마나 가슴 벅찬
격동과 환희의 나날이였던가
얼마나 손꼽아가며
기쁨속에 맞고 보내던 나날이였던가

만경봉에 태양이 솟아
이 강산에 자주의 꽃 만발한 영원한 그 봄이
있고
정일봉에 향도성 솟아
온 나라에 넘치는 열정의 세월이 있으니

조선의 낮과 밤들은
끝없는 격동의 물결로 설레이었고
집집의 창가와 사람들 마음속엔
만수축원의 꽃들이 다투어 만발하고...

그러했더라
수령님께서 심혼을 바쳐 친필하신
세기와 더불어 빛날 회고록과 함께
불멸의 송시를 국보로 받아안던 그날은

그러했더라
건군 예순뉘년 열병광장에
도도히 굽이친 철의 대오
그 발구름소리 우뢰같던 그날은...

아, 세상이 모두 부러워하는
민족의 이 긍지와 자부심이어

이것을 위해 오늘도 인민행렬차를 몰아
온 나라를 다 찾으시는 수령님!

진정 우리 수령님 걸으시고
세월을 앞당겨 우리 당이 새겨가는
그 위대한 자욱을 따라 천지개벽해온
내 조국의 자랑찬 열두달이거늘

강철의 산악들이 구름우에 치솟고
대농의 해 로적거리 하늘에 닿았노라
새 집들이 웃음에 통일거리의 밤은 짧아지고
충효일심소행으로 조국은 다 아름다와지고...

아, 력사의 령마루에서
또 한해를 보내며 내 한껏 웨친다
우리 수령님이 세상에서 제일이시다!
우리 지도자동지 천하에 제일이시다!

진정 그래서
세계 량심들은 조선으로만 파도쳐오고
해가 갈수록 이 강산은
젊음이 약동하고 행복이 꽃피고
통일의 새 아침은 밝아오고있나니

남들이 절망과 한숨 속에
눈물로 보내는 한해를
우리는 승리와 자랑 속에
기쁨으로 손저어 보내노니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에
새 장으로 빛날 1992년의 나날이어
소백수의 흐름처럼 인민의 마음속에
흐려지지 않을 1992년의 용용한 대하여!

다하지 못한 자랑과 긍지를 담아
하늘 가득, 세상 가득 내리는 눈송이들
그우에 우리 새 진군의 자욱 깊이 새기리
승리만을 확신하는 주체의 결음으로!

가사

아 잊을수 없네

(총련)오흥심

누구나 뵈고싶은 우리 수령님
이 몸도 만나뵈온 그날이 있네
세월엔 날과 달 많고많아도
이날만은 이날만은 잊을수 없네
아, 잊을수 없네

따뜻이 내 손 잡아 곁에 앉히고
교원은 혁명가라 말씀하셨네
이 가슴에 천금같은 진리 새겨준

그 말씀 그 말씀 잊을수 없네
아, 잊을수 없네

이역땅 가서도 일을 잘하라
손저어 바래주신 어버이눈빛
오늘도 내 가는 길 보살펴주는
그 눈빛 그 눈빛 잊을수 없네
아, 잊을수 없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만세

까말 알 굴라

김정일

그 이름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합니다

김정일

그이는 우리의 심장을 울리는 박동
그이의 사상은 투쟁으로 부르는 승리의 기치
그이는 사회주의길을 밝히는 등대

김정일

그이는 우리의 마음속에 불타는 화불
그 화불 밝게 비쳐
우리도 통일조선의 그날에 살거니
동방에 솟아오르신 별이시여
솟는 해의 미소이시여

영광의 상징이신 그이께서 계시여
조선은 반드시 통일될것입니다

조선은 굳건한 나라
조선은 굳건한 사회주의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이 무너져도
조선은 반제의 길에 굳건히 서있습니다

조선은 혁명가들의 상징
조선은 사회주의의 상징

김정일

그이는 우리의 령도자

우리의 스승

그이 계시기에
우리엔 세상에 무서운것 없고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투쟁의 승리를
우리의 미래를

혁명하는 인민들은 우러릅니다
그이 계시는 조선을
혁명하는 인민들은 바라옵니다
주체조선에 활짝 꽃필 인류의 미래를

그이의 탄생 50돐은
조선인민의 경사스러운 명절
그이의 탄생 50돐은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뜻깊은 명절

위대한 수령님의 계승자이신 그이를
우리모두 높이 모시렵니다
우리의 스승으로
우리의 최고사령관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탄생 50돐 만세!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만만세!

(필자는 팔레스티나사람임)

날개돋친 흰말

봄이면 발갈이군의 머리우에서 노고지리 우짚는 소리 청아하고 가을이면 벼단 실은 황소의 영각소리가 구성지던 이 땅에 일본침략자들이 기여들어 총소리, 대포소리가 천지를 뒤흔들었다.

그 무리들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넓은 만주광야를 휩쓸고 점차 중국관내깊이까지 침략의 마수를 뻗쳐갔다.

그러자 왜놈들의 발길이 닿는곳마다에서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의로운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졌다.

그 불길을 마침내 남북만주의 넓은 땅에도 휩쓸었다.

푸르던 나무잎에 어느덧 황이 들어 하나둘 잎이 떨어지기 시작하던 초가을이었다.

백두산에서 멀리 북쪽, 어느 깊은 산속으로 며칠째 우군 여러 부대의 대장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왜놈들을 죽칠 작전을 의논하기 위해 모임을 마련한것이다.

말을 타고 창을 든 창기병을 이끌고 왕사령이 달려왔고 투구쓰고 방패를 잡은 용기병을 앞세우고 진사령이 왔으며 번쩍거리는 장검을 등에 진 《청룡도부대》와 함께 주사령이 왔다.

런이어 화승대와 5련발총을 멘 포수부대와 도끼와 낫으로 무장한 나무군부대의 대장들도 모두 모여들었다.

그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왜놈들을 칠 묘책을 토의했다.

그로부터 며칠후 우군의 여러 부대들은 힘을 합쳐 어느 성시를 들이쳤다.

천군만마가 내달려 용기병과 창기병, 청룡도부대가 성시를 겹겹으로 에워싸고 포수부대와 나무군부대들까지 화승대로 쏘고 도끼로 짓조기며 밀물처럼 쳐들어갔다.

그러나 현성은 끄떡도 안하고 들이칠 때마다 매번 이쪽만 큰 피해를 보았다.

왜놈들이 틀고앉은 현성은 높은 담장과 함정으로 둘러싸인 불락의 성새였다.

입을 꼭 다문 열두개의 무쇠대문에 청각이 예민한 과수병들이 진을 치고 솟을대문과 일각대문마다에는 방금 불길이 쏟아져나올듯한 총구들이 벌둥지처럼 승승했다.

거듭 싸우기를 몇십번, 그때마다 우군은 성 밑에 시체만 쌓고 되돌아섰다.

우군대장들은 한숨을 지으며 다시 모여앉아 방략을 의논했다.

그러나 누구도 신통한 지략이 없어서 한숨만 내쉬었다.

이때 청룡도를 지팡이처럼 짚고선 나이지긋 왕사령이 정중히 말했다.

《패전을 역전함이 쉬운 일이 아니거늘 여기에 단 한가지 타개책이 있을가 하오. 내 듣자하니 백두성봉에 나라찾을 화불을 높이 들고 왜놈격멸에서 혁혁한 공을 쌓고있는 해동국의 대장수가 있다고 하니 거기에 청을 드려 응전을 받음이 어떠하오?》

그러자 진사령이 그 말을 받으며 이렇게 물었다.

《백두산대장수에 대한 말을 나도 들은바 있소만은 자세히 몰라 매우 궁금하던차요. 그래 로장은 그분에 대해 잘 알고있으시오?》

다른 대장들도 백두산장수에 대해 말을 많이 들었노라면서 호기심이 잔뜩 어린 눈으로 왕사령을 쳐다보았다.

《나도 들어 아는바이지만 해동국대장수님은 족지법에 분신술, 거기에 도술까지 겹쳐 쓰는데 천하에 그를 당할 힘은 없다고 하오.》

《그럼 어서 그 장수한테 청을 드려 응전을 받으시다.》

주사령과 여러 대장들은 한결같이 왕사령의 말에 호응해나섰다.

그들은 누굴 대표로 보낼것인가를 한참이나 토의하다가 마침내 날과람있고 총명한 한 군사를 보내기로 하였다.

《그대의 용맹과 술기를 믿고 중임을 맡기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백두산 장수님을 만나 우리들의 소청을 전해드리기 바라오.》

《그대에게 우군부대들의 운명이 맡겨졌다는것을 언제나 명심하오.》

대장들은 저마다 대표로 떠나는 군사에게 한마디씩 하였다.

곧 우군부대의 대표가 장수의 응전을 요망하는 청탁을 안고 백두산을 향하여 떠나갔다.

군사는 조선의 명산, 산지조종 백두산을 향해 공꿀말을 냅다 몰아갔다.

떠난지 보름만에 백두산에 이른 군사는 어디에 대장수가 계시는가 하여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러다가 천지에서 제일 높이 솟은 대장봉(장군봉)마루에 한사람이 서있는것이 언뜻 눈에 띄었다.

다시 자세히 보려 하니 갑자기 안개가 자욱히 가리워 잘 보이지 않았다.

(아, 저이가 백두산 대장수임에 틀림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한 군사는 대장봉을 향해 말을 몰아갔다.

그런데 바람이 어찌나 센지 말을 타고 도저히 그리로 오를수가 없었다.

공골말은 연방 투레질을 하며 뒤걸음질을 쳤고 군사는 자꾸만 박차를 갔다.

군사는 바람에 밀리고 오르고 하면서 간신히 대장봉마루에 다달았다.

그는 말에서 뛰어내려 그 사람앞에 무릎을 꿇고앉아 찾아온 사연을 말하였다.

《대장수님! 장수님께 청을 드릴게 있어 찾아왔습니다. 간악한 왜놈들은 날이 갈수록 악착스럽게 그지없습니다. 놈들에 대한 원한이 구천에 사무쳐 복수의 불길이 끓어넘치고있으나 저희들의 힘으로는 답알로 바위를 치는격이어서 싸움마다 패전을 면치 못하옵니다. 대장수님께서 넓으신 도량으로 저희들을 가금히 여기시고 응전을 해주시웁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렇게 말하고 군사가 머리를 드니 어찌된 일인가? 그앞에 서있는 사람은 열뒤살도 되나마나 한 소년동자였던것이다.

동자는 놀란 눈을 좁히고 입을 다물지 못하고 서있는 군사를 보더니 한참이나 배를 쥐고 깔깔 웃어대었다.

군사는 어린 소년앞에서 무릎을 꿇고앉아 말한것이 쑥스럽기도 하고 멋적은데다가 동자가 웃어대니 뺨이 울적 치밀었다.

《너는 누군데 이 신성한 산에 올라 어른을 욕보이며 그렇게 한절없이 웃어대기만 하느냐?》

군사가 꾸짖자 동자는 새별같은 두눈을 반짝거리며 귀엽게 생긴 입을 열었다.

《나는 백두산 대장수의 제자인데 방금 저 멀리 북쪽에 사는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고저 떠난 우리 장수님을 배래드린걸입니다.》

군사는 동자가 손을 들어 가리키는곳을 바라보았다.

영? 이 어인 일인가?

그곳은 자기가 떠나온 바로 그고장이 아닌가!

《아니 그럼 대장수님께서 우리고장에 가셨단 말씀이시요?》

군사는 놀라면서 이렇게 되물었다.

《대장수님께서서는 백두산에 오르시여 손금보듯 천하를 굽어보고계시기에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계십니다.

바로 오늘도 그곳 현성에서 우군부대들이 왜놈들에게 거둬 패전하는것을 보고 가슴아프시여 이렇게 길을 떠난것이옵니다.》

군사는 다시한번 깜짝 놀랐다.

(어쩌면 그렇게도 세상만사를 다 알고계실까?)

군사가 이런 생각을 하고있는데 동자는 손에 든 쑥대로 허공을 쭉 가로긋는것이였다.

그러자 기승을 부리던 바람은 어느새 잦아지고 천지엔 갑자기 풀잎 하나 까딱하지 않는 고요가 깃들었다.

군사는 도술을 쓰는 동자를 보고

(제자가 저렇듯 신비한 힘을 가지고있으니 하물며 대장수님이시야.) 하고 생각하였다.

군사는 동자앞에 다시한번 무릎을 꿇고앉아 머리를 숙이였다.

《내 원체 미련한데다가 눈이 멀어 미쳐 몰라보았으니 제자님께서 널리 랑해해주십시오.》

동자는 펄쩍 뛰며 군사를 일으켜세웠다.

《그러지 말고 어서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먼길을 급히 달려온걸 보니 그곳 형세가 매우 위급한것 같은데 그럼 저와 함께 그리로 가십시오.》

동자는 그자리에서 어느새 가뭇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눈을 비비고 사방을 둘러보니 동자는 벌써 산봉우리들을 가볍게 짚고 저 멀리 바람처럼 달려가는것이였다.

군사는 공골말을 타고 동자를 따라 바삐 달려갔다.

그런데 웬일인지 갈 때는 보름이나 걸렸는데 올때는 눈깜짝할사이에 와닿았다.

동자는 천리산발을 쉽게 주름잡아 세걸음에 전장의 성곽밑까지 날아왔던것이다.

《과시 대장수의 제자임에 틀림없구나. 제자가 이럴진대 대장수가 닷새천기를 내다보고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축지법을 쓴다는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군사는 놀라마지 않았다.

동자는 군사에게 한곳을 가리키며

《저기 대장수님이 계십니다.》 하고 말했다.

《예, 대장수님이요?》

동자가 가리키는곳을 바라보니 과연 대장수가 높은 바위봉우리에 올라서서 성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대장수의 눈에서는 불이 펄펄 일고있었다.

군사는 대장수에게로 달려가려고 말고삐를 힘있게 잡았다.

동자는 그러는 군사를 말리며

《여기서 나와 함께 구경이나 하십시오.》 하고 말했다.

군사는 대장수가 어찌하나 하고 호기심에 끌리어 그 거동만 살폈다.

적진을 노려보던 대장수는 한손을 높이 들어올리였다.

그 손길이 허공에서 반원을 그으며 천천히 내려지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바람이 일더니 재빛구름이 떠돌았다.

그런가싶더니 짙은 구름틈새기로부터 하얀 실날같은것이 급히 이쪽으로 움직이는것이였다.

그것도 감시사이이고 다시 재빛구름에 가리워 알릴듯말듯하더니 점차 그것이 크게 보였다.

군사는 하도 신기하여 감탄하며 다시 하늘을 쳐다보았다. 자세히 보니 날개돋친 흰말 한필이

재빛구름을 밀어제끼며 훨훨 날아오고있지 않는가!

《야 롱마다! 하늘에서 롱마가 내린다!》

군사는 너무도 놀라운 현실앞에서 어찌할바를 몰라하는데 어느새 흰말은 장수앞에 이르러 쌍날개를 접고 유순하게 몇번 울음소리를 내더니 그자리에 허리를 낮추고 섰다.

장수는 날랜 동작으로 말잔등에 올라탔다.

장수는 곧바로 롱마를 적진으로 내몰았다. 나래퍼고 달리는 말뒤로 바람이 일고 구름이 날렸다.

그 순간에 굉장한 일이 벌어졌다.

흰말이 성벽에 이르기도전에 돌문같이 닫혀있던 첩문짝들이 와지끈 통탕 하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자갈처럼 부서져날아갔다. 일시에 성곽이 허물어져나가고 왜놈들이 벌떼처럼 쏟아져나왔다.

장수가 쏜살같이 날아들어가면서 장검을 몇번 휘둘러대니 왜놈들은 용도 못쓰고 그자리에 풀썩 풀썩 꺼꾸러지며 피를 토하는데 삽시간에 검은 피가 도랑을 이루었다.

현성의 왜놈들이 모조리 죽어자빠지고 우두머리 놈의 목이 마지막으로 떨어졌다.

군사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려고 동자에게 말하고 우군부대가 있는곳으로 달려갔다.

우군부대의 대장들과 병사들은 이 소식을 듣고 모두 현성으로 달려와 환성을 울리며 패전패승을 축복하였다.

대장들은 장수를 경건히 우러르며 그의 앞에 달려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왕사령이 그들을 대표하여 말하였다.

《대장수님! 저희들도 롱마에 보검을 잡은 천하명장의 슬하에서 싸우도록 허락해주십시오.

목숨이 다할 때까지 미려한 힘이나마 다 바치겠습니다.》

우군 병사들과 대장들은 모두 장수의 뒤를 따라가다.

그들은 대장수의 휘하에 굳게 뭉쳐 싸울 결의에 충만되어있었다.

그 대장수는 바로 백두산의 명장-**김일성** 장군님이시였다.

김정숙녀사

-시집 《황금의 열매》중에서-

마리오 루나

그 모습 수수하고 조용하시였어라

불타는 열정

불타는 심장 지니신

조선의 녀사

어리신 시절에 벌써

필승의 신념 지니시고

강철의 의지 다지시였어라

유격대의 귀감이시였어라

가정도 혈육도 다 뒤에 남기시고

위대한 주석의 전사로

간고한 혁명의 길 헤쳐오신 녀사

행군길에선 언제나

무거운 짐 말아나서시였고

전투장에선 언제나

명사수의 용맹 펼치시였어라

조선의 녀투사

그이는 하늘에 비낀 밝은 빛!

기묘한 전략가이시였어라

영민하신 그이

전투마다 민첩하게

적을 유인하고 따돌리시였어라

가장 강의한 항일의 녀성영웅

혁명투사의 귀감

그이의 영웅성과 투쟁정신

친애하는 지도자

고이 이어 받으시였어라

(필자는 빼루시인임)

밀림속에 생겨난 목욕탕

백두산의 깊고깊은 숲속에서 조국광복의 성업이 이루어져가고있던 어느해 추운 겨울이었다.

윙윙 기승을 부리며 끝안의 눈가루를 뽀얗게 말아올리던 하늬바람도 기진한듯 잦아든 저녁의 고즈넉한 정적을 깨뜨리며 어디선가 쿵쿵 먼 우뢰소리같은 음향이 눈에 묻힌 이깁나무숲으로 메아리쳐왔다.

《음, 왜놈치려 갔던 장수들이 백리밖에 왔군.》

오두막 토방에 쭈그리고 앉아 노루가죽을 벗기고있던 리로인은 움쭉 허리를 펴고 일어섰다. 로인의 주름잡힌 얼굴에 한가닥 밝은 웃음이 비졌다.

《어서 세수물을 덥혀야겠군.》

로인이 부엌으로 장작을 안아들이는데 쿵쿵 아까 들리던 그 웅글은 소리가 좀더 크게 울려왔다.

《허 벌써 오십리밖에 왔군.》

로인은 부쩍 일손을 다그쳤다.

가마에 물을 길어다 붓는다, 아궁에 불을 지핀다 서두르며 돌아왔지만 미처 어쩔새가 없었다.

쿵쿵 땅을 흔드는 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리더니 한무리의 장대한 사나이들이 어깨에 멘 창검을 절거덩거리며 벌써 끌어귀에 들어섰던것이다.

하나같이 키가 구척이고 몸집이 우람찬 장수들이었다. 발을 옮길 때마다 땅이 쿵쿵 울리고 웃을때마다 숲이 우수수 설레이었다.

《어이구, 임자네들이 벌써 승전하고 돌아올줄이야...》

로인은 허둥지둥 마주 달려가면서 반가와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그도 그럴것이 로인으로 말하면 한창때 왜놈들을 요정내겠다고 날창을 버려들고 의병에 들어갔던 사람이었다. 싸움에서 크게 패한 그는 부모처자들을 섬오랑캐놈들한테 모두 빼앗기고 쫓겨다니는 몸이 되어 이 깊은 산골에 혼자 외로이 숨어살다가 백두산 장수들을 만나 처음으로 사람대접을 받게 된터였다.

장수들은 로인을 부축하고 오두막뜨락으로 들어서다가 눈들이 둥그래서 한마디씩 하였다.

《아니 이거 좀 쉬이지 않구 또 노루사냥을 하셨군요.》

《늙으신 몸에 어찌자구 세수물까지 덥히며 이러십니까? 아 가슴에 피가 한동이씩 고인 이 젊은것들을 두었다 무엇에 쓰자구요.》

그러거나말거나 로인은 손을 뻗혀 내저으며 제 할말을 다 하였다.

《허 정말 모를 소리로다. 내 이미 버림을 받은

몸인데 늘그막에 장군님의 은총을 받아 뼈에 사무친 원한을 풀구 사람답게 살게 되었은즉 늙은 몸이라 전장에는 나가지 못할망정 어찌 하늘같은 은혜를 받기만 하겠나.》

로인은 그후에도 장수들이 말렸으나 막무가내로 말을 듣지 않고 전장에 나갔다 돌아오는 장수들을 위해 꼭꼭 물을 끓여놓곤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김일성 장군님께서 장수들을 거느리시고 왜놈들을 죽치러 나가신후 밀영에 남은 리로인은 토방에 오금을 꺾고앉아 점도록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로인의 가슴속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 그 어떤 큰 일을 하고싶은 마음이 부글부글 피어올랐다.

로인은 한참동안 생각을 이리저리 공굴리듯하다가 무슨 좋은 궁리가 떠오른듯 무릎을 철썩쳤다.

(그렇지! 장군님을 위해 목욕탕을 만들어놓아야지.)

이렇게 결심한 로인은 자리를 차고 일어나 곧 그 일에 달라붙었다.

먼저 물을 끓일 가마를 걸 아궁부터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때였다.

백두산의 별님으로 불리우시는 어리신 지도자동지께서 그리로 다가오시었다.

로인은 며칠만에 보는 어리신 지도자동지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사이 몰라보게 성장하였던것이다.

보름달같이 환한 얼굴에 역실역실한 눈, 활달한 걸음걸이...

탄생하시여 3일만에 걸음을 옮기시고 한달만에 국문과 세상리치를 깨치셨다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로인에게 가까이 다가와 정겹게 물으시었다.

《할아버지, 무엇을 만드시나요?》

목소리 또한 백두산의 폭포처럼 기세차고 소백수의 맑은 물과 같이 정다웠다.

로인은 감심하여 장군님께서 돌아오시면 피로를 푸시게 목욕탕을 만들려고 그런다고 대답하였다.

어리신 지도자동지께서는 영채도는 눈을 반짝이며 주위를 살피시더니 잠깐 기다리라는 말을 남긴채 어디론가 바람같이 사라지시었다.

로인은 영문을 몰라 사위를 두리번거리며 그자리에 엉거주춤하고 서있었다.

그런데 또다시 나타난 지도자동지께서

《할아버지, 나를 따라오세요. 저기 더운 물이

있어요.》 하시며 팔을 잡아끄는것이였다.

로인은 지도자동지계서 이끄시는대로 그냥 따라갔다.

한동안 눈길을 헤쳐가던 로인은 제 눈을 의심하였다.

갑자기 눈앞에 집채같은 바위가 나타나는데 그 주변에는 봄날의 아지랑이인양 하얀 김이 떠돌고 땅밑에는 봄색이 움트는지 파란 기운이 완연하게 돌아왔다.

로인이 의아함을 금치 못해하자 어리신 지도자동지계서는 얼굴에 환한 웃음을 담으며 어서 바위우에 손을 얹어보라고 하시였다.

바위우에 손을 대본 로인은 갑자기 눈을 크게 흘렸다.

바위가 두부집 온돌바닥같이 뜨끈뜨끈하기때문이었다.

지도자동지계서는 바위를 쿵쿵 두드리시며 이 안에 더운 물이 있다고 하시였다.

로인은 머리를 끄덕이며 생각하였다.

(그안에 더운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으랴!

그러면 전장에서 돌아오는 장수들이 더운 물을 마음대로 쓸수 있구...)

로인은 어떻게 하면 집채같은 바위를 들어낼수 있을가 하여 그 주위를 돌아보았다.

이때였다.

《찌지직, 찌지직》 하는 소리가 나더니 바위밑에서 뾰얀 김이 분수처럼 뿜쳐올랐다.

뾰얀 김은 순식간에 바위언저리를 하얗게 뒤덮었다.

로인은 너무도 뜻밖의 일에 놀라 어쩔줄을 몰라하며 어리신 지도자동지를 찾아보았다. 그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이때 《찌직-광》 하는 굉음이 골안을 울리더니 바위밑에서 팔팔 물이 솟구치는 소리가 들리었다.

이윽고 골바람에 안개가 걷히듯이 뾰얀 김이 걷히자 로인의 눈앞에는 신비한 광경이 펼쳐졌다.

샘구멍이 터진 집채같은 바위밑에서 맑은 물이 평평 솟구쳐나오고있었다.

그 물에 손을 대보던 로인은 또다시 흠칠 놀랐다.

솟구치는 물이 어찌나 뜨거운지 손을 담글수 없었다.

(이런 조화라구야!... 바위밑에서 더운 샘구멍이 터지다니...)

로인이 어리둥절해 서있는데 귀에 익은 쟁쟁한 목소리가 등뒤에서 들려왔다.

《할아버지, 아예 여기에다 목욕탕을 지으면 좋지 않겠어요?》

뒤를 돌아보니 지도자동지계서 얼굴에 함박꽃 웃음을 담고 서계시였다.

순간 로인은 지도자동지계서 천지조화를 일으키지 않았나 하여 두눈을 슬며시며 바라보았다.

지도자동지계서는 로인을 뜻있게 바라보시며 여기에다 할아버지의 마음에 들게 온천목욕탕을 잘 지어보자고 하시였다.

로인은 기쁨을 금치 못해하며 주변풍치에 어울리게 나무를 찍어다가 온천목욕탕을 지어놓겠다고 하였다.

지도자동지계서는 로인의 생각에 동의하듯 정겨운 얼굴에 볼우물을 지으시였다.

어느덧 사위에는 땅거미가 깃들기 시작하였다. 귀틀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으나 로인은 좀처럼 잠들수 없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이 자꾸만 눈앞에 떠오르기때문이었다.

지도자동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이 낸 위인이심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않다면야 그 바위밑에 더운 물이 있다는것을 어떻게 알았으며 그 시각에 샘구멍이 터지는것과 같은 그런 조화가 어떻게 생긴단말인가.

밤새껏 천지조화를 일으키는 지도자동지를 생각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였던 로인은 날이 밝자 목수공구를 챙겨넣은 망태기를 둘러메고 온천으로 갔다.

그리로 간 로인은 깜짝 놀랐다. 거기에는 벌써 로인이 생각하던 그런 온천목욕탕이 지어져있기때문이었다.

로인이 영문을 알수 없어 머리를 기웃거리자 장수들은 어제밤 어리신 지도자동지계서 조화를 일으켜 온천목욕탕을 지어놓았다고 하였다.

(밤사이에 이런 훌륭한 온천목욕탕을 짓다니...)

로인은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었다.

아름드리 장대나무로 아귀물려 벽체를 쌓고 붓나무점질로 기와를 만들어올린 목욕탕은 보기에 도 산뜻하였다.

장수들의 안내를 받으며 목욕탕안에 들어선 로인은 더욱 놀랐다.

맑은 물이 넘쳐나는 욕조는 네모방정하게 통나무를 다듬어만들고 옷걸이는 향나무로, 의자는 다래덩쿨로 만들었는데 보기만 해도 장군님을 위하시는 지도자동지의 마음이 가슴뿌듯하게 안겨오기 때문이었다.

(과시 내 나라엔 대통령이 텃구나! -조선의 앞날은 창창하고 무궁하구나!)

로인은 이렇게 뇌이며 부풀어오르는 가슴을 안고 목욕탕을 나섰다.

그때 얼굴에 함박 미소를 담은 어리신 지도자동지계서 로인을 마중하여 목욕탕이 마음에 드는가고 물으셨다.

로인은 황송한 마음을 금치 못하며 미처 대답 할말을 찾지 못하였다.

며칠후 장군님께서 전장에서 돌아오시자 지도 자동지께서는 리로인이 온천목욕탕에 그이를 모 시도록 하여주시였다.

리로인과 함께 온천목욕탕을 돌아보신 장군님께서는 만족감을 금치 못하시며 이 목욕탕이 어떻게 생겨났는가고 물으시였다.

《장군님, 럽치없이 장군님의 은총만 받고사는 소신은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그 하해지택에 만분의 하나라도 보답할가 하고 마음을 쓰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다 할 궁리가 떠오르지 않아 안타까와하던중 장군님께서 피곤을 푸실 목욕탕을 하나 지을 생각을 하고 일을 시작하였습 니다.》

로인은 이어 그간 있었던 신비한 일을 자상히 말씀드리고나서 이렇게 덧붙이였다.

《정말 신동이시고 하늘이 낸 위인이시옵니다.》

로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감격하여 말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로인의 말을 들으시며 머리를 끄덕이시였다.

그런데 어리신 지도자동지께서 하신 일에 대해 대견해하시면서도 놀라거나 신비하게 생각하시는 기색은 조금도 찾아볼수 없었다.

너무도 레사롭게 여기시는 혼연한 표정이시였다.

장군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로인과 장수들은 다

시한번 놀랐다.

(두분이 다 고금에 없는 위인들이시로구나.)

로인은 새로 선 목욕탕을 장군님께서 먼저 리용하시라고 자기의 초청을 말씀드렸다.

장군님께서서는 그 초청을 끝내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로인에게 권하시였다.

《우리 밀영에서 나이가 제일 많으신 로인장께서 먼저 하셔야 합니다.》

장군님께서 자꾸만 권하시는 바람에 리로인은 감격에 목이 꼭 메여 더 말을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그리하여 장군님께서 사용하시라고 세운 목욕탕은 보통대원들이 리용하게 되였다. 목욕탕 온천물은 참으로 신기한 효능을 가지고있었다. 한번만 목욕을 하면 백날 행군으로 쌓여진 피곤이 봄눈녹듯 사라지고 두번만 목욕을 하면 십년 묵은 병도 언제 앓았던가싶게 깨끗이 나았다고 한다.

목욕을 하면 할수록 늙은이들은 더 젊어지고 젊은이들은 온몸에서 힘이 솟음처럼다고 한다.

장군님께서서는 리로인이 이 목욕탕을 맡아서 관리하도록 하시였다.

그때부터 로인은 해방이 되는 날까지 그 온천목욕탕을 관리하였다고 한다.

해방직후에도 북부국경 일대에 가면 《온천꿀할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한다.

김우경

김정숙어머님 마을에 오시면

김정곤

김정숙어머님 마을에 오실 땐
집집마다 추녀우에 해빛도 눈부시네
어머님께서 뜨락에 들어서실 땐
을씨년스런 돌담에도 박꽃이 핀다네

우물에 가시면 물푸는 소리도
혁명의 노래되어 동이마다 차오르고
설음찬 명든 가슴엔
파아란 봄하늘 비껴온다네

등불아래 조용하신 음성
나라를 찾는 길에 힘을 합치자고
누구나의 손을 굳게 잡아주실 때
가슴마다 황황 화불을 일룬다네

까막눈도 밝게 띄여주시고
광복의 한길에 내세워주시니
유격대 원호물자 마련하는 길
웃고름조차 사랑살랑 봄향기 일쿠는듯

김정숙어머님 마을에 계시면
마을도 사람도 달라진다네
아이들은 능금같이 더 고와지고
어른들은 인사말에도 쇠소리나고...

김정숙어머님 마을을 떠나실 땐
그늘진 처마에도 해빛이 웃고
가시는 그 자욱따라
이 동리 저 동리 온 마을이
백두산말기로 줄줄이 줄지어 따라선다네

《인민과 생활에 대한 세부묘사는 사실주의적묘사의 기본 형태이다. 소설에서는 인물을 그리든 환경을 그리든 할것없이 세부묘사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김정일

위대한 업적

하나의 생활세부도

소설작품을 하나의 유기체로 본다면 생활세부는 자그마한 세포와 같다고 할수 있을것이다.

유기체가 무수한 세포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듯이 소설작품도 수많은 생활세부들로 엮여지게 된다.

그런만큼 소설에서 생활세부를 잘 형상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소설에 묘사되는 생활의 세부들을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고리로 된다고 보시고 작가들이 소설에서 사람들의 기억속에 오래오래 남을수 있는 생동하고인상적인 세부를 잘 형상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시였다.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에는 한밤중에 백리허숲속을 헤매던 일본수비대 한개 중대가 이리떼와 맞다들어 녹아나는 통쾌한 장면이 있다.

소설전반에서 깊은 인상을 안겨주는 이 세부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생동한 화폭으로 완성된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의 창작사업전반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친히 소설의 줄거리를 들어주시고 작품의 철학적깊이와 형상의 심도를 보장하도록 가르치시면서 훌륭한 소설로 완성하라고 따듯이 고무해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은정깊은 고무의 말씀을 전달받은 작가는 충천한 기세로 반년만에 장편소설의 초고를 써내였다.

하지만 작가는 력사적원형을 작품의 주인공으로 그리면서 그를 전형화할데 대한 요구를 창작실천상에 옹기 구현하지 못하였다.

원형인물의 성격과 생활자료, 복잡한 력사적사건들과 얽혀진 인간관계를 어느 정도로 그려야 원형에 충실하면서 개인전기로 되지 않게 형상할수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견해가 없었기때문이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어느 일군도, 어느 창작가도 옳바른 방조를 줄수가 없었다.

작가의 이러한 고충을 헤아려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한 일군을 통하여 예술적전형화의 원칙에서 복잡하게 제기된 모든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주시고 작품의 수정방도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후에도 소설창작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자애로운 스승의 손길로 세심히 가르쳐주시면서 하나의 생활세부도 진실하고 생동하게 형상하도록 따듯이 이끌어주시였다.

작가는 장편소설에서 중동선을 통해 수송된 한개 중대의 일본수비대가 밤낮 사흘간의 강행군끝에 마침내 백리허숲속에 다달으며 그밤으로 숲속을 꿰질러나가는 장면을 설정하였다.

그러므로 섬에서 나서자라 밀림이라는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일제놈의 애송이중위가 있을수 있는 횡액을 예견하는 안내자의 만류도 총칼로 짓밟아 버리며 중대를 인솔하고 해저문 백리허숲속을 행군하다가 겨우내 눈속에서 굶주린 수백수 천마리의 이리떼를 만나 참혹치절한 싸움끝에 한놈은 얼혼이 나가 제풀에 죽어버리고 그밖에 적지 않은놈들이 옷이 찢기고 상처를 입어 비명을 지르며 갈광질광하는것으로 그려놓았다.

소설의 이 장면을 놓고 의견들이 분분하였다.

종래 다른 소설에서는 흔히 볼수 없었던 생동하고 통쾌한 세부라고 하면서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보다 많이는 의견을 달리하였다.

그것은 이 장면의 시대적배경이 항일유격대의 창건이 전시기로 설정됨으로써 수비대놈들이 항일유격대에 의하여 첫 섬멸적타격을 받는것으로가 아니라 맹수들의 습격에 첫타격을 받는것으로 그려졌기때문에 형상적의의가 없다는것이였다.

하지만 작가는 또 작가대로 이 세부를 통하여 앞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항일유격대가 일제 백만대군과 치렬한 싸움을 벌리게 될 전쟁마당이 그 얼마나 간고한 투쟁이 예견되는 혈전의 무대인가 하는것을 형상적으로 강조하려고 한 자기의 의도와 주장을 좀처럼 굽히려 하지 않았다.

제기된 의견들은 모두가 일장일단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 세부를 아예 없애버리는가, 아니면 그 어느 대목에 넣는가 하는데 대하여서는 그 누구도 선뜻 결심을 내릴수가 없었다.

어느날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 장면을 그냥 빼라고 하면 작가가 아까와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작가의 생각이 그렇다면 그의 의도를 충분히 살려 항일유격대가 창건된 이후 장면에 그 세부를 살려넣어도 큰 손색이 없을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그것이 비록 하나의 작은 세부라 할지라도 작품을 쓴 작가에게는 다 귀중한것이라고 하시면서 작가에게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되며 그 자신이 스스로 깨닫고 제기된 의견을 자기의것으로 소화할수 있도록 잘 도와주어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주신 이 간곡한 말씀을 전달받고 작가는 저절로 머리가 숙여졌다.

백리허의 숲속에서 일본놈수비대 한개 중대가 굽주린 이리떼에게 녹아나는 세부로 말하면 소설의 전반적형상에서 큰 예술적의의를 가지거나 특별한 문학적인 주장이 있는것도 아니였다.

하지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작가가 써놓은 작은 세부도 이처럼 귀중히 여기시며 작가의 의도를 잘살려주라고 말씀하신것이 었다.

작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이 세부를 항일유격대가 창건된 이후시기의 장면인 제2편 맨앞에 옮겨놓고 전후 사건과 사실에 맞게 형상을 새롭게 하였다.

참으로 장편소설에 형상된 하나의 작은 세부도 이처럼 아끼고 귀중히 여겨주시며 작품의 종자를 활짝 꽃피워 사상적대가 곳곳이 서고 예술적향취가 풍기게 하여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자애로운 사랑이 있었기에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은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히 완성되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

장편소설이 발표되자 그 누구보다 기뻐하신분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였다.

1971년 2월 어느날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을 쓴 작가는 뜻밖에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지도하시는 어느 한 모임에 참가하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그날 밤깊도록 조국통일과 혁명발전 전망문제, 문학예술발전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지금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에 대한 독자들의 반향이 아주 좋다고 과분한 치하의 말씀을 주시면서 얼마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작품을 다 읽으시고 매우 만족해하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가볍게 웃으시며 자신께서는 작품이 완성된 다음에 아직 다시 읽어보지 못해서 유감스럽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혹 휴가라도 받게 되면 그 기간에 읽지 못한 소설들을 다 읽으시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로 말하면 그 사상적내용과 기본줄거리로부터 시작하여 인간관계와 그들의 성격, 력사적사실과 허구문제, 지어 생활세부들에 이르기까지 작품의 전반형상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따뜻한 가르치심속에서 해결되고 완성된것이다.

한 일군이 일어서서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말씀드리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웃으시며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품이 완성된 다음에는 다시보아야 한다고 겸허하게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의도를 받들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은 소설을 당과 국가 사업으로 분초를 쪼개가시는 그이께서 우정 시간을 내시여 읽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작가는 기쁨과 감격이 젖어 끝내 눈물을 흘리고야말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윽하여 작가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것을 아시고 건강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겠다고 거듭 념려하여주시였다.

밤은 소리없이 깊어갔다. 작가는 감격의 눈물로 두볼을 적시며 사상예술성이 높은 소설들을 더 많이 써서 그이의 믿음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이것은 비단 그 작가의 심정만이 아니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을 높이 평가해주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 소설을 창작한 작가에게 은정깊은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하자 작가들은 저마끔 환호성을 터치며 만세를 불렀다.

일편단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갈 심장의 맹세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혁명하는 자손들을 두대나니 우리 조부모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였다. 하지만 것처럼 모진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절개를 굽히지 않고 꿋꿋하게 잘 싸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중에서-

그날을 믿으시고

박창균

간밤

폭행의 긴칼 끌린 마당가를

조용히 쓰다듬는듯

송이송이 흰눈이 내리는데

지새우신 새벽하늘가에 눈길 없으시며

흰머리수건 고쳐쓰신

리보익할머님께서는

결연히 싸리비 쥐시고

사립문을 나셨나이다

걸음걸음 길을 내이시며

군함바위앞에 다가서시는데

문득 왜적을 짓부시려 가자고

만경봉 푸른 기슭에 올리시던

장군님 그날의 그 음성

귀전에 다시 들려오는듯

그려보노라면

먼먼 천리길 첫 언덕우에

불같은 광복의 맹세

눈보라속 기폭처럼 날리시며

떠나가시던 그날의 장군님

눈앞에 다시 만나시는듯

푸르른 소나무 가지마다엔

가벼이 눈발이 날리고

이때면

더더욱 마음 뜨거우시여

수복이 바위우에 쌓인 흰눈

소중히 끌어내리시며

아, 할머님께서는

생각 깊어 지셨나이다

마음은 벌써 수천리

장군님 이끄시는 항일대오

험산준령 그 앞길에

흰눈길 내어주시며

울창한 밀림을 넘고넘어

북만의 먼 기슭에도 가닿으시고

마음은 달리시여

새날을 맞는 사령부 귀틀집

눈덮힌 마당가를 쓸으시는가

저멀리 백두의 하늘 우러러

걸음걸음 옮기시는 이 길

이 길우에 할머님께서는

벌써 마중하시나이다

해방의 봄 언덕우에

개선의 큰자욱 찍으시며

온 겨레의 환호속에 돌아오실

한없이 그리우신 장군님을

그때면

인민의 마음마음들에 뉘으로 고인

간절한 소망을 풀어

이 땅우에 위대하신 장군님을

높이높이 우러러모실 그날

아, 그날을 믿어

불같은 신념을 안으시고

할머님께서는 쓰시나이다

해쫓는 만경대의 언덕길을

《문학예술작품이 민족의 운명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자면 주체의 혁명관과 민족관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여야 합니다.》

김정일

명제해설

우리 문학예술의 총적사명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며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문학예술작품에는 자기의 총적사명에 맞게 주체의 혁명관과 민족관이 짙게 들어차야 한다.

오늘 우리앞에 나선 가장 절박한 과업은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실현하여 민족의 운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민족문제는 근 반세기에 걸치는 인공적인 민족분단의 비극을 겪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역사적과제로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외세에 의하여 나라가 분열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근 반세기동안 어느 하루도 우리 민족이 겪고있는 불행과 고통에 대하여 잊으신적이 없으며 조국통일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다.

아버이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과 효성을 지니고계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수령님을 모신 우리 대에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이룩하시기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바치고계신다.

우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탁월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려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하는것이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길이다.

우리는 문학창작에 주체의 혁명관과 민족관을 철저히 구현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함으로써 민족의 운명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 문제를 정면에 제기하고 예술적으로 해명하는 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을 하나로 묶어세우는 사업은 선전만 하여가지고서는 안된다.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고 마음을 움직이는데서 문학예술이 큰 역할을 한다. 정치가 뚫고 들어가기 힘든곳도 문학예술은 뚫고들어갈수 있으며 총포를 가지고 쟁취할수 없는것도 문학예술을 가지고 쟁취할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직접 종자를 잡아주시고 지도자동지의 구상과 의도밑에 창작된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주체의 혁명관과 민족관이 투철히 구현된 본보기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친히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혈분만국회》, 《꽃파는 처녀》,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에서 일제침략자들에 의하여 수난당한 우리 민족의 운명에 대한 문제를 전면에 제기하고 그에 심오한 예술적 해답을 주시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바로 그 빛나는 전통을 본보기로 하여 자주성을 민족의 생명으로 보고 온 겨레가 단결하여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며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주체적민족관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다.

이러한 성과로 하여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북과 남, 해외동포들은 물론 세상사람들로부터 제목이 좋다, 세계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철학이 있다는 아낌없는 찬사와 감탄을 자아내고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그 제명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우리 민족의 운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우리 나라 민족문제는 일찌기 일제의 침략에 의하여 빚어지고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더욱 심각하게 제기된 문제로서 우리세대에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역사적과제이다.

민족문제는 비단 우리 나라에서뿐아니라 지난날 식민지로 있던 나라들과 오늘 외세의 간섭을 반대하고 자주로 가는 나라에서도 다같이 제기되는 근본문제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학예술분야에서는 민족문제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못하였다. 수천년의 인류문예사에도 민족의 운명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작품은 별로 없다. 지난 시기 세계문학예술계에서는 주로 모성애에 대한 문제, 남녀간의 사랑에 대한 문제같은것을 인류공동적인 관심사로 되는 주제로 여겨왔다.

문학예술분야에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가 나온 다음에야 비로소 계급해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선행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이 제기한 모든 인간문제는 민족문제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계급과 계층도 민족의 한 구성부분이고 개인의 운명이 민족의 운명과 밀접히 련관되어있는것만큼 계급해방문제는 민족문제, 민족의 자주성을 이룩하는 문제와 떼어놓고 생각할수없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전면에 제기하고 그에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주었다. 지난날의 문학예술작품에서는 민족의 운명에 대한 문제를 취급하는 경우에도 딱딱한 해답을 줄수 없었다. 그것은 민족문제에 대하여 바로 규정할수 있는 철학이 없었기때문이다.

우리 문학예술은 자주성을 사람의 생명, 나라와 민족의 생명으로 보는 주체철학을 사상리론적 기초로 하고있기때문에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서와 같이 민족의 사활적인 문제를 전면에 제기할수있었으며 그에 올바른 예술적해답을 줄수 있었다.

장편소설 《푸른 하늘》도 주체의 혁명관과 민

족관이 빛나게 구현된 작품이다. 작품에서는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민족의 어버이, 통일의 향도성으로서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그림으로써 주체의 혁명관과 민족관을 완벽하게 체현하신 지도자동지의 탁월한 모습을 감동깊게 보여주고있다. 이리하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도, 민족지상의 과업인 조국통일도 위대한 령도자에 의해서만이 이룩될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모든 작가들은 현시기 민족의 운명문제에 대한 심오한 예술적해명을 주는것이 우리 문학예술앞에 나선 가장 절박한 시대적임무라는것을 명심하고 문학작품에 주체의 혁명관과 민족관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여나가야 할것이다.

나는 《금성동》에서 산다

전병선

수령님 우러르는
 흙모의 한마음 어러
 빛나는 이름 《금성동!》
 새길수록 가슴 벅차오른다
 내가 바로
 에서 산다고 생각할 때

누구든 그 누구든 만나면
 묻지 않아도 말하고싶구나
 내 사는곳이
 《금성동》이라고

보자는이 없어도
 펼쳐보이고싶다
 내 푸른 공민중에
 뚜렷이 찍혀진 거주란을

그래선가
 먼곳의 친척친우들에게
 나의 집 주소를 적어
 편지 날리는 일
 그리도 찾아진것은

렬차에서 내려
 궤도전차 한번만 타면
 쉽게 올수 있다고
 한번 꼭 오라고
 마음 후한 부탁 적어넣는것은

아 《금성동》
 내 마음 부풀게 하고
 이 가슴 남모르는 궁지로
 뿔뿔하게 하는 이름이여

그 이름 지니고 살아
 내 딛고가는 자욱자욱
 한점 티도 없이
 빛나게 새겨야 하리니

만약 그길에서
 순간인들 내 마음 넓어져
 《금성동》 그 이름 흐리는 일 있다면
 호된 채찍 내려다오

내 일터에서
 하루일 혁신으로 못새긴 날 있다면
 그러고도 웃으며 돌아오는 저녁 있다면
 되돌려 세워다오
 용서없이-

아 내가 뿌리내리고
 내 피줄이은 자식들 사는
 이 소중한 요람 위해
 한생토록 량심을 고일
 나는 《금성동》사람이다

크나큰 사랑

1

그해도 다 저문 설달그믐날 함박눈은 소담히도 내렸다. 모란봉의 우거진 수림이며 대동문의 기와우에도 흰눈이 한뼘나마 수북이 실렸다.

눈눈… 보도도 네거리도 눈길당은 모든것이 온통 눈속에 묻혀버린 고요한 겨울날, 사람들의 가슴가슴에 흡사 그리움과도 같은 눈물겨운 추억이 갈마드는 한낮이었다.

존경하는 김정숙녀사의 부르심을 받고 저택을 찾았던 녀성일군 한옥림은 한동안 녀사의 등뒤에 서있었다.

녀사께서 그런듯이 서시여 눈내리는 창밖을 내다보고계시는것이였다.

명상에 잠기신 녀사께 방해가 될가보아 그이의 곁으로 조심스레 다가서던 한옥림은 급기야 몸을 흠뻑했다. 의외에도 녀사의 눈에서는 맑은것이 흘러내리고있었던것이다.

한옥림은 입술을 감쌀며 미간을 모았다. 이런 호젓한 날에 이미 녀사의 곁을 떠난 혈육들 생각에 홀로 마음을 태우시는것 같아 가슴이 미여지는듯했다.

한옥림을 돌아보신 녀사께서 다시금 창밖으로 시선을 옮기시며 나직이 외우시였다.

《눈송이들이 참 소담하군요요.》

《명년에도 또 풍년이 들것 같아요.》

집짓 명랑한 어조로 말을 마친 한옥림은 다시금 녀사의 안색을 살폈다. 노상 만면에 봄별같은 미소만이 차넘치던 녀사의 표정은 전에없이 무겁게 느껴졌다.

녀사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떨리는듯했다.

《눈내리는 장백의 밀림속에서 우리가 짧은 중대장을 잃고 가슴을 치던게 꼭 옛그제같은데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군요. 오늘이… 오늘이 바로 중상을 당한 중대장이 내품에서 숨을 거둔 날이예요.…그렇게 기다리던 나라의 해방도 보지 못하고…이역땅에 묻힌 전우들을 생각하면…》

녀사께서는 잠시후 나직이 뒤를 이으시였다.

《그 중대장한테 박영남이라는 아들이 있었다는데…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면 그애가 어느집 굴뚝밑에서 떨고있을가봐 마음을 못놓겠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없이 그 어린것이…》

녀사께서는 가슴저미는 아픔을 참을길 없어 말끝을 흐리시였다.

한옥림은 녀사의 마디마디를 가슴에 새기며 옷고름을 감아쥐였다. 늘 녀사의 몸가까이에서 사

황용국

업하면서도 그이의 심중을 너무도 모르고 지냈다는 죄책감이 드는가 하면 이렇듯 자꾸 상심하시면 녀사의 건강에 손상이 갈수 있다는 위구심을 금할수 없었던것이다.

《그만 진정하십시오. 너무 이러시면 안됩니다! 김정숙동지-》

《글쎄, 내가 일부러 마음을 태우고싶어서 그러는것도 아니고 또 태우지 말자고 해서 안탈 내 마음도 아니예요. 나라가 해방된 오늘까지 광복성전에서 한목숨 바친 전우들의 유자녀들을 죄다 찾지못했으니 어떻게 진정할수 있겠어요. 찾아내겠어요. 온 세상을 말짱 뒤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애들만은 찾아내구야 말겠어요.》

한옥림은 별안간 목안에서 불덩이가 솟구쳐올라 머리를 떨구었다. 항일대전의 나날 백두산의 녀장수로 명성을 떨쳤던 존경하는 녀사의 눈물을 두번째로 목격하는 한옥림으로서는 실로 크나큰 걱정과 사로잡히지 않을수 없었던것이었다.

…가을하늘이 류달리 푸르렀던 그날, 평양에서는 또 하나의 경사가 생겨났다. 평양혁명자유가족원개원식이 진행된것이었다.

개원식장은 소박하게 꾸러졌다. 크지 않은 연락을 운동장에 내다놓고 책상들을 이어붙여 주석단을 만들었다. 산뜻한 제복을 입은 원아들이 운동장 한복판에 줄을 맞춰 서있었고 주석단과 초간히 떨어진곳에 개원식을 보러 온 유가족들이 모여섰다.

승엄한 걱정이 장내를 휩쓸었다. 내 조국, 해방된 내 나라강산에 혁명의 피줄기를 곳곳이 이어갈 유자녀들의 학원이 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의 가슴가슴은 사뭇 걱정과 북받치였다.

유가족들속에서 갑작스레 소요가 일어났다. 흰저고리에 검정치마를 받쳐 입으신 존경하는 김정숙녀사께서 개원식장에 나타나신것 이였다.

주석단으로 안내하려는 일군들의 청을 사양하신 녀사께서 유가족들속에 끼우시자 사람들은 삽시에 그이를 둘러쌌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숙동지.》

《이렇게 몸가까이 뵈울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저마다 녀사의 곁으로 다가들어 뜨거운 인사를 올리는가 하면 뒤쪽에 선 사람들은 녀사의 존귀하신 모습만이라도 뵈옵고싶어 발돋움 킁돋움하며 밀치락거렸다.

그무렵, 열광적인 환호성과 함께 우뢰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올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석단에 나오신것이였다.

《만세! 만세-》

하늘땅을 뒤흔드는 만세의 함성은 줌처럼 그칠 줄 몰랐다.

개원식이 끝나고 뒤이어 유자녀들의 분별행진이 시작되자 한옥림은 김정숙녀사의 얼굴에서 줄곧 눈길을 떼지 못했다. 지금껏 단정하게 서계시던 녀사께서 이상스레 안절부절을 못하시는것이였다.

수령님께서 서계시는 주석단앞으로 보무당당히 행진해가는 원아들의 모습에 넋을 앗긴 모양 그이께서는 나직한 음성으로 외우시였다.

《옥림동무, 좀 보세요. 참 멋있지요, 얼마나 장해요!》

녀사께서는 약간 키를 솟구시며 불현듯 음성을 높이지였다.

《저엘 좀 보세요. 두번째줄의 가운데 애- 해진 베잠뱅이를 입구 장군님을 만나서 자꾸 울던 애지. 저렇게 멋있게 차려입으니 얼마나 미끈하구 잘났어요.》

한옥림의 얼굴에도 예쁜 미소가 함뿍 피여났다.

《그애가 옳아요. 저애한테 제복이 참 잘 어울리는군요.》

대오를 맞추어 씩씩하게 발구름을 높이는 원아들을 향해 손을 높이 들어 흔들던 한옥림은 한순간 온몸이 굳어졌다.

존경하는 녀사께서 가벼이 어깨를 떠시며 소리없이 눈물을 흘리고계시였다. 그이의 눈에서 샘솟은 따스한 눈물이 방울방울 흘러내려 옷자락을 적셨다.

《김정숙동지-》

한옥림이 살그머니 녀사의 팔소매를 건드리자 그이께서는 뜨겁게 속삭이시였다. .

《기빠요. 기빠서 그래요. 아이들이 얼마난 대견해요. 됐어요! 이젠 됐어요! 이젠 우리 애들이 희생된 부모들의 소원대로 자랄수 있게 됐어요.》

자신의 눈에서 눈물이 솟아남을 숫제 느끼지 못하는 모양 원아들을 바라보시는 녀사의 얼굴엔 행복의 미소가 함뿍 피여올랐다.

얼마나 이날을 기다렸으면, 아이들이 얼마나 대견하시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실까? 어쩌면, 어쩌면 녀사께선...

가슴뜨거이 그날을 돌이키던 한옥림은 도톰한 입술을 깨물었다. 유가족학원 개원식장에서는 원아들의 씩씩한 모습이 너무 대견하여 기쁨의 눈물을 금치 못하시더니 함박눈 내리는 이밤엔 생사여부를 모르는 한 중대장의 아들이 마음에 걸려 가슴태우시는 녀사앞에 절로 고개가 숙어지는 것이였다.

《사람을 세워 놓구... 안됐군요.》

녀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여서야 한옥림은 머

리를 들었다.

그이께서는 한옥림이와 자리를 같이하고 눈웃음을 지으시였다.

《이해도 다가는 마지막 날이고 해서...》

녀사께서는 함옥림을 부르시여 명절음식도 같이 만들고 설날아침도 함께 즐기고싶어 찾으신 것이였다. 가슴속에 남달리 피눈물을 안은 그앞에 자신의 심정을 말짱 터놓지 못하시는것도 못내 피로왔지만 한옥림이 홀로 외로움에 싸여있을것이 더 가슴아프시여 불러주신 것이였다.

《김정숙동지...》

한옥림은 언제나 자기를 따듯이 품어주시는 녀사의 각별한 은정에 목이 메여 말끝을 삼키며 눈시울을 붉혔다.

창밖의 함박눈송이들은 점점 더 소담해졌다.

2

설을 지나 련사할째 눈바람이 기승을 부리더니 날씨는 갑자기 푸근하게 풀렸다.

집집의 처마끝에 창끝처럼 드리웠던 고드름이 아침부터 녹아내리고 보통강기슭엔 썰매타는 조무래기들로 혼잡을 이루었다.

전차들의 경적소리가 간단없이 뺑정거리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의 물결도 한결 기운찼다.

존경하는 김정숙녀사께서도 거리에 나서시였다. 한옥림이와 함께 유가족학원으로 나가시는 걸음이었다.

요즈음 그이께서는 장군님을 받들어 실로 분망한 나날들을 보내고계셨지만 종종 이렇게 짬을 내시여 학원을 찾으셨고 그럴 때마다 의례히 한옥림이를 데리고 가군하시였다. 유자녀들의 씩씩한 모습을 보면서 노상 생글거리며 기쁨에 겨워하는 한옥림의 가슴속에 원아들 모두를 친자식처럼 사랑하는 참다운 마음을 심어주시고싶어서였다. 불행을 당한 자식을 녀려하는 어머니의 심정이랄까 한옥림에게 기울이는 녀사의 원심은 그야말로 각별하시였다.

저으기 기분이 들뜬 한옥림은 녀사의 곁에서 걸음을 다그치며 입술을 방싯했다.

《날씨가 어쩌면 이렇게 따스할까요? 정숙동지가 학원에 가시는 날은 언제나 푸근한것 같아요.》

그를 정겹게 일별하신 녀사께서 나직이 외우시였다.

《뭇가 그렇겠어요, 평양은 겨울에도 따뜻한 날씨가 많더군요, 대동강은 물이 맑고 모란봉엔 공기가 맑은데 겨울날씨마저 온화하니 평양은 참말 살기좋은고장이예요.》

녀사께서는 생각에 잠기시여 아득한 지평선쪽으로 시선을 옮기시였다.

《산에서 싸우실 때 장군님께서 늘 평양을 그리워하셨어요. 조국이 광복되면 만경대고향집에 들러 며칠동안 꼭 쉬시면서 산에서 밧진 잠두 봉창하시구 조부모님들과 회포도 나누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라가 해방된 오늘까지도 장군님께서...》

한옥림은 마음을 조이며 녀사의 말씀을 기다렸다. 녀사와 동행하는 즐거움에 사로잡혀 철부지 소녀처럼 재깁거린 자신이 그지없이 민망스레 생각되는가 하면 녀사의 걸음이 범상치 않게 여겨져 귀부리가 달아올랐다.

《...장군님께서 어제밤에도 주무시지 못했어요. 아직 찾지 못한 유자녀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으신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셨답니다.》

(아, 장군님께서...)

학원에 도착할 때까지 한옥림은 줄곧 입을 열지 못했다.

가슴이 뭉클해서만이 아니었다. 항일대전의 그 머나먼 불길만리를 헤쳐오신 장군님과 녀사께서 오늘은 유자녀들때문에 밤잠마저 이루지 못하시건만 제힘으로 그 무엇도 도울수 없는것이 여간만 안타깝지 않았던것이다.

학원에 이르신 녀사께서는 언제나처럼 원아들의 침실이며 교실부터 일일이 돌아보신 다음 뜰김이 뽕양게 서린 주방칸으로 걸음을 옮기시었다.

한옥림을 데리고 스스럼없이 주방에 들어서시며 못내 흡족해하시었다.

《벌써 점심준비들을 하는구만. 수고를 합니다.》

녀인들이 앞치마에 물묻은 손을 훑치며 그이께서 둘러 인사를 드렸다.

그이께서는 인츰 팔소매를 걷어올리시고 무우 씻는 녀인들쪽으로 다가가시었다.

《어마나! 이러지 마십시오. 이런 일을 어떻게...》

밥짓던 녀인들이 바빠맞아 저마끔 만류하였으나 그이께서는 끝내 일손을 잡으시는것이였다.

《일없어요. 동무들이나 나나 원아들의 어머니란 점에서는 다 같지 않는가요. 자, 어서 아이들한테 점심이나 잘 차려주자요.》

녀사께서는 막히는 일을 모르시었다. 물행주로 가마뚜껑을 알른거리게 닦으시는가 하면 몸소 맛을 보아가시며 무우나물 콩나물도 숨쉴있게 무치시었다. 그러시다가는 취사원들에게 귀속말로 무엇인가 이르기도 하시었다.

점심종이 울리자 아이들이 식당안으로 줄지어 들어왔다. 그이께서는 상앞에 몰려서서 머뭇거리는 아이들의 손목을 차례로 이끌어 식탁둘레에 둘러 앉히시었다.

식탁앞에 마주앉아 한손으로 턱을 고인 녀사께서는 숯제 시간 가는줄도 모르시고 맛있게 음식을 먹는 아이들을 바라보시었다.

녀사의 눈은 고요히 빛나시었다. 행복의 미소가 피여오른 그이의 얼굴모습은 무척 젊고 자애로우시었다.

얼마후 그이께서는 나직이 한숨을 지으시었다. 이렇게 학원에 와서 원아들을 만날적마다 여적 소식을 모르는 영남이 생각에 가슴이 무죽해지시는것이였다. 영남이를 찾아다가 학원에서 공부시킨다면 정말 온갖 시름이 덜어질것만 같으시었다.

(영남이, 영남이-)

이렇게 입속으로 외우시느라니 젊은 중대장의 마지막 유언이 생생히 되살아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으시었다.

몸이 다부지고 눈매가 서글서글한 중대장 박명환, 그는 전투때마다 남다른 용맹을 떨쳐 《호랑이중대장》으로 불리운 유격대지휘관이였다.

쾌활한 성미에 웃기 잘하고 의협심마저 강한 그는 대원들의 한결같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었다.

박명환중대장은 존경하는 김정숙녀사를 그 누구보다 각근히 따랐다. 유격대 초창기에 입대한 그는 늘 《우리 정숙동무》라고 부르며 제호주머니에 산열매 몇알을 따넣었다가도 녀사의 손에 쥐여주는가 하면 그이의 앞에서만은 자기의 속심을 말짱 터놓는 솔직한 청년이였다.

마음이란 서로 주고받는것이여서 녀사께서도 그를 내심 각별히 아끼시었다. 어쩌다 번식 한가지가 생겨도 박명환중대장이 자리에 없으면 여간만 서운하지 않으시었다. 그가 조직의 지시로 광산지구에 지하공작원으로 파견되어 활동하는 나날들엔 줄곧 그를 그리워하시었다.

반년후, 다시금 부대로 돌아온 박명환은 녀사께 뜻밖의 이야기를 했다. 공작원으로 일하는 기간 자기가 그만 아버지가 되였다는것이였다.

녀사께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시었다.

《무슨 소리에요? 그럼 장가를 들었다는건가요?》

《정숙동무, 그럴만한 일이 있었답니다.》

그는 비통한 어조로 자초지종을 들려주었다.

공작기일이 며칠 남지 않은 어느날 뜻밖의 일이생겼다고 했다. 변절자의 밀고로 놈들이 박명환과 련계를 가지고 활동하던 그곳 조직원 리동석을 붙잡아 무참히 살해한 다음 세살잡이인 그의 아들금돌이를 집에 가두고 불을 질렀다는것이였다. 눈에 달이 오른 놈들이 다른 집들에 불을 지르기 시작하자 화염에 휩싸인 조직원의 집으로 비호같이 달려들어가 기절한 금돌이를 겨우 구원했노라고말한 박명환은 주먹으로 가슴노리를 쳤다.

《아이와 함께 안전한곳에 며칠간 피신했다가 다시 그 마을에 갔으나 금돌이 어머닐 못찾았지요. 불일이 있어 광산마을에 갔던 그애 어머니

남편과 아들이 잘못했다는 말을 듣고 달려와 재무지뿐인 집터앞에 쓰러져 울다가 어디론가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수 없이 그애를 박영남이라는 이름으로 변성명시켜 믿을만한 집에 맡겨놓고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그애의 아버지가 돼야 합니다. 정숙동무, 조국이 광복되면 그애를 데려다가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습니다.》

녀사께서는 잠자코 듣고계셨으나 속으로 피는 물을 삼키시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군요. 우리들이 금돌이의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되어주지요. 우리들이...우리들이...

묵묵히 이렇게 속다짐하시는 녀사의 눈빛은 전에 없이 이글이글 타번지시었다.

준엄한 혁명의 길에 어찌 희생이 없으랴만 그로부터 몇달후인 설달그믐날 녀사께서는 청천벽력파도 같은 소리에 땅을 차고 뛰쳐 일어나시었다. 적들과 불의에 조우한 전투에서 치명상을 당한 박명환중대장이 최후를 앞두었다는 것이었다.

녀사께서는 한달음에 달려가 중대장을 끌어안으시었다.

《중대장동무, 정신차리세요. 나예요 정숙이에요.》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박명환은 녀사를 알아보고 애써 입을 열었다.

《난 이제 틀렸소. 부탁합니다. 정숙동무. 부디 사령관동지를 잘 모셔주십시오. 사령관동지를... 그러구 우리 영남이를 내대신 잘...》

그이의 품에 안긴채 전우는 영영 잠들어버렸다.

녀사께서는 이틀동안이나 음식을 입에 대지 못하시었다. 사람이 그렇게 가버리다니?! 이제 중대장의 그 정겨운 웃음소리를 영원히 들을수 없단 말인가?

크나큰 상실감에 가슴이 저려드는가하면 남달리 마음을 기울이시던 전우를 잃고보니 별별 후회가 다 드시었다. 일단 적들과 맞닥들면 자신을 로출시키는 그 성미를 눌러놓지 못한것도, 박영남이를 맡겨두었다는 집주소를 알아두지 못한것도 죄다 마음에 걸리시었다.

녀사께서는 입술을 깨무시었다. 금돌이의 친아버지인 조직원 리동석이나 박명환중대장은 떠나갔지만 자신께서 그들의 몫을 맡아안으리라 굳게 다짐하시었다. 그랬었다. 녀사께서는 전우의 유언을 혁명의 요구로 엄숙하게 받아안으신 것이었다.

그러신 까닭에 녀사께서는 조국에 개신하신후 애써 박영남소년을 찾기 시작하시었다. 그런 가위에 그이께서는 의외에도 놀라운 사실에 부닥치시었다. 평양시 녀맹의 책임적인 위치에서 일하는 한옥림의 지난날 생활경위를 알아보시다가 그가 바로 다름아닌 희생된 조직원 리동석의 안해이며 박영남(금돌이)의 어머니임을 알게 되셨던

것이다.

가슴이 뛰시었다. 한옥림을 만날적마다 마음이 몽클하시었다. 준엄한 혁명의 길에 남편을 바치고 사랑하는 아들마저 죽은줄 알면서도 녀사의 앞에서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는 그가 더없이 측은하시었다. 한갓 녀성의 몸으로 홀로 지내자니 남모르게 당하는 고독과 슬픔인들 오죽하겠는가. 하지만 그이께선 한옥림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었다. 험난했던 그 세월에 젖픔을 떨어친 어린것의 생사여부를 모르는 형편에서 공연히 이야기를 꺼냈다가 어머니의 가슴에 다시금 상처를 입힐수도 있다는 위구심으로 하여 지금껏 이 사실을 비밀에 붙이고계시었다.

그러나 그이께선 영남이가 살아있는 한은 기어이 찾아내려고 결심하시었다. 그해야만 희생된 중대장의 유언도, 혁명가의 의리도 지킬수 있을 테지만 더우기는 한 어머니의 가슴속에 웅이처럼 박힌 피멍을 가셔낼수 있을것이기때문이었다.

녀사의 등뒤에서 한옥림의 정겨운 목소리가 도란거렸다. 다른 방에 녀사의 점심상을 차려놓았으니 어서 가시자는 것이었다. 했으나 그이께서는 고개를 가버이 흔드시었다.

《내 걱정은 말아요. 이렇게 앉아서 아이들이 먹는걸 보는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럴수만있다면 일생동안 이렇게 앉아 이애들을 지켜봤을줄겠어요.》

이 세상 그 어떤 빛발도 무색하리만큼 밝고 다감하게 빛나시는 녀사의 안광, 그지없이 행복한 녀사의 미소...

혁명가유자녀들을 위하시는 녀사의 끝간데 없는 자량을 되새기던 한옥림은 가까스로 눈물을 삼켰다.

오침시간이 켜 지나 원아들이 다 잠든 다음 녀사께서는 취사원들을 식당칸으로 부르시었다. 그리고 말씀하시었다.

...우리모두 원아들의 어머니가 되어주자. 어머니가 된다는게 말처럼 험치 않다. 아이들이 어머니없이 살수 없듯이 아이들 없인 잠시도 살수 없는 마음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다. 예로부터 어머니의 사람은 가시물에도 기름방울을 띄우뒀는데 그러한 착실한 사랑으로 혁명의 후비대를 무력무력 키워내자...

되새길수록 가슴을 울리는 말씀이어서 한옥림은 고개를 다소갸웠다.

(이애들결을 잠시도 떠나실수 없는 마음!)

눈곱이 뜨거웠다. 녀사의 뜻이 그러하실진대 그이께서 자주 학원을 찾으시는 까닭은 물론 학원개원식장이며 함박눈내리는 날밤에 흘리신 눈물의 의미가 력연히 깨달아지는 것이었다.

녀사의 절절한 가르치심을 받은 한옥림은 자신을 한껏 다잡았다. 비록 제살불이인 금돌이는 살아있지 않다 하더라도 학원의 모든 원아들을 친

자식처럼 아끼며 사랑할것이라고... 그들이 없이는 잠시도 살수 없다고 하시는 녀사의 지극한 마음을 따라배울것이라고...

녀사께서는 석양무렵에야 녀인들의 배웅을 받으며 학원을 떠나시었다.

며칠후 저녁녘이 다 되어 한옥림은 정성껏 네모지게 접어싼 보자기를 보듬어안고 집을 나섰.

시내녀맹원들의 정성을 안고 녀사를 찾아가는 그의 발걸음은 흡사 나래라도 돈힌듯 가볍기만 했다.

홀로 저택마당가를 거니시던 녀사께서 좀 의아쩍어하시면서 마주나오시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달음쳐오세요?》

한옥림의 얼굴을 눈여겨 살피시던 그이께서 천천히 방으로 향하시었다.

녀사의 뒤를 따라 방안에 들어선 한옥림은 보자기부터 조심스레 헤쳤다. 그안에서 뜻밖에도 한감싹히 될 외투천이 나지자 녀사께서도 그앞에 마주앉으시었다.

천필을 펼쳐든 한옥림이 껌싸게 입을 열었다.

《외투천이 한감 생겼는데 색깔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한동안 천을 찬찬히 살피시며 두터이를 가늠하시던 녀사께서 미소를 머금으시었다. 두텁고 폭신한 흑곤색의 외투천은 녀사께서도 처음 구경하는 고급 모직이였다.

《쉽지 않은 좋은 천이군요. 색깔두 점잖구 고상하고...》

녀사를 응시하던 한옥림이 그이의 손을 포근히 감싸잡고 열싸게 외웠다.

《정숙동지께서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군요. 우리 녀맹원들의 성의루 아시고 받아주세요.》

순간 녀사께서는 안색을 달리하시며 자리를 고쳐 앉으시었다.

《이러지 말아요. 이런 좋은 천으로 지은 옷을 내가 어떻게 입겠어요. 지금 입는 옷만해도 상당하니 넘려하지 말아요.》

한옥림은 솟구치는 오열을 참느라 살눈섭을 바르르 떨었다. 노상 색바랜 군용외투만 입고계시면서도 어찌다 마련해드리는 옷감마저 마다하시는 녀사의 겸허하신 마음씨에 가슴이 젖어들면서 눈언저리가 화끈했다.

언제부터인가 시녀맹원들은 자기들의 성의를 함쳐 존경하는 녀사께 외투천을 한감 마련해드리고싶다는 절절한 소원을 한옥림에게 제기해왔었다. 해방된 강산에서 김정숙녀사만은 금방석우에 높이높이 모시고싶었건만 아직은 나라사정이 여의치 못해 그이께서 변변한 외투마저 없이 지내시는 형편이니 녀맹원들의 마음은 피로움과 아픔에 짓눌려있었다. 그래서 두루 물색하여 외투천

한감을 마련 했었는데 그것마저 사양하실줄이야...

한옥림은 서운한 기색으로 머리를 들었다.

《정숙동지, 자꾸 이러시면 우린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드릴건 그저 마음뿐입니다. 꼭 받아주십시오.》

그이께서는 얼마쯤 잠자코 계시다가 침중한 안색으로 입을 여시었다.

《정 그렇다면 이 천은 내가 따로 보관하겠어요.》

《아니 그러지 말구 래일 재단사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글쎄, 그럴 시간이 있겠는지 모르겠어요.》

어느덧 아홉점을 알리는 패종소리가 방안의 고요를 깨치자 녀사께서는 구석쪽에 놓인 책상앞에 급히 다가앉으시었다. 무엇을 쓰시겠는지 책상우에는 종이장들이 수북이 쌓여있었다.

《옥림동무.》

녀사께서는 피로를 못이키시듯 눈을 가느스름히 좁히시었다.

《편질 쓰는중인데 봉투를 좀 만들어주겠어요》

한옥림은 어리둥절했다. 전해야 할 사연이 무엇이기이여 이렇듯 서두시는지 알수 없었다.

녀사께서는 봉투를 만들 종이며 풀단지와 가위를 꺼내여 그의 앞에 밀어놓으시었다.

《봉투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정성껏.》

그이께서는 잉크단지에 펜끝을 잠그시었다. 함경도일대의 각급 정권기관들에 항일투사의 아들 박영남소년을 찾아보아달라는 자신의 부탁을 띄우시겠다는것이였다.

《영남이가 함경도지방에 나왔을수 있다고 말하는분들도 더러 있어요. 아직 확실지는 않지만...》

한옥림은 입귀를 방싹하며 눈부시게 흰 종이를 쓰다듬었다. 영남이를 안타까이 찾으시는 녀사를 도울수 있는 일거리가 모처럼 차려진것이였다.

녀사께서는 쓰시었다. 온밤 쓰시었다.

사각, 사각, 사각...

벽시계의 시침은 어느사이 새날을 가리키고있었으나 녀사께서 쉼없이 쓰시었다. 펜끝에 주의를 집중시키시고 또박또박 정성담아 쓰시여서는 책상가녁으로 밀어놓곤하시었다. 그러면 한옥림이가 편지지를 봉투안에 넣고 풀을 발라 봉인했다.

사각, 사각, 사각...

별안간 펜끝 달리던 소리가 가뭇없이 잦아들자 긴장한 눈초리로 녀사를 주시하던 한옥림은 흠칫 몸을 떨었다.

책상앞에 단정히 마주앉으신 녀사께서 왼쪽 손등으로 이마를 고이신채 글귀를 고르시는모양 잠시 눈을 감으시었다. 밤밝혀 글을 쓰시노라 입술이 까실까실 마른 그이의 모습에서 시선을 뗀 한옥림은 모두숨을 내쉬며 입술을 깨물었다. 어찌

면 너사의 마음은 이다지도 뜨거우실가, 이다지도 인정겨우실가? 그래, 영남이를 낳아키운 어머니가 어디에 있다 한들 이처럼 온밤 꼬박 그애만을 생각하며 마음속 갈피갈피를 태워낼수 있을까?

한때는 그자신도 어머니였던 한옥림은 울적해진 마음을 달랠길 없어 창가에 다가섰다.

마당에 더미를 이룬 눈무지들을 한동안 녀없이 내다보던 그는 긴숨을 내그었다. 정에 주린 그의 마음이 이밤따라 못견디게 무거워지는것이였다.

(곰돌이도 살아있으면...그래서 너사의 손길에 이끌려 자랄수만 있다면...)

3

서쪽하늘가에 감빛 저녁노을이 물들기 시작할 무렵 평양쪽으로 뻗은 큰길에 마차 한대가 나타났다. 썩썩 내닫는 마차우에는 세사람이 앉아있었다. 기름한 얼굴에 구레나룻이 보기좋은 중년 나이의 마부와 털목도리로 동그스름한 얼굴을 쾅쾅 싸맨 녀인, 그들의에 애처롭게 여윈 소년이 함께 마차를 탔다.

무척 역빠르게 생긴 소년은 마차우에 주저앉아 겁먹은 눈길로 이따금씩 사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얼핏얼핏 녀인의 얼굴을 훑쳐보기도 했다.

녀인은 안절부절 못하는 소년의 어깨를 지그시 누르며 같은 말을 두번째나 되풀이했다.

《일없다. 마음을 폭 놓으라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그렇게 타이르면 잠시 고개를 수긏했다가도 철부지의 시선은 다시 안정을 잃고 허둥거리군했다.

《저...어둡기전에 가닿을수 있을까요?》

마부의 바로 뒤자리에 앉았던 녀인이 초조한 기색으로 이렇게 묻자 중년사나이는 대답대신 실직한 말궁둥이에 채찍을 얹었다.

《이눔아, 손님들 갈길 바쁘단다. 성큼성큼 뛰지 못할가!》

말은 고개를 주억거리며 힘차게 내달기 시작했다.

마차우의 녀인은 한옥림이였다. 지금의 그로서는 저르기 조금중에 사로잡힐밖에 없었다.

안그럴수 없는것이 얼마전부터 그도 두루 줄을 놓아 박영남이를 찾기 시작했다. 딱히 찾는다고 확언은 할수 없었지만 존경하는 너사를 힘자라는 꺾 도와야 하겠다는 불같은 도의심이 그런 결심을 굳혔던것이다.

그래 여기저기 인편을 띄우기도 했었고 직접 알아도 보았었다.

언젠가 너사께서 목이 잠겨 말씀하신것처럼 부르기가 쉬운탓인지 흔해 빠진것이 박영남이란 이

름이였다. 유가족학원에도 그런 이름이 두명, 평양 시내에는 여간만 많지 않았다. 그러나 시안의 박영남이들 가운데는 항일투사의 자제가 한명도 없었다.

그래 한옥림의 가슴이 바질바질 타들었는데 며칠전 귀가 번쩍 열리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강동근방의 어느 농촌부락에 중국 동북땅에서 나온 박영남이란 소년이 살고있다는것이였다.

소식을 듣자마자 한옥림은 가슴이 활랑거렸다. 당장 소년을 찾아 떠나고싶었으나 어چه저녁에야 겨우 시간을 얻어 강동쪽으로 나갔다.

술한 사람들한테 길을 물어 집을 찾아냈다. 결코 헛소문이 아니였다. 어머니의 룡촌동생네 집에 얹혀 산다는 소년은 나이도 이름도 너사께서 찾으시는 그애와 신통히 같았다.

소년의 이모별이 되는 애젊은 녀인은 가물거리는데 등잔불밑에서 눈물을 삼키며 입을 열었다.

《부녀회원이던 이에 어머니는 일본놈들한테 붙잡혀 생죽음을 당했어요. 아버지도 유격대에서 싸우다 잘못됐구... 천하에 악귀같은놈들한테 젊디젊은 나이에 학살된 언니를 생각하면 잠자리에 서도 치가 떨리구 이가 갈려 견딜수 없군요.》

녀인은 소년의 머리를 점도록 쓰다듬고나서 또 다시 목멘 소리를 했다.

《글쎄 혈육은 나밖에 없으니 이 어런게 그 머 나면곳에서 지난달에 찾아왔답니다. 아직 철부지가 남한테 밥을 빌어먹으며 예까지 오자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가요?》

밤이 이슬하여 소년과 나란히 누운 한옥림은 장밤을 뜯는으로 지새웠다. 세상모르고 잠들어 버린 그 철부지가 어쩔지 남같지 않았었다. 아직은 어머니 품에서 응석이나 부릴 나이에 부모없는 설움을 당해야 하는 그 정상에 뼈마디가 저릿저릿했다.

녀인의 말따마나 악귀같은놈들이다. 그놈들때문에 아이들은 부모를 빼앗겼고 녀인들은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들을 잃었다. 그 살인귀들때문엔 인간이 당해서는 아니될 고통을 겪는 이를 천으로 꼽으라 만으로 헤이라! 두고 보자! 이 원수놈들아, 피는 피로써 갚으렸다. 우리 인민이 이 원한을 잊을줄 아느냐. 천대만대를 두고 잊지 못할게다.

한옥림은 저도모르게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숨이 지기전에는 잊지 못할 그날의 원한이 피를 끓이며 되살아오르는것이였다.

...유격대공작원과 런계를 가지고 활동하던 남편의 부탁을 받고 50여리 떨어진 광산마을 지하조직책임자에게 쪽지를 전달한 다음 이튿날에야 마을에 돌아온 한옥림은 동구밖에서 굳어졌다. 집들이 온통 시꺼멓게 불타버리고 마을에는 재가루만 어지러이 흩날리고있었다.

주먹을 부르쥐고 자기집쪽으로 내달던 그는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길가에 쓰러졌다. 서까래 한대 남지 않고 타버린 그의 집은 폴짝 내려앉아 형체마저 없었다.

얼마후 가까스로 마음을 다잡고 남편과 아들을 찾아헤매는 그를 붙들고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이보라구, 다 죽었네. 임자 남편두 금돌이두 다 죽었다네. 쪽바리새끼들이 집에다 금돌이를 가두구 불을 질렀어! 어허- 하늘두 무심하지. 이제 우린 어떻게 산다든가 이사람아-》

그 소리에 한옥림은 또다시 쓰러졌다. 풀포기를 쥐어뜯으며 그냥 헛소리를 쳤다.

못별들이 총총한 길은 밤에야 정신을 차린 그는 미친여자처럼 산발을 한채 마을을 등지고 항방없이 걸었다. 그렇게 이틀동안 내쳐 걸어 어느 농촌부락에 이른 그는 남의 집 울바자결에서 까무라쳤다. 마음씨 어진 집주인이 열에 떠서 앓는 그를 보름동안이나 극진히 보살폈다.

마침내 자리를 털고 일어난 그는 이를 사려물었다. 남편과 아들의 피값을 받아내기전에는 순간도 맥을 놓을수가 없었다.

병구완을 해준 그집에 눌러앉은 그는 조직의 방조밑에 그 마을의 부녀회책임자로 되어 녀성들을 묶어세워 유격대를 원호하는 사업을 힘껏 벌려나갔다.

그러다가 해방을 맞아 장군님의 품에 안긴 그는 존경하는 김정숙녀사의 세심한 가르치심과 극진한 보살핌속에 더욱 키를 자래워 녀맹사업에 헌신별안간 후더운 눈물이 샘솟듯했다. 금돌이도 살았으면 이에만큼 자랐을텐데 장군님의 품에 안겨 아버지의 대를 꿋꿋이 이어나갈수만 있다면 이제 더 무슨 한이 있으랴!...

어느때쯤 되었는지 영남이가 이불을 차던지며 잠꼬대를 했다.

《어머니-엄마, 저기-저기...저...》

한옥림은 가슴이 선뜩하여 그를 와락 껴안았다.

(그래그래, 마음놓고 자거라. 날이 밝으면 우리 함께 어머니를 찾아가자꾸나.)

한옥림은 그 집에서 늦은 조반을 먹고 영남이와 함께 길을 떠났다. 젊은 녀인이 동구밖까지 배웅하며 소리내여 쿨적거렸다.

《이렇게 고마울데라구야. 이 은혜를 어떻게...》

《어서 들어가요. 인사를 하겠거든 김정숙녀사께 드려야지 이러면 안됩니다. 자, 그만 헤어지세요.》

녀인과 작별한 한옥림은 날듯한 기분으로 씨엉 씨엉 걷기 시작했다. 이제 얼마후이면 존경하는 녀사께서 영남이와 상봉하리라고 생각하니 날개가 있으면 훨훨 날아가고싶었다.

그랬다. 한옥림은 믿어의심치 않았다. 자기가 데려가는 이 소년이 녀사께서 안타까이 찾고찾으시던 바로 그 영남이란것을 어렵지 않게 단정해버렸었다. 아버지가 유격대에서 싸우다가 희생됐면 그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없을것이기때문이었다.

그런데 딱한 일이 나졌다. 얼마동안 잠자코 한옥림의 뒤를 따르던 소년이 별안간 울먹거리며 길설에 주저앉는것이였다. 어제아침 동무들과 자치기를 하다가 발희목이 시큰했는데 아파서 더 견지 못하겠다고 했다.

그래 오도가도 못하고 길가에서 세월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좀전에 인심후한 마부를 만나 마차에 올랐었는데 죽을 수가 생기면 살수도 나진다고 평양까지 간다는것이였다.

마차는 빨리도 내달렸다. 서너시간 되나마나하게 달린것 같은데 벌써 모란봉의 절경이 눈앞에서 얼른거리는가 하면 시가지가 한눈에 안겨들었다.

시내 여기저기서 솟구는 굴뚝연기를 흐뭇하게 둘러보던 한옥림은 까닭없이 갈마드는 새로운 근심거리를 놓지 못해 고개를 떨구었다.

함께 가는 이애가 녀사께서 찾으시는 그 영남이가 아니면 어찌나 하는 위구심에 온몸이 한줄만해지는것이였다. 본의아닌 실책이라 하더라도 녀사께 실망을 끼쳐드리면 그이상 죄스러운 일이 없을것이였다.

곰곰히 머리를 쥐어짜던 그는 애초의 결심을 바꾸었다. 저택으로 곧장 가지 말고 사무실에 달려 그이께 전화를 거는편이 좋을상싶었다. 영남이의 경력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녀사의 의향에 따라 열치리를 실수없이 하리라고 마음을 다졌다.

언젠가 자신의 분별없는 언행으로 녀사를 노엽힌 다음부터 말한마디 손짓 한번도 그이 앞에서 만든 매양 조심을 두는 한옥림이였다.

지금도 그는 일생 잊지 못할 녀사의 일깨움을 가슴아피 돌이키고있었다.

...두달전 어느날 한옥림의 사무실에는 뜻밖의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혁명가유자녀들을 찾아 국내외 각지로 떠나는 투사들이 녀사를 뵈오려 찾아왔었다.

벌써 몇시간전부터 한옥림이와 마주앉아 녀성들의 사회적인출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를 의논하시던 녀사께서 그들을 반가이 맞으시였다.

자리가 정돈되자 그이께서 밝은 음성으로 물으시였다.

《어떻습니까? 길떠날 준비들은 다 됐는가요?》

모두들 그런건 넘려마시라고 힘차게 말씀드렸다.

그이께서는 명상에 잠기시여 책상을 다독이시다가 시선을 드시였다. 이글이글 타는듯한 녀사의 눈빛에서 투사들은 자기들이 받아안은 임무의 무게를 새삼스레 절감하며 그이를 우러렸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쉽사리 찾을수 있는 아이들이나 몇명 데려오면 데려오고 못찾아도 할수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떠나서는 안되겠습니다. 부디 명심하십시오. 이 일은 우리 혁명가들이 혁명적의리를 지키는 숭고한 사업이라는것을 잊지 말고 한달이 아니라 일년을 바쳐도 좋으니 이 세상을 말끔히 뒤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들을 모두 찾아가지고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너사께서는 잠시 숨을 돌리시고 빠른 어조로 뒤를 이으시었다.

《물론 힘들고 고생스럽더라도 말입니다.》

《명심하고 가르치심대로 하겠습니다.》

투사들은 모두 눈물이 그렇그렇해 한결같은 맹세를 다졌다.

그이께서는 잠시후 려행도중에 주의할 점들을 차근차근 일러주고나서 이렇게 덧붙이시었다.

《함경도지방에 나가는 동지들은 이번에 항일투사 박명환중대장의 아들인 박영남소년을 꼭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애 이름을 다르게 부를수도 있고 박명환중대장이 그애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명환동지가 중국동북지방에서 어느집에 맡겨놓았던 아이라면 달리 생각지 말고 데려오도록 하십시오. 모두들 저녁차로 떠난다니 나도 역에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만...》

실책은 바로 그시각에 저질러졌다. 너사의 말씀이 좀 이상스러워 고개를 기웃거리던 한옥림이 혜덤비며 의자에서 일어섰다.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했다.

《저... 여러분들한테 한가지만 부탁하겠어요. 이번 걸음에 소식을 모르는 김정숙동지의 언니와 조카애들도 함께 찾아봐주셨으면 합니다.》

《옥림동무!》

한옥림에게 열린 눈총을 쏘신 그이께서 서둘러 말씀하시었다.

《그애 대해서는 따로 생각이 있으니 동지들은 저마다 말은 임무만 성실히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됩니다.》

투사들을 배웅하고 다시금 방에 들어서시는 너사를 얼핏 치며보던 한옥림은 머리를 들지 못했다.

희벗하게 질린 너사의 얼굴에서 전에없이 서늘한 기운이 풍기여 속이 조마조마했다.

아니나다를가 너사께서 그를 엄하게 질책하시었다.

《물론 나도 소식을 모르는 언니나 조카애들이 무척 그립구 보고싶어요. 그렇다해서 옥림동무까지 멋없이 헤론 소릴 하면 어찌자는거예요? 못써요, 아직 희생된 전우들의 아들딸들을 다 찾지 못한 형편에서 그런 말을 망탕해선 못써요!》

마디마디가 그대로 폐부를 찌르는듯싶어 한옥림은 마른침만 삼켰다. 너사께서는 여전히 격하신 음성으로 꾸짖으시었다.

《그렇지 않아도 그들이 판공리를 하면서 회령엘가겠소, 어딜 좀 다녀오겠소 하는걸 겨우 막아왔는데 옥림동무까지 그렇게 붙는 불에 키질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찾으려는건 단순히 인간적의리를 지키자고 해서가 아니예요. 장군님 한분만을 믿고 싸우다 희생된 려사들의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들의 뒤를 이어야 하구 장군님께서 찾아주신 이나라의 기둥이 되여야 하지 않겠어요. 그들이 아직 장군님의 품에 다 안가지 못했는데 그런 말이 함부로 입밖에 나오는가 말이에요.》

한옥림은 그만 울음이 북받쳐 혀를 깨물었다.

희생된 려사의 자녀들을 나라의 기둥으로 내세워주시는 그 고마운 은덕이 가슴속에 격량을 일으키는것이였다. 그 심원하신 뜻, 그 자애로운 사랑에 온몸의 피가 사뭇치는것 같았다.

더구나 존경하는 너사의 손길에 이끌려 참다운 인생길을 걷고있는 한옥림은 너사앞에 엎드려 거듭거듭 용서를 빌고싶은 심정뿐이였다.

한옥림의 마음을 읽으신 너사께서 얼마후 조용히 타이르시었다.

《알았으면 됐어요. 옥림동무야 누구보다 내 마음을 잘 알지 않아요. 자, 어서 하던 이야기나 마저 나누자요.》

했으나 그는 좀처럼 얼굴을 들지 못했다. 달뜨는 격정을 이기지 못해 가슴숨을 그냥 몰아쉬었다. 설혹 옥에는 티가 있다해도 모시고 따르는 자신의 마음속엔 티끌한점 없을것이라고 마음속 맹세를 다지고 다지였다...

차체가 기우뚱거리는바람에 생각을 깨친 리옥림은 청을 높여 마부를 불렀다.

《다 왔어요. 여기서 내리겠습니다. 야-참 정말 고맙군요.》

투사람이 길가에 내려서자 마부가 싱글벙글했다.

《해방이 좋긴좋수다. 이 천덕꾸레기 마부더러 누구나 고맙다는 말뿐이니 진짜루 고맙다구 인사를 해야 할 사람은 나웨다. 허허허...》

시야에서 마차가 사라지자 한옥림은 소년의 손목을 잡고 총총히 내쳐 걸었다.

아직은 차디찬 한겨울이였으나 해방산의 숲속길에 웬 너인이 나타났다. 방금전에 김정숙녀사와 헤어진 한옥림이였다.

그는 천천히 발을 옮겼다. 감동이랄지, 흥분이랄지...그저 가슴노리가 뻑적지근하고 온몸이 매시시하게 풀렸다. 이젠 너사께서 큰시름을 더시었다는 생각, 이역땅에 묻힌 중대장의 아들때문에 더는 속태우지 않으시리라는 안도감이 그의 마음을 포근히 쓰다듬는것이였다.

건고싶었다. 이 호젓한 숲속으로 해종일 홀로 거닐고싶었다.

어제저녁 한옥림은 아무래도 시간이 지내 늦은것 같아 오늘아침에야 너사께 전화를 걸었다. 확실지는 않지만 희생된 그 중대장의 아들 일수도 있어 데려왔노라고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떨리는 음성으로 나무람을 하시었다.

그럼 어째서 이제야 알리는가? 밤에 잠이 오던가? 정문밖에 나가 기다릴테니 급히 떠나오라고 당부하시는데였다.

소년을 앞세우고 한달음에 달려갔다. 말씀하신대로 눈바람을 맞으시며 저택앞에서 기다리던 너사께서 소년의 손목부터 담썩 당겨주시고 어쩔바를 몰라하시었다.

《원 이런, 겉옷두 못입었으니 얼마나 추웠겠니. 잘 왔다. 정말 잘 왔어.》

그들을 데리고 저택안방에 들어가시여서는 줄곧 오락가락하시며 모양이 고운 파자며 알사탕을 소년앞에 내놓으시었다.

《자, 어서 먹어라. 먹으면서 천천히 이야기하꾸나.》

소년은 녀사께서 들려주신 과자를 두손에 받아 들고도 먹을 녀를 못했다. 어린마음에도 녀사의 극진한 환대에 눈시울이 젖어드는 모양이었다.

그이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한옥림이 자세히 말끔드렸다.

《아버진 유격대에서 싸우다 전사하셨구 어머니도 일본놈들한테 잘못됐다고 합니다. 중국동북지방에서 살다가 지난달에 강동에 나왔습니다.》 녀사께서는 비분에 잠겨 안색을 흐리시며 소년에게 조용히 물으시었다.

《물론 아버지 얼굴은 모를테구... 애야, 너 아버지 이름은 아느냐, 그래, 이름이 뭐지?》

한옥림은 마음의 탕개를 조이며 녀사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자기가 데려온 소년이 녀사께서 찾으시는 애인가 아닌가가 판명될 아슬아슬한 시작이어서 여간만 속이 죄이지 않았던 것이다.

고개를 떨군 소년이 허아래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박성규, 박성규라고 불렀대요.》

일순 녀사의 눈에 한점 불꽃이 스쳐지났다. 한두름 나왔으시며 소년의 모습을 눈에 익히시듯 찬찬히 주시하시었다. 그러시던 그이께서는 소년을 와락 껴안으시며 목매여 되뇌이시었다.

《논매랑 입매가 신통히 아버지를 닮았구나. 기다렸다, 얼마나 기다렸대구. 이렇게 올길이면 좀더 빨리 올 노릇이지.》

그이께서는 소년의 여윈 볼을 넋없이 쓰다듬으시며 한옥림을 돌아보시었다.

《용하군요. 얼마나 기특해요. 이 엄동설한에 걸 옷마저 못걸치고 요 작은 발루 그 먼먼 길을 걸어왔으니...》

한옥림은 그제서야 긴장이 풀려 고개를 떨구었다. 그렇게 찾고찾으신 박영남이를 한품에 안으신 녀사의 모습이 거대한 화폭이 되어 뇌리속에 진하게 새겨지는 것이었다.

잠시후 그이께서는 한옥림을 데리고 결방으로 가시었다. 녀사께서 침실로 쓰시는 방이었다.

어인일인지 얼굴에 홍조를 띄우신 그이께서 한옥림에게 속삭이시었다.

《전번에 나한테 맡겨둔 외투천을 써야겠는데 달리 생각지 말아요.》

한옥림이 영문을 알수 없어 눈을 끄덕이자 다시금 소곤소곤하시었다.

《저애한테 외투를 지어 입혀야겠어요.》

《어마나! 그건 안됩니다, 김정숙동지-》

너무나 뜻밖의 말씀이어서 한옥림은 저도 모르는새 급한 소리를 내질렀다.

《미안하군요. 하지만 이것봐요. 어머니들이란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입으면 그이상 큰 기쁨이 없지 않아요. 옥림동무가 저애를 나한테 데려왔는데 내 손에 천은 이것밖에 없으니 어찌겠어요.》

녀사께서는 한옥림에게 랑해를 구하며 종시 의통에서 외투천을 꺼내시었다.

더는 어쩔수 없어 한옥림은 옆방으로 달려가 소년을 데려왔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소년의 몸을 가듬해보시며 익숙하게 마름질을 하시었다.

사각, 사각, 사각...

귀에 익은 음향이었다. 언젠가도 녀사의 방에서 이 비슷한 소리가 들렸었다.

언제 들었을까? 고개를 갸우뚱했던 한옥림의 눈에 생기가 어렸다. 녀사께서 밤새워 편지를 쓰시던 날 펜끝 달리던 소리가 귀따갑게 들려오는 것이었다.

한옥림은 끝내 어깨를 떨며 녀사를 외면했다. 영남이의 옷이라든 한벌 지어놓고 그를 기다렸으면 좋겠는데 몸집을 몰라 못짓겠다고 근심하시더니 오늘은 온 세상의 기쁨을 독차지하신듯 밝고 밝게 웃음짓는 그이의 모습에 눈시울이 젖어들었던 것이다...

생각에 잠겨 발을 옮기던 한옥림은 우거진 잡관목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고개를 들었다. 티없이 푸르른 쪽빛하늘이 눈앞에 안겨들었다. 이상스레 밝은 해빛이 누리에 가득 찼다. 하늘은 왜 저리도 푸르고 태양은 어쩔 저리도 밝을까? 눈바람이 이다지도 훈훈한건 무슨 까닭이람? 아 평양, 내 삶의 품!

온몸이 그대로 감동에 무뎠었던 그는 이윽고 가느다란 나무가지를 주어들고 자름자름하게 꺾어던지기 시작했다. 토막난 나무개피들이 그의 발밑에 무수히 널렸다. 가슴벅찬 충격을 받고보니 또다시 금돌이가 생각키우는 것이었다.

자기에게 그 어떤 크나큰 행복이 다가오고있는가에 대해서는 감감 알수 없었던탓에 한옥림은 눈우에 못박혀 나무가지만 토막내고있었다.

4

그때로부터 달포가 지난 늦은 아침, 한옥림은 존경하신 녀사께서 친히 걸어오신 전화를 받았다. 곧 사무실에 가겠으니 자리를 뜨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전화통에서 물러난 그는 서둘러 정갈한 사무실 안팎을 다시 정돈하고 방안구석구석을 물걸레로 말끔히 닦아냈다.

얼마쯤 그렇게 방거둠을 한 다음에는 거울앞에 마주서서 옷매무시를 바로잡기 시작했다. 항상 차림새가 단정하신 녀사앞에 나설적마다 자기를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잔잔히 살펴보는 습관을 붙인 한옥림이었다.

그가 거울앞에서 물러나기바쁘게 복도에서 귀에 익은 발자국소리가 울렸다.

(오셨구나!)

텅기듯 의자에서 일어나 문꺼로 다가갔다.

나들문을 열고 녀사를 맞던 한옥림은 덩돌해졌다. 혼자 오실줄 알았는데 웬 까까머리 소년을 앞세우고 빠른걸음으로 다가오시는 것이었다.

사무실안에 들어서신 그이께서 격하게 입을 여시었다.

《옥림동무, 이애가 내가 찾던 박영남이에요. 그

중대장의 아들말이에요!》

한옥림은 허가 움츠러들어 어쩔바를 몰라하다가 머리를 떨구었다. 그럼 전번의 그 영남이는?! 녀사께서 그러도 반겨맞은 그애가 어떻게...

그이께서 사실대로 들려주시었다.

《강동에서 데려온 애는 홍기대전투때 희생된 기관총수 박성규동무의 아들이예요. 하지만 옥림동무한테 다른 말을 못했어요. 그도 우리가 찾아야 할 애였고 이름도 똑같은 영남이니 뭘 따루말 할거나 있어요.》

한옥림은 그만 억이 막혀 채머리를 떨었다. 생똥같은 아이를 데려다 드리고 만음편히 지낸 씻을수 없는 죄스러운애에 온몸이 금시 조그맣게 줄어드는듯싶었다.

시름을 더시기느커녕 내앞에서조차 아무런 내색도 안하시느라 녀사의 심중이 얼마나 무거우셨을텐가!

(아, 맹공이-제대로 알아도 못보고... 그러구두뭘, 녀사를 돕는다구...)

번뇌에 시달리는 한옥림을 측은히 바라보시던 녀사께서 별스레 가라앉은 어조로 침묵을 깨치시켰다.

《옥림동무 좀 묻자요. 불타는 집안에 놈들이 가두었다는 아들이름이 금돌이가 아니었던가요? 희생된 남편이름은 리동석이라고 불렀지요?》

한옥림은 몸을 흠칫하며 대답을 못했다. 실로 놀라운 물음이었다. 그 어디서도 아들과 남편이름을 입에 올린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아시고 무슨일로 캐여물으실가?

《웬지요?》

그이께서 다시금 대답을 재촉하시는통에 가까스로 그렇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녀사께서는 다급히 한옥림의 팔을 꺼잡으시었다.

《옥림이, 놀라지 말아요. 우리가 찾던 박영남이가 바로 옥림이...옥림동무 아들이예요.》

한옥림은 무슨 말씀인가 하여 녀사를 말끄러미 쳐다보았다.

품에서 두툼한 편지봉투를 꺼내어 책상위에 놓으신 그이께서 말씀을 이으시었다.

《함경북도 정권기관에서 일하는 동무들이 영남이를 찾아보내면서 이 편지도 함께 보내왔어요.》

녀사의 목소리가 갑작스레 아득히 멀어졌다. 한옥림은 귀를 강구고 애써 마디마디를 가려들었다.

그이께서는 유격대공작원 박명환이 금돌이를 구원하여 피신시켰던 사실을 상세히 들려주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놈들은 옥림동무의 남편을 무참히 학살한다음 금돌이마저 죽이려고 하였으나 혁명가의 피줄만은 끊지 못했어요. 비록 금돌이 아버지나 박명환 중대장은 해방된 이 땅에 돌아오지 못했어도 금돌이는 이렇게 자라 끝내 어머니품을 찾아오구야 말았군요.》

한옥림은 그이상 듣지 못했다. 졸지에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귀에서 이상스런 소리가 났다. 수천마리의 벌떼속에 묻힌듯 귀안이 붕붕거리는 소리가 날아들어 정신을 차릴수 없었던것이다.

《옥림동무-옥림동무!》

어렴풋이 들리는 녀사의 부름소리에 그는 안간

힘을 써 머리를 들었다.

내가 왜 이럴까? 아들을 찾았는데...금돌이, 옳아, 금돌이구말구. 뭘 의심할게 있어. 녀사께서 죄다 말씀하셨는데... 김정숙녀사께서...

한옥림이 다리에 힘을 보아 엉거주춤 몸을 일으키자 녀사께서도 따라일어나서며 얼른 그를 부축하시었다.

《이 기쁜날에...금돌이가 왔으니 힘을 내야 해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만나니 얼마나...》

별안간 녀사께서 말끝을 흐리시었다. 씁없이 흐르는 눈물이 두볼을 적시며 녀사의 턱에 방울방울 구슬처럼 맺히었다.

유난스레 아롱지는 이슬방울로 옷설을 적시던 그이께서 리금돌을 끄당겨 한옥림의 앞에 내세우시었다.

《금돌아, 내가 말하던 네 어머니다! 어서 인사를 드려라.》

《어머니!》

금돌이가 울먹거리며 허리를 굽히는 순간 한옥림은 비칠거리며 가느다란 신음소리를 냈다.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는 참기 어려운 격정때문만이 결코 아니었다. 존경하는 녀사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사랑에 심장이 터져나올듯 활랑거렸던것이다.

한옥림은 눈물 한방울 흘리지 못하고 녀사를 우러렸다. 녀사의 눈에서는 맑디맑은 더운 이슬이 그냥 샘솟아 올랐다.

한옥림은 입귀를 떨며 주먹으로 가슴노리를 눌렀다.

아, 녀사의 눈물! 저것을 어찌 감정의 분출로만 여길수 있더냐. 저것은 사랑, 자애에 넘치는 사랑, 금돌이만이 아닌 온 나라 유자녀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혁명의 피줄기를 곳곳이 이어주시는 이 나라 어머니만이 지닐수 있는 모성애의 샘줄기-녀성중의 녀성이시고 어머니중의 어머니이신 김정숙녀사께서 간직한 인간애의 대하가 아니라!

《금돌아!》

한옥림은 쓰러질듯 다가들어 아들을 힘껏 부둥켜안았다. 죽은줄로만 단정했던 아들의 따스한 체온이 가슴속으로 찌릿하게 흘러드는 순간 그는 금돌이의 볼에 체열굴을 마구 문질렀다.

아, 금돌아, 너는 내품에서 태어났지만 난 어머니가 못된다. 낳아준게 어머니가 아니라 안아키워준 품이 어머니란다. 너는 지금껏 녀사의 마음에 안겨자랐어. 밤이나 낮이나 이 어머니를 대신하여 너를 찾고 찾으신 분은 바로 김정숙녀사이시었다. 유자녀들을 떠나서는 순간도 살수 없다고 하며 그토록 마음을 쓰신 녀사의 품에 안겨 너는 이 땅에 다시 태어났더란다. 그 품에 안겨 자란 수많은 유자녀들과 함께 금돌이 너도 이 나라의 믿음직한 기둥으로 자라고있단다...

한옥림은 그제서야 어깨를 들먹이며 웃고름을 움켜잡았다. 가슴속에 고였던 온갖 설움이 샅시에 가셔지고 한껏 기쁨에 젖은 온몸이 어디론가 두둥실 떠오르는것만 같았다.

(아, 내 나라-얼마나 좋아. 어머니계신 내 나라 얼마나 행복해!)

아직은 철기가 일러 바깥날씨가 쌀쌀했으나 새봄빛이 창가마다 가득가득 흘러들 방안은 여간만 밝고 따사롭지 않았다.

세계의 벗들과 함께 외 1편

홍현양

어머님
김정숙어머님!
마음속에 고이는 그리움을 안고
우리가 왔습니다
벗들과 함께
세계의 벗들과 함께

강산에
주작봉마루에
함박눈은 내리고 쌓이여
푸른 소나무에도 흰 서리꽃이 피었건만
어머님의 검은 머리
어머님의 그 모습만은
백두산시절 그대로입니다

방금 삼지연 못가에서
그 검은 머리 감으신듯
장군님 모시고
잊지 못할 회령의 하늘가를 바라보시던
그 행복한 순간의 모습인듯...

변치 않는 그 마음
진달래처럼 티없는 그 웃음앞에
하늘빛 눈동자
금발머리 처녀는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처럼
그처럼 젊은 시절에
우리의 곁을 떠나시었는가

아, 천진한
우리 딸애의 물음이라면
쉬이 대답해주었으리까
말이 막혀
뜨거운것이 두눈에 고여
하늘만 우러러
두볼을 적시는 눈물!

우리의 두볼을 적시는 눈물이
벗들의 두볼에도 흘러내립니다
짧게 사시였어도

저 붉은 기발아래 영생하시는
어머님을 부르며
이 세상 하나의 목소리로 흐느낍니다

어머님
김정숙어머님
웃어도 함께
울어도 함께
어머님께 드리는 이 꽃다발은
송이송이
일흔다섯송이 봄을 가꾼 마음이옵니다

말은 다르고
나라는 달라도
가슴속에 삼키는 뜨거운것은
피처럼 하나같아
어머님앞에
세계의 벗들과 함께 서면
그리움이
간절함이
우리의것만이 아니였습니다

우리의것만이 아니였습니다
눈속에서 캐시던 산나물
사령부창가에 피우시던 진달래
태양을 받들어
한생을 다하여 고이신 그 사랑은
천만의 벗들에게도 안겨주는
하나의 심장

지울수도
버릴수도
잊을래야 잊을수도 없는
승고하고 위대한
어머님의 그 영상이였습니다

아, 인류를 위해 바치신
그 위대한 사랑앞에
우리도
벗들도

세계도
달리는 부를수 없는
혁명의 어머니
김정숙어머님이시여

백두산의 폭풍
백두산의 삶을 주시는

그 자애로운 손길을
우리 함께 세계의 벼들이 따르웁니다
머리속여 삼가 인사드리고
머리들어 나아갈 앞길을
어머님앞에서
봄빛으로 안고 갑니다!

동지로 함께 사는 삶

동지!
이 말을 두고 생각한다
과연 이 말속에 깃든
그 뜻을 두고 그 숨결을 안고
내가 무엇을 하였고 못하였는가를...

손을 심장에 대고
생각해보자
너와 나
해뜨는 아침에 맡겨진 일을
해지는 저녁에 다 했는가

함박눈 송이송이
생각을 불러 하염없이 내리는
12월의 뜻깊은 이 저녁
추억은 말없이 길동무가 되누나

동지!
이 말속에
존경하는 김정숙어머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을 받드시고
친근한 전우들을 위하시던
그 정성 사랑의 길이 서려있어
뜻없이 부를수 없는 이 말

오늘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너와 나
우리의 심장속에 새겨주셨구나
조직비서동무도 사람이니
밤이면 잠을 자야 하고
때식도 제때에 들어야 한다고...

아, 동지!
이 말을 평범한 날에
서로 부르고 찾으며
너와 나 그 언제 한번

위대한 수령님 바라시는 그 뜻으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그이를 받들어모시는 길에
순간을 헛디딘 일은 없었더나

보통날
살구꽃잎이 어깨우에 떨어지는
모란봉과 대동강기슭을 거닐지라도
순간이나마
어버이수령님 바라시는
그 높이에 살았는가 새겨보는 마음

너와 나
동지로 맺어진
혁명의 이 언약속에
참된 리치로 심어진 그 뜻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충성으로 받들어모셔야
백두의 흰눈처럼
순결하게 빛을 뿌릴 이 말

한마음
한뜻으로
한삽의 흙이라도 더
저 기름진 들판에 깔아야
시간을
기쁨으로 휴식으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 드릴수 있나니

그래서
너와 나 우리의 삶
홀어질줄 모르는 동지로
한번 잡은 손 놓음이 없이
들판의 찬바람도 함께 헤쳐라
건설장의 진눈까비도 달게 맞아라

백두의 눈보라소리를 들으며

민향숙

부르시는듯
이끄시는듯
봄별처럼 따사로운 미소
군모밀에 지으시고
오늘도 마음속에 오시는 어머니

언제나 그리운 영상
조용히 우러르면
마음은 승엄히 백두밀림에 서고
그 밀림의 천지를 뒤흔들며 들려오는
눈보라, 눈보라소리

뜨거움에 젖어 한자욱
이랑이랑 물결쳐오르는 생각 번지나니
후더운 이 가슴에 쌓여지는 세월의 눈서리
그날의 어머니 모습 고이 실어오는가

하늘가엔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발
허리치는 눈, 휘몰아치는 눈보라
장군님의 젖은 군복 가슴에 품고
성에 낀 옷자락 기폭처럼 날리며
자욱자욱 대오의 앞장에서
숫눈길을 헤치시는 김정숙어머니

한점의 불꽃조차 어이 지필수 있었으랴
사면으로 달려드는 원쑤의 무리
앞뒤로 날아드는 적기의 폭음
태질하는 수림의 바다
아, 하늘땅도 휘던 그 나날에
장군님 안녕 바라신 한마음
밀림에 활활 타오르는 불길되시여
백두의 장설을 다 녹여오신
어머니의 그 모습이여

귀기울이면
지금도 들려오는듯
열어든 입가에, 가슴에
차디찬 얼음 버석버석 마주치는 소리

장군님의 모습에서
내 조국의 푸른 하늘 안아보시던
어머니의 뜨거운 그 숨결

불어오는 바람결
가버이 흔드는 나무잎소리에도
이 가슴 젖어들어라
우리러 불타신 한마음 방패가 되시고도
방울방울 이슬에 젖던
어머니의 흐느낌, 자책의 흐느낌소리

아, 목메여 부르며
달려가 안기고싶은 어머니 그릴 때면
때없이 찾아와
이 가슴 한없이 울리는 백두의 눈보라야
너 언제나 나를 불러
잠들줄 모르고 들려주는 노래는
불러도 불러도 안길 조국이 없던 그 나날에
장군님 모시고
항일의 혈전만리 뚫고오신
어머니의 하많은 전설의 이야기

꽃이 피는 봄날엔
송이송이 반겨웃는 꽃을 바라보아도
나의 눈가엔 백두의 그 흰눈서리
들리어 들리어오는건
백두의 눈보라소리

눈은 내리고
찬바람 불어 올 때면
내리는 눈송이를 안아보아도
백두밀림 그날의 어머니 생각

아, 꽃이 피도 눈이 와도 그 언제나
백두산을 안고 사는 인민의 마음
그날처럼 백두의 하늘가로 불러주시며
우리모두를 한품에 안아
영원한 천위전사로 키워주시는
우리 어머니, 아 혁명의 어머니이시여

조국의 운명을 구원한 위대한 령도에 대한 불멸의 서사시적화폭

-총서 《불멸의 력사》(해방후편)중의 장편소설 《조선의 힘》에 대하여-

리성덕

총서 《불멸의 력사》의 해방후편에 속하는 장편소설 《조선의 힘》(정기종 작)은 우리들의 관심을 끄는 작품이다.

우리는 이 작품의 첫머리에서 1950년 9월 13일 남태평양에서 발생하여 북상하기 시작한 태풍 9호가 치렬한 격전이 벌어지고있던 락동강전선에 이르러 미친듯한 폭우를 들썩우는 걱정적인 사변에 접하게 된다.

《골마다에서 탕수가 끓어번졌다. 바위돌이 굴러내리고 아름답디 거목들이 뿌리채 뽑혔다. 하늘을 짹 짹 가르며 창살같은 번개가 무시로 번쩍이고 하늘과 땅이 맞붙어 흐느끼듯 떨었다. 구름속을 파헤치며 퇴성이 사라져가면 지상에서는 또 열면 포성들이 파당파당 화답하듯 울부짖었다.》

이러한 간결하면서도 힘있는 문장으로 시작된 소설은 포신마다에서 비방울이 자글자글 뚫고 구령소리, 육지거리, 예광탄의 긴 꼬리, 뭍서리치는 비명, 폭발, 진창길에 철떡거리는 군화발 등의 간결한 묘사로 격전장인 락동강반을 집약적으로 조명하면서 《유엔군》의 인천상륙을 알리는 적들의 뼈라, 그런것에는 아랑곳없이 한결음만 더, 조금만 더 전진하면 대구와 부산에 닿을수 있다는 일념만을 안고 한치 또 한치를 더듬어나가는 우리 인민군용사들의 불사신의 모습을 부각하고있다.

여기에 풍도 없는 차를 타고 대줄같은 비속을 달리는 최현장령의 출현, 락동강도하가 끝나면 차후임무를 대기하라는 전선사령관의 명령, 땅크와 포차를 도하시키기 위한 배떼다리에서 만나게 되는 최현과 공병중대장 류현수.

불과 몇페이지 안되는 묘사속에 팽배하게 집약된 극적인 정황을 놓고 우리 독자들은 성급한 마음을 안고 책장을 번지지 않을수 없다.

온 세계가 커다란 우려를 안고 조선의 운명을 지켜보며 이제 청소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도우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추게 되리라고 생각하던 조국해방전쟁의 일시적인 전략적후퇴시기를 형상한 장편소설 《조선의 힘》은 이렇게 첫 대목에서부터 독자들의 심금을 울어주고 놓지 않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전세계의 이목은 조선전선에 집중되고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군사전문가들과 인민들은

우리 인민군대의 주력이 미군의 <포위>를 돌파할 수있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우려하면서 인민군대의 행동을 주시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은 인민군대의 주력을 <포위>하였다고 기뻐하면서 자기들이 승리할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적들은 실패를 면치못할것이며 적들의 기쁨은 슬픔으로 전변될것입니다.》

이것은 1950년 9월 27일 도당위원장협의회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연설 《일시적인 전략적후퇴와 당단체들의 과업》의 한구절이다.

장편소설 《조선의 힘》은 30대의 젊은 장군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이 명철한 예언이 어떻게 그대로 현실로 되였는가 하는것을 력사적사실과 생활의 구체성속에서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장편소설 《조선의 힘》은 락동강전선에 아군과 적들이 협착되어 이제 일격이면 대구와 부산을 해방하는 력사적순간을 맞이할수 있었던 결정적인시기 맥아더가 이끄는 5만의 대병력이 인천에 상륙하고 15개나라 제국주의고용병들이 조선전선에 증강됨으로써 군사정치정세가 급변하고 적아간의 력량대비가 엄청나게 달라져 조국의 운명이 일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최악의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킨 그 위대한 힘의 원천이 무엇이었던가를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밝혀내고있다.

온 세상 사람들의 우려와 예상을 송두리채 뒤집어엎고 전대미문의 군사적기적을 창조함으로써 미제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여지없이 짓부셔버리고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은 그 위대한 힘이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령도에 그 원천을 두고있다는것을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확증한 여기에 이 작품이 가지는 커다란 인식교양적의의가 있다. 장편소설 《조선의 힘》은 시대와 인민대중을 대표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최고전형이시며 시대가 제기하는 혁명의 근본문제를 독창적으로 풀어나가는 사회정치적집단의 최고뇌수인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우리의 주체문화이 개척한 고유한 창작생리와 미학적원칙, 풍부한 창작경험에 기초하여 보다 새로운 경지에서 수령님의 위대성을 특색있게 형상함으로써 이채를 띠는 예술

적화쪽으로 빛나고있다.

장편소설 《조선의 힘》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가장 엄혹한 시련의 시기 탁월한 군사적 예지와 지략, 강철의 의지와 무비의 담력으로 미제침략자들을 서산락일의 운명어로 처박아 넣는 위대한 군사전략가, 위대한 정도의 예술가로서의 경애하는 수령님의 탁월한 풍모를 예술적으로 품위있게 형상하고있다.

인류는 수많은 전쟁의 역사에서 무훈을 남긴 군사의 대가들을 수많은 알고있다. 그러나 창건된지 불과 5년밖에 안되는 청소한 공화국, 정규 무력으로 조직된지 불과 2년밖에 안되는 유년기의 인민무력, 그 인민과 군대를 가지고 200년의 전쟁력사에서 단 한번의 패전을 모른다면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제침략자들과 제국주의의 강대한 무력의 총집합체라고 할수 있는 15개주종 국가의 현대화된 대정예부대들과 맞서 승리를 이룩한 30대의 청년장군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같은 희세의 군사대가는 아직 모르고있다.

소설은 수령님의 그 위대성이 집중적으로 발현된 조국해방전쟁의 가장 어려운 일시적인 전략적 후퇴시기로부터 1951년 1월까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형상을 예술적으로 품위있게 부각하는데서 큰 걸음을 내짚었다.

이 소설의 작가는 수령형상작품의 고유한 생리를 옹계 파악하고 형상에 구현함으로써 전쟁의 가장 엄혹한 시련의 시기 경애하는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활동의 본질적측면들을 통하여 조성된 전쟁의 위기를 한몸으로 막고 조국의 운명, 전쟁의 운명을 구원한 희세의 군사대가, 위대한 정치적수령으로서의 경애하는 수령님의 걸출한 풍모를 형상하는데서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고있다.

장편소설 《조선의 힘》은 수령형상작품의 고유한 생리에 맞게 형상화폭의 중심에 수령님을 세우고 역사적사건들을 기본줄거리로 하여 수령님을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엮고있으며 수령님에 의하여 구상되고 조직령도되는 전쟁의 전모를 집약적으로 펼쳐보이고있다.

이 소설에서는 위대한 군사의 영재로서의 비범한 예지와 지략이 집중적으로 표현될수 있는 기본사건의 하나로 전략적후퇴를 결심하게 되는 생활국면을 설정하고 여기에서 령활한 작전적구상을 익히고 실현하시는 수령님의 숭고한 풍모를 깊이있게 개방함으로써 이 위대한 작전적구상은 오직 수령님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었던 조성된 위기극복의 유일한 방도였다는것을 생활적으로 확증하고있다.

엄숙한 정적속에 잠겨있는 최고사령부, 모든 사람들의 눈길과 고도로 긴장된 마음들이 쏠리고 있는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의 집무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선사령관 김책이 올린

전투상보와 총참모부에서 작성한 정황지도를 보고계신다.

거기에는 락동강전선의 처절한 공방전의 전모도 그려져있고 사품치는 강을 건너 교두보를 차지한 최현사단의 전투행로도 밝혀있으며 대구와 부산을 지향한 모든 련합부대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이 마지막 총공격명령을 기다려 가슴조이고있는 그 심정이 그대로 어려있다.

그러나 수령님의 탁상일력은 미제의 대규모적인 인천상륙작전이 감행된지 3일째라는것을 가리키고있다.

세계전쟁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월미도의 가렬처절한 싸움터에서는 불과 4문의 포를 가진 포병 1개중대와 보병 1개중대가 1,000대의 비행기, 수백척의 대소함선, 5만의 상륙부대와 맞서 최후의 결전을 벌리고있는것이다.

조국앞에 닥쳐온 이 커다란 위험, 전선과 후방이 차단되고 락동강전선의 주력부대들이 적들의 포위속에 들수 있는 일대 위기!

조성된 위기는 우리 당내에 잠입한 간첩도당의 악랄한 책동에 의하여 더욱 우심해지고있었던것이다.

소설은 겹쳐든 난국과 위기를 한몸으로 막아나서시여 감히 그 누구도 상상할수 없는 작전적, 전략적구상으로 위험에 처한 전쟁의 운명을 구원할수 있는 탁월한 방침을 제시하고 천재적으로 실현해나가는 위대한 군사전략가의 숭고한 풍모를 감동깊은 예술적형상으로 빛나게 재현하고있다.

새로 조직된 련합부대를 하시고 수도로 돌아오시는 장군님께서 눈앞에 펼쳐진 폐사로운 가을풍경을 바라보면서 겪으시는 착잡한 내면심리세계를 소설은 얼마나 깊이있게 개방하고있는가.

메고갈 총이 없어 빈몸으로 인천, 서울의 격전장으로 달려가던 병사의 모습, 조국의 머리위로 어떤 무서운 메지구름이 밀려오는지도 모르고 반두질에 여념이 없는 애들과 전선에 나간 아버지, 형님, 누나들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벌리고있는지도 모르는 천천란만한 어린것들, 여기에 미친듯한 폭우속에서 결전을 벌리고있는 락동강전선의 치열한 모습이 겹친다. 눈앞에 있는 대구와 하루길사이에 있는 부산을 두고 오직 공격만을 생각하고있는 주력부대의 장병들, 그러나 적들의 인천상륙으로 군사정세는 너무도 급변한것이다.

전선사령관 김책도, 총참모부의 남일도 이 엄연한 현실을 알고있고 보고있지만 그 누구나 속수무책이다. 오직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역경을 뒤집어엎어야 할 비상한 대책을 세우고 단호한 결심을 내려야 하는것이다.

그것도 단 하루를 늦춰도 안되는 초긴장상태에서. 소설은 이 수습하기 어려운 준엄한 사태앞에서 피로운 사색속에 잠겨계시면서도 하나의 작은

생활에서 실머리를 찾아주시고 천재적인 작전적 구상을 무르익히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여유작작하신 내면심리를 깊이있게 개방한 정서적인 화폭들을 펼쳐가고있다.

한해농사를 결단내고있는 새떼들을 쫓으며 장군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나라의 아름다움을 공지높이 노래하는 한 소년의 꿈을 헤아려보시며 수령님께서서는 전쟁이 아무리 가혹하다해도 그 아름다운 노래와 꿈을 간직한 우리 인민의 심장은 그 어떤 원쑤도 놀래우지 못할것이며 우리 인민은 결코 전복할수 없을것이라고 확신하시고 가장 크고 억센 믿음에 기초한 단호한 결심을 내리는것이다. 작품은 이렇듯 수령님의 위대성의 기초에 놓여있는 믿음과 사랑에 대한 철학을 깊이있게 밝혀내면서 전략적후퇴라는 새로운 작전적구상을 익히시고 실현해나가는 위대한 전략가의 심오한 철학세계를 개방하는데 모를 박고있다.

남일의 종합된 정세자료를 보고받으신 수령님께서 홍명희와 담화하시는 과정에 발현되는 혁명전사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오직 우리의 수령님께서만 지니실수 있는 위대한 인간세계임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구성된 정세에 대한 냉철한 분석만 있고 단 한마디의 대책도 없는 남일의 보고에 불만을 간직한 홍명희에게 그의 보고야말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그 어떤 방책도 세울수 없다는 자신을 깨닫고 피로와하면서 고민하고있는 자신을 고지식하게, 솔직하고 대담하게 드러내놓은것이라고 하시는 수령님.

군사와는 거리가 먼 교육일군인 남일에게 총참모장의 중책을 맡기시려는 수령님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못미더워하는 홍명희에게 엄중한 정세하에서 우리에게 사람들에 대한 믿음과 기대만이 있을뿐이라고 하시면서 안길과 강건 등이 지녔던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인민에 대한 남다른 헌신성을 남일에게서도 보고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는 위대한 수령님.

소설은 인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수령님의 위대한 인간세계에 매혹된 홍명희의 절절한 내면심리세계의 개방을 통하여 평범한 인간이 시대의 견결한 혁명가로, 재능있고 충실한 참다운 충신으로 자라고있는 그들의 견결한 혁명정신이 우러난 샘터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과 사랑에 기초한 숭고한 인간세계,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인간세계의 극치였음을 격조높이 구가하고있다.

어찌 그뿐인가. 전선에 조성된 위험이 각일각 전쟁의 운명을 조이고있는 순간에 리승기박사를 비롯한 과학자들과 나누시는 담화는 또 얼마나 우리들의 가슴을 격동시키는가.

《물론 지금 전선에서는 한명의 전투원이 귀한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래일을 생각해야 하며 래일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되 오늘을 반복하는 래일이 아니라 더 좋고 더 훌륭한 래일을 오늘에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머지 않아 전쟁을 이기고 파괴된 나라의 경제를 복구하고 더 발전시켜야 하겠는데 그때에 가서 또 무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까. 아니 그럴수 없습니다.

리승기선생! 이제 전쟁을 이기면 것처럼 영웅적으로 잘 싸운 우리 인민을 남부럽지 않게 잘 해입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생은 그때에 가서야 실험기구며 설비들을 빨리 내라고 요구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며 인민을 위함이라면 욕심이 하늘에 닿을수록 좋다고 하시는 수령님.

이것은 작가의 예술적허구도 파장도 아니며 력사적인 사실을 보태지도 덜지도 않고 재현한 진실 그대로이다.

소설은 조국의 운명이 경각에 달하고있던 그 엄혹한 시기에도 승리를 확신하시고 인민을 위한 래일을 구상하고 실현에 옮기시며 조성된 정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군사적대책을 세워나가는 위대한 령장의 숭고한 모습을 최용건과의 관계속에서도 감명깊이 부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맥아더란놈이 닷새동안이면 서울을 강점하고 전선과 후방을 완전히 차단해버린다고 호언장담하고있지만 그 방대한 무력을 가지고도 작은 섬인 월미도를 점령하지 못해 발광하였다고 하시면서 필요한것은 시간을 쟁취하는것이라고 강조하시고 서울에 가서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전인민적항전의 바리케트로 10일이상 서울을 방어하여 적들의 진격을 저지시킬것을 명령하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상한 결심을 가지고계신다는것을 짐작하고 그것이 《기동방어》일것인가, 전반적인 기동전일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최용건에게 전략적후퇴에 대한 결심을 알려주시고 그 전략적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히시는 력사적사실에 대한 사실주의적묘사는 회세의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수령님의 위대성을 웅변으로 확증하는 빛나는 화폭으로 펼쳐지고있다.

소설은 일시적후퇴의 전략적의의와 서울해방전투의 중요성을 위대한 수령님과 최용건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집약적인 생활속에서 형상적으로 강조하면서 전세계적인 우려를 뒤집어엮은 탁월한 전략적구상은 오직 수령님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었다는것을 확증하는데 성공하였다.

바로 여기에 이 작품이 거둔 성과의 중요한 한 측면이 있다.

소설은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수령님의 빛나는 형상을 창조하기 위하여 방대한 무력으로 공화국복반부를 단숨에 삼켜버리려고 공격속도를 높이고있는 적들을 제압하기 위한 새로운 작전적

구상, 적들의 공격이 한계점에 이를 때까지 완강히 방어를 하며 후비부대를 더 많이, 더 빨리 준비하는 동시에 적의 전선과 후방을 차단하기 위한 제2전선을 적의 배후에 떠나가시는 천재적인 평균술을 발휘하시는 장엄한 모습을 형상적으로 두드러지게 부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46만에 달하는 적의 대병력이 동서 200키로미터에 이르는 전전선에서 홍수처럼 밀려들고있는 조건에서 전쟁의 중국적승리를 위하여 중대한 결심을 내려야 한다고 하시며 김책에게 홍수로 불어난 강물을 여러개의 물줄기로 갈라서 길들이듯 적의 대부대를 분산시켜 공격속도를 저지시킬데 대한 비상한 작전적구상을 피력하신다.

이것은 새로 정비된 일부 연합부대도 적후에 들이밀고 후퇴해오는 부대들도 멈춰세우고 적후에 강력한 제2전선을 형성함으로써 놈들의 뒤통수를 갈기고 적의 전선과 후방을 차단할데 대한 또하나의 위대한 전략으로서 세계전쟁사가 알지 못하는 불멸의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다.

소설은 순간의 포착으로 적들의 약점과 전쟁의 전모를 간파하시고 승리를 위한 결정적인 국면을 열어나가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품모를 극명하게 형상하고있다.

동서해안으로 갈라져 우리 지역으로 깊숙히 뛰어드는 적들의 군단과 아군의 한계 중대나 소대가 대치하고있다는 기막힌 보고들이 련이어 각 방향 장들로부터 들어오고있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적의 동부집단과 서부집단의 련계가 끊어지고 통일적인 지휘가 보장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제때에 간파하시고 놈들의 동서집단사이에 놓여있는 험한산악지대를 장악하면 놈들의 전선과 후방을 차단하고 혼란에 빠뜨릴수 있다고 확신하시고 제2전선의 전개를 당면한 총적목표로 내세우시는것이다.

소설은 시시각각으로 조여드는 적들의 대공세 앞에서 피로운 마음만을 안고 모대기던 김책의 시점에서 그 격동적인 사변의 의의를 이렇게 강조하고있다.

(장군님, 장군님께서서는 벌써 침략자들의 머리에 철추를 드시였습니다. 제2전선의 철추로 전쟁의 운명을 결정짓고계십니다!...)

이것은 항일혁명전쟁시기 20여년을 포위속에서 살면서 그 포위를 뚫고 적들을 타승해온 김책이 제2전선을 생각하지 못한 자신을 두고 터뜨리는 자책의 목소리이다.

소설은 이렇듯 급변하는 군사정세에 대한 예리한 분석으로 적들의 본질적인 약점을 꿰뚫어보시고 전쟁의 운명을 결정지를 비상한 전략적, 작전적 구상을 명랄하게 떠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이 시야말로 희세의 군사대가이심을 예술적으로 확증하고있을뿐아니라 그 비상한 전략적구상을 실

현하시여 대승리를 이룩하시는 실천과정을 폭넓게 형상함으로써 탁월한 전략적구상의 세계사적의의와 독창성, 그 위대한 생활력을 깊이있게 확증하고있다.

장편소설 《조선의 힘》은 수령형상문학에서 수령이 지닌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형상하여야 한다는 본질적요구도 훌륭히 해결하였다.

소설은 수령님과 측근인물들인 홍명희, 김책, 최용건, 남일, 최현 등과의 관계에서뿐만아니라 전기관리국 기사장 리성조와 그의 가족, 병기생산국장 서병호, 군벌주의자 무정, 공병중대장 류현수 등 중요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수령과 전사, 수령과 인민과의 관계는 령도를 받는 관계인 동시에 사랑과 믿음을 주고받으며 운명을 보살피고 의탁하는 정치적보호자와 전사, 아버지와 자식사이의 혈연적인 관계로 특징지어지고있다는것을 소리높이 구가하고있다.

그 누구나 다 적후에서 잘못되었다고 속단하고있는 최현을 굳게 믿으시고 아직은 소식도 없는 그의 부대를 끝간으로 하여 제2전선형성의 원대한 작전적구상을 떠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

서병호를 비롯한 일부 일군들이 도망쳤다고 인정하는 전기기술자 리성호를 굳게 믿어주신 위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어 그가 적구의 어려운 길에 뚫고 들어가 목숨을 내대고 전기를 끌어옴으로써 군수생산의 막혔던 고리가 풀려나가는 력사적사실에 대한 감동적인 재현, 전쟁의 불길속에서 파괴된 리성조의 가정을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도록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은정어린 사랑, 군사적명령을 어긴 죄로 무정에게서 무자비한 처벌을 받아 죽음을 당할번한 류현수가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은정속에 처절한 싸움의 길에서 파오를 깨끗이 씻고 다시 공병중대장으로 되어 용맹을 떨치게 되는 감동적인 이야기, 군벌주의적망동으로 수많은 대원들을 무자비하게 총살한 엄중한 죄과로 하여 인간으로서의 가치마저 상실하고 버림을 받게 된 무정을 호되게 추궁하고 질책하시면서도 피로써 자신을 되찾을수 있도록 재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장군님의 그 웅심깊은 사랑, 군관학교시절부터 굳게 믿으시고 사랑으로 키워오신 박정덕이 젊은 사단장으로서 적후투쟁에서 용맹을떨쳐 미국놈들과 악랄한 종파놈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이야기를 비롯한 수많은 생활일화들의 생동한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이 시야말로 인간에 대한 참다운 사랑을 최상의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인간중의 가장 위대한 인간이시고 사랑의 위대한 화신이심을 확증하였다.

수령님의 인간적품모의 숭고함을 가장 가슴뜨겁게 형상한 대목은 자제분과의 작별장면이다. 이장면은 독자들의 눈물을 자아내는 격정적인 장면으로 되고있다.

아버님의 걸을 떠나기 그토록 아쉬워하는 자제분들의 마음을 녹갯혀주시기 위하여 김정숙동지께서 것처럼 좋아하시던 《사향가》를 함께 부르는 어버이수령님, 멀고도 험한 후퇴의 길에 호위도없이 어린 영실에게 의탁하여 떠나보내시면서 자제분들의 손에 김정숙동지의 사진을 쥐여주시는 위대한 수령님.

작품은 눈물없이 볼수 없는 이 장면을 허정숙의 녀성다운 심리에 굴절시켜 부각함으로써 깊은 감동을 주는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되게 하고있다.

그 누구보다도 아픈 마음을 안고계시면서도 강한 의지로 그 고통을 이겨나가시며 방송연설로써 전체 군대와 인민을 전민항쟁으로 불러일으키시는 위대한 인간, 그 누구보다도 다감하시고 뜨거운 인정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의 웅심깊은 인간세계를 가슴뜨겁게 펼쳐보인 이 장면이야말로 독자들의 인상속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동한 정서적화폭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소설은 또한 열렬한 사랑과 믿음만이 아니라 불의에 대한 강렬한 증오와 규탄의 감정이 투철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인간적품모도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강조하고있다.

군벌주의의 망동을 부린 무정을 대하시는 맹렬한 태도에서도 서리발갈으신 수령님의 증오가 빛발치지만 당적량심을 솔직하게 터놓은 리성조를 철직시킨 서병호국장에 대한 태도도 그만 못지 않게 준렬하시다.

자기의 당적량심이 시키는대로 장군님께 솔직한 대답, 너무도 하기 힘든 대답을 했다는 리유로 패배주의자라는 감투를 씌우고 철직시킨 서병호를 꾸짖으시는 수령님의 추궁은 준렬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그래도 믿음과 사랑이 강렬하게 흐르고있다. 그러나 준엄한 정세에 대처하여 최고사령부도 국경너머로 옮길것을 《권고》하는 박헌영에게 터뜨리시는 수령님의 격노는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증오의 감정으로 이글거리고있다.

소설은 이처럼 긍정에 대하여서는 열렬히 사랑하시고 불의에 대해서는 강렬하게 끝없이 증오하시는 위대하신 수령님의 정의인, 열의인으로서의 뜨겁고도 견결한 인간적품모, 특출한 인간세계를 예술적으로 품위있게 형상함으로써 우리 독자들을 매혹시키고있다.

이 모든 생활들의 감동적인 예술적형상은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대련합체력과의 피어난 싸움에서 승리한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들의 힘의 원천이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심오한 철학적인 문제에 무게있는 해답을 주고있다.

장편소설 《조선의 힘》은 수령님의 위대성을 특징짓는 심오한 철학세계를 깊이있게 개방하기 위하여 수령님의 체험세계, 내면심리세계에 깊이

침투하여 심리묘사를 대담하게 실현하고있다.

소설에서 보는바와 같이 수령님의 형상을 부각한 여러 장면과 계기들에서 수령님의 외면적인 행동이나 강조하고 대사로 처리하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지도 않았으며 다른 인물들의 시점에서 설명이나 하는 소극적인 방법을 리용하지도 않고있다.

소설은 수령형상작품의 생리적요구에 맞게 작품의 주인공인 수령님의 풍부하고도 심오한 내면심리세계를 깊이있게 개방하는데 묘사의 각광을 집중함으로써 수령님의 위대한 지성세계를 펼쳐 보이고있을뿐아니라 숭고한 인간적품모를 짙은 정서속에서 조명하고있다.

이것은 이 작품의 작가가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인간적품모를 보여주는데서 형상을 격식화하거나 기정사실화하지 않고 생활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깊이 파고들어 생동하고 진실하게 그려냈기때문이다.

최고사령부의 집무실에서 총참모부에서 작성한 정황지도우에 전선사령관 김책이 올린 전투상보를 놓고 사색을 이어나가시는 수령님의 내면심리묘사로부터 시작하여 탁상일력에 눈길을 돌리시고 월미도의 격전장을 더듬으시며 조국에 커다란 위험이 닥쳐오고있음을 느끼시는 내면심리세계의 짙은 묘사, 새로 조직된 연합부대를 돌아보고 오시는 차내에서 천갈래, 만갈래로 이어지고 변화를 일으키는 수령님의 심리적굴곡에 대한 진실한 묘사, 참새를 쫓으며 조국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소년의 랑랑한 글소리를 들으시며 마음속에 새로운 확고한 결심을 다지시는 수령님의 심리세계에 대한 생동한 묘사.

작품은 이렇듯 하나의 문제를 놓고서도 사색하고 또 사색하고 행동에 옮기시는 수령님의 풍부하고도 심오한 내부적체험세계를 깊이 펼쳐보임으로써 수령님의 위대한 인간적품모를 것처럼 진실하고 생동하게 보여줄수 있었다.

이것은 이 작품의 특징이며 형상의 풍격을 한층 높일수 있게 한 결정적요인의 하나이다.

이 작품에는 수령님의 직접심리를 진실하고 생동하게 묘사함으로써 우리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격동적인 장면들을 적지 않게 펼쳐보이고있다.

전략적인 후퇴가 시작되면서 나타난 일부 심중한 문제를 놓고 심각한 사색에 잠겨 시간을 잊고 계시는 수령님의 내면심리에 대한 참신한 묘사, 특히 군벌주의자 무정이 공병중대장 류현수를 총살하려고 한 사건을 두고 저러오는 아픔을 누르시며 생각을 굴리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심리적굴곡에 대한 생동한 묘사는 얼마나 인상깊은가.

병기생산국장 서병호로부터 전기관리국 기사장 리성조가 도주하였다는 보고를 들으시고 그에 대하여 회고하시며 믿음을 확신하시는 장면, 김정

숙동지의 서거일인 9월 22일 눈길을 아프게 끄는 일력장을 더듬으시는 수령님의 추억과 심리적 파동, 조용히 라디오에서 울려나오는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으시며 아픈 추억을 물리치시며 인민에 대한, 혁명전사들에 대한 사색으로 옮겨가시는 수령님의 깊은 체험세계, 군수생산이 난국에 처한 형편을 두고 불가능하다고 솔직하게 보고한 리성조의 깨끗한 당직량심을 되새겨보시는 수령님의 내면심리세계, 적구에서 소식이 없던 최현이 도착한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최현이 그로록 사랑하던 딸 룡옥이가 잘못된 소식을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를 생각하며 피로와하시는 내면심리, 폭격에 허물어진 집을 길목의 그자리에 다시 세우고 전선에 나간 아들을 맞이하겠다는 한 로인의 말에서 전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인민이 얼마나 변모되고 역세여졌는가를 새롭게 느끼시는 수령님의 심리세계, 하염없이 내리고 쌓이는 차창밖의 하얀 눈송이들을 바라보며 만주광야에서 보내신 잊지 못할 시절을 회억하시며 먼저간 혁명동지들에 대한 가슴아픈 추억으로 하여 저려나는 심정을 누르지못하시는 내면심리에 대한 묘사.

이러한 진실하고 생동한 심리묘사는 작가의 높은 지성세계와 현실생활에 대한 분석적인 묘사에 의하여 훌륭히 담보되고있다.

강렬한 정서적충동을 안겨주는 지성도가 높으면서도 간결하고 분석적인 묘사로서 깊이있게 개방된 내면심리세계는 인민에 대한 뜨거운 믿음과 사랑을 천성적인것으로, 절대적인 인간적신념으로 간직한 수령님의 위대성을 추상적인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생활을 통한 생동한 예술적인 형상으로 확증할수 있게 하고있다.

이것은 수령형상작품의 풍격에 맞게 형상의 높은 지성도와 심오한 철학성을 담보할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으로, 비결로 되고있다.

수령형상작품은 높은 형상수준에서 창조하기 위해서는 수령과 인간관계에 맺는 상대인물들의 격을 높이고 적대적관계에 있는 부정인물의 격도 응당한 높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작품은 무엇보다도 수령님을 보좌하는 측근인물들의 성격이 응당한 수준에서 격이 높게 형상되었다.

작품에는 김책, 홍명희, 최용건, 남일, 최현 등 수많은 측근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다 뚜렷한 개성을 가진 성격으로 형상되면서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한 참다운 충신의 전형들로 형상되고있다.

전선사령관 김책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화된 충실성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생활들이 여러 측면에서 강조되고있지만 특히 그가 결사의 각오를 안고 서해안의 방어임무를 받고 떠나가는 장면은 매우 감동적이다.

김책은 자기의 신변호위를 위해서 장군님께서 보낸 호위차가 나타났을 때 호위병들을 엄하게 추궁하면서 전쟁이 어려운 때일수록 장군님을 더 잘모셔야 한다고, 조국과 인민의 운명, 나라의 흥망이 장군님에게 달려있다고, 이것은 우리가 명심하여야 할 신념이라고 절절하게 타일러줌으로

써 장군님의 호위원들이 더는 따라서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충성심이 절대화된 신념으로 되고있는 형상은 참모장 남일에게서도 발현되고있다.

그것은 그가 대기중인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선지휘용 특별열차에서 기관차를 떼내어 위생열차에 보냈다는것을 알고 강부관장을 엄하하게 추궁하는 생활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작품에서 형상된 최현의 충신다운 면모는 특별히 이채롭다.

작품은 한생을 무장으로써 수령님을 옹호하고 보좌한 참다운 충신인 그의 변함없는 충실성을 투박하고 무뚝뚝하면서도 인정이 더없이 깊은 기질적특성과 결부시켜 참으로 개성적인 성격으로 부각하고있다.

일시적인 전략적인 후퇴의 명령을 받자마자 고장난 차들을 다 버리도록 조처한 자기네 참모장을 꾸짖으면서 터뜨리는 분노는 버릇처럼 굳어진 그의 신념화되고 생활화된 충성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

《어느새 동문!... 그러도 빨리 구겨지다니!... 이보! 참모장, 우리 장군님께서 후퇴를 명령하셨을적엔 그 길이 바로 승리하는 길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야 할게 아닌가. 왜 흔들리는가, 엉?... 장군님께서 가르치시는대로만 하면 백번 싸워 백번 다 이긴다는 신념이 있어야 돼. 알겠소? 죽으나라나 이 신념만은 흔들려선 안돼!...》

간첩암해분자인 리승엽이 군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장군님의 명령을 5시간이나 어겼다는것을 알았을 때 불같은 분노를 터뜨리는 최현의 형상은 그야말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생활화한 충신의 귀감임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용서치 않을줄 아오! 그가 누구던지... 다시한번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놓고 흥정하거나 한치라도 어기면... 그자리에서 싸죽일테요!...》

수령님을 견결히 옹호하는 절대화된 충실성이 개성적인 성격속에 체질화되고있는 여기에 충신의 참다운 전형으로서의 최현의 형상이 가지는 의의가 있다.

이외에도 작품은 홍명희, 최용건, 허정숙, 강부관 등 수령님을 보좌하는 충신들을 품위있고 참신한 개성으로 격이 높게 형상하고 그들의 시점에서 느끼는 강한 심리적충격의 개방으로써 수령님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 이바지하게 하고있다.

작품에서는 적들의 형상을 창조함에 있어서도 회화하거나 왜소화함이 없이 력사적으로 실재한 현실적인 인간들로 재현하고있으며 놈들의 패망상을 통하여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가 어떻게 불품없이 부서져나가고 놈들의 패배가 어찌하여 불가피적인것으로 되였는가를 사실주의적으로 밝힘으로써 수령님의 위대성을 힘있게 반증하고있다.

작품은 미합중국의 《영웅》으로, 힘의 《상징》으로, 《자유세계》의 희망으로 불리우던 5성장군 맥아더와 미국 대통령 트루먼, 미제8군사령관 위커를 비롯한 미제의 거물급들을 등장시키고 그들이 전쟁의 걸음마다에서 참패를 겪으면서 자신들의 패배를 자인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군

사적예지와 탁월한 전략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사실주의적으로 펼쳐 보이고있다.

소설은 조선의 운명을 위협하며 속전속결을 꾀하던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전면모를 현실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것을 천재적지략으로 여지없이 타승해나가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통하여 주체철학에 기초한 사상과 리념의 위대한 승리, 뛰어난 군사전략과 예지에 의한 빛나는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것을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밝혀냈다.

여기에 이 작품이 거둔 성과의 중요한 한측면이 있다.

작가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방대한 력사적 사실을 집적하였을뿐만아니라 우리 독자들이 알지 못하는 실재한 인물들의 생활로정, 중요한 력사적 사건들을 생동하게 재현함으로써 력사문헌적가치를 더욱 풍부하게 하였다.

작품은 또한 구성의 립체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재적인물들과 함께 새로운 인물선들을 수많은 설정하여 인간관계들을 빈틈없이 짜고 지선과 부선들을 기본선에 유기적으로 맞물리고있으며 치밀한 묘사와 철학적이고 감성적인 대사형상, 주정도로와 박력있는 서술, 극성을 발현시킬수 있는 치밀한 감정조직 등 문학작품창작에서 쓰이는 형상수단과 수법들을 종합적으로 잘 활용함으로써 수령형상장편소설로서의 예술적인 풍격과 무계를 훌륭히 담보하고있다.

소설문학의 고유한 특성인 묘사의 견지에서도 일련의 특성을 나타내고있는바 그것은 문제가 매우 간결하고 박력이 있으며 전쟁시기의 생활반영에 어울리게 속도감이 나게 씌여지고있는 점이다.

작가는 현대인의 미감에 맞게 속도감을 보장하고 예술적정서의 강렬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표현력이 강한 어휘들을 선택하고 간결한 단순문으로 엮어나감으로써 작품을 읽을 맛이 있게 하고있으며 독자들의 마음을 흥미있는 이야기속에 숨쉴이게 끌어들이고있다.

작품은 또한 수령형상작품의 고유한 생리에 맞게 양상을 밝고 승엄한것으로 되게 하고있다.

전쟁시기, 그것도 일시적인 전략적후퇴시기를 묘사하면서도 인간들의 심리를 무겁고 어두운 빛갈로 채색하지 않고있다.

이것은 수령은 혁명의 희망찬 미래를 밝혀주는 위대한 태양이며 인민을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으로 인도하는 구심점이기때문에 인민은 자기의 수령을 언제나 밝고 승엄한 감정으로 대하게 된다는 형상원리로부터 출발한것이다.

하기에 소설은 우리 력사에서 생사운명을 판가리하는 가장 준엄한 생활을 반영하고있지만 무겁고 어두운 형상을 거의나 찾아볼수 없다.

장편소설 《조선의 힘》은 수령형상작품의 고유한 생리를 살리려는 작가의 진지한 탐구와 사색, 피타는 노력에 의하여 심오한 철학이있고 수령님의 위대성이 집중적으로 구현된 사상예술성이 높고 풍격이 담보된 우수한 총서작품으로 창작되었다고 긍지높이 말할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하여 지성과 그 정서적체험이 수령의 위대한 인간세계를 구현할만한 높이에 접근하고 수령형상작품의 고유한 생리를 잘 살리는 작가만이 후손만대에 길이 전할 수령형상작품을 창작할수 있다는 귀중한 교훈과 경험을 찾아낼수 있다.

물맛이란 참...

리억철

나는 전사
첫 행군길 험치 않아라
달아오른 목에선 쇠비린내...
잔등이며 이마에선 구슬땀
숨소리마저도 거칠어지누나

쉽없이 달려가는 천리행군길
충을 맨채 배낭을 맨채
나는 엎드려 마셨네
바위틈에 솟는 샘물 한모금
아, 그만에야 심장은 쫓-

가슴속에 시원스레 흘러드는 산천의 물맛
어쩐지 행군길의 병사 나에겐
딸기덩쿨에 뒤덮이었던
고향의 그 샘물맛인듯
이시린 물에 풀어

어머님 정히 떠주던 꿀물맛인듯

진정 총잡은 병사 아니고야
그물맛의 진미를 어이 다 헤아리라
내 조국을 위해
진하게 땀흘린 자격으로
기꺼이 마시는
한모금 산천의 물맛이란 참...

아, 그 물맛을 모르고야
고향의 향취
조국의 소중함을 내 어이 다 알라
열일곱살 전사 나는 안고간다네
산속의 이름모를 샘줄기
자기몸의 피줄기처럼
생을 준 어머니의 젖줄기처럼

화선당세포결정서

- 한 사단참모장의 수기중에서 -

전창철

《그래, 그 동무들이 래달까지 방어공사를 끝내지 못하겠다는 리유는 뭐니까?》

내가 이렇게 따지고들자 금방 공사장을 들려온 작전과장은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갑자기 말을 더듬었다.

《그건... 우선... 운수기재가 딸린답니다. 역에서 세멘트 한차를 실구... 공사장까지 가구나면 뭘 세멘트값보다 휘발유값이 더 나간단가요. 헛참, 그리구... 씨원히 한개 중대만이라두 훈련에서 뺏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렇다?! 그게 공사를 책임진 참모동무 의견이란말이지요.》

나는 허전해졌다. 그가 아무래도 전번 당결정이 무엇을 요구했는지 잘 깨닫지 못한것만 같았다. 따르릉! 전화종이 울렸다. 정문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내게 면회를 왔다는것이였다.

회의는 퇴근시간이 빠듯해서 끝났다.

밖은 뭉뚱다. 찬바람이 쐬 일더니 운동장 한복판에서 뽕안 눈보라를 푹푹 일구어가지고서는 타래를 지으며 산골짜기로 우우 밀려갔다.

나를 찾아온 사람은 이곳 영예군인공장 초급당비서 리형소였다. 털모자의 귀덜개까지 내리워쓴 형소는 나를 보자 얼싸안을듯 팔을 벌리고 절뚝거리며 달려왔다.

《공연히 나때문에 방패가 뺏겼구만.》

《별말씀을... 전화라두 하구 떠날게지.》

《부산스레 전화는 무슨... 좀 고장나긴 했어두 이 <11호차>가 제일이지요. 굴러날 녀려두 없구. 허허!》

나는 그의 손을 끌었다.

《우리 집으로 갑시다.》

《갑시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 집으로 가야 합니다.》

그는 막무가내였다. 미리 작정하고 온터라 종내 내가 지고말았다.

쌀알같이 여문 씨락눈이 이리저리 바람에 물리우며 우리의 얼굴을 때렸다.

형소의 집에서는 뜻밖에도 나의 안해와 그리고 만득자로 태어난 웅석반이 막내딸이 나를 기다리고있었다. 나는 눈이 둥그래서 형소를 쳐다보았다.

《놀라긴. 재 귀빠진 날두 까먹구 다니는 사람이 참모장은 어떻게 하는지 원.》

부대정문에만 들어서면 나는 수백수천 병사들의 존경받는 지휘관이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체소하고 얼굴이 주글주글한 이 리형소와 마주서기만하면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든다. 땀히데 없는 구리빛얼굴이며 평생 가야 남한테 싫은소리 한마디 해낼것 같지 못한 어리무던한 그의 작은 눈동자를 마주하느라면 어쩐지 나는 나의 존재가 무색해지면서 몸다루기가 부자연스러워졌다.

나는 옷방으로 올라갔다. 그리고는 나들문 벽면에 걸려있는 소박한 사진액틀에 마주섰다. 이 집에만 들어서면 버릇처럼 마주서게 되는 액틀이다. 전쟁때 사진이 두어장, 저네 가족사진이 한장, 그리고는 나의 두 아들과 막내딸의 백날사진들... 우리 집 사람과 찍은 결혼사진, 우리 가족과 저네 가족이 찍은 가족사진들... 전탕 우리 집 식구들의 사진들이다.

배양 그러하듯 이 볼품없는 수수한 액틀이 그 무슨 불덩이기라도 한듯 나의 가슴을 뜨겁게 덥혀주었다. 그에겐들 여기에 꽃아넣을 친척들과 친지들의 사진이 좀많으랴!

형소는 설날이라든가 명절때면 제먼저 무얼 잔뜩 궁져가지고 우리 집에 찾아오기도 하고 또 지금처럼 나를 끌어내기도 하였다.

나는 나에 대한 리형소의 이런 류다른 관심이 단순히 우리 둘사이가 인간적으로 가깝다거나 친분이 두텁기때문이 아니라는것을 잘 알고도 남음이 있다.

어느때부터인가 그는 나에 대한 동지적의무를 실행하고있었다.

×

맨처음 나의 눈에 비쳐든 리형소의 모습은 참으로 파묵하고 웃을줄 모르는 사람이였다. 남들이 와-하고 배를 끌어안고 웃으며 돌아갈 때라야 겨우 한쪽 입귀가 벌글썩했다. 상대방이 먼저 말을 걸어오기전엔 천상가야 그는 먼저 입을 여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래 부소대장이 놀려주느라 《형소동무어머닌 그 입자릴 잘못잡았어. 좀더 올리쫘든가 내리쫘든가 해야 할걸!》 하는바람에 한바탕 웃음가마리에 든격도 있었다.

언젠가 내가 《상등병동지, 모표답개 좀 없습니까?》하니까 그는 대답대신 받으려는 염소마냥 모자쓴 제머리를 내 코앞에 기울여대는것이였다. 거기에 있으니 어서 쓰라는 뜻이다. 《엿소!》라는 한마디 대답조차 아까왔던모양이였다.

또 한번은 까맣게 기여오르는 적을 상대로 한

창 숨가쁜 격전을 치르는데 나에게는 그만 탄알이 떨어졌다. 덤벼치느라 망탕 날려버린것이다.

울상이 되어 분대장을 눈더듬질하는데 무엇인가 전호턱에 툇하고 떨어지는것이 있었다. 탄알쌈지였다. 알쌈 날아온쪽으로 피끗 눈길을 돌리니 형소가 마치 죄라도 지은 사람마냥 슬그머니 나에게서 눈길을 떼며 적을 찾아 총을 겨누고있었다. 《자! 여기 있소. 어서 받으라구!》하는 한마디 말조차 싫었던모양이다.

그는 모든것을 말없는 조용한 눈길로 세세히 살폈고 입보다 먼저 손발이 앞서는 사람이였다.

그러던 어느날, 나에게 편지 한장이 날아왔다. 고향마을사람의 이름으로 보내온 편지였다. 서툰 글씨로 주소를 쓴 갈죽한 그 얇은 봉투속에 그렇게도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슬픔이 담겨져있으리라고는 감히 생각지 못했다.

불구였던 아버지뚱까지 대신해서 잘 싸우고 오라며 그렇게도 다심하게 당부하던 어머니가 하루아침 미국놈 폭격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다.

편지를 움켜쥐며 나는 뿌드득 소리가 나게 이를 갈았다.

눈앞이 캄캄해왔다. 어머니, 아버지의 웃는 얼굴들... 그앞에서 응석부리던 생각... 이제는 그다정한 모습을 두번다시 볼수 없게 되었다는 생각... 그리고 학원으로 데려갔다는 하나밖에 없는 너동생이 어머니를 부르며 밤마다 울 생각을 하니 날카로운 파편덩이가 들어왔든듯 가슴은 쓰리고 아팠다. 하루아침에 나는 우울한 사람으로 변해버렸다. 웃기도 싫었고 말하기도 싫었고 오직 원수값을 생각밖에 없었다...

불행한 소식이 날아온지도 그럭저럭 이틀이 지나갔다.

금방 또 한차례의 격전을 치른뒤 무너진 전호를 파울리고나서 전호벽에 기대어 땀을 들이는데 누군가 나의 어깨를 건드렸다. 돌아다보니 온몸에 물통들을 주렁주렁 둘러맨 취사원이 손에 든 물통두개를 쑥 내밀며 은폐부쪽으로 눈길질을 하였다.

《한차례 치르자마자 회의를 할래기에 출출할거야. 시작하기전에 제격 갖다주라구. 내용이 있는 물이야.》

은폐부에는 방금 회의를 위해 당원들이 모이고있었다. 내가 늘 동경과 호기심으로 바라보기만 하던 회의장을 직접 볼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물통을 들고 내가 은폐부안에 들어섰을 때는 먼저 도착한 대여섯명의 당원들이 둘러앉아 무거운 낮빛으로 조용조용 이야기들을 나누고있었다. 그러다가 나를 보고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이 금시 얼굴색들을 고치며 밝은 눈빛으로 나에게 말없는 인사들을 보내왔다. 다만 한사람, 우리 분대의 리형소상등병은 친근감보다도 놀라움이 다

분한 눈길로 나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원래 그런 사람이거니 하고 생각해보면 별로 타낼것도 없었다.

나는 오늘도 그때의 그 회의장이 눈앞에 삼삼하다. 더러는 탄약상자우에, 더러는 맨 땅바닥에 빙 둘러앉은 당원들, 가물거리며 조용히 타고르던 등불, 책상대신 두어개 포개놓은 탄약상자우에 책을 펴놓고 수수펜대(수수대에 펜촉을 꽂은)로 무엇인가를 적어넣던 세포위원장...

구체적으로 그 회의에서 어떤 문제들이 토의되었는지 나는 몰랐다.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이제 곧 있게 될 굉장히 큰 전투와 관련된 중요한 회의라는것만은 알고있었다.

그러나 그보다도 내가 그때 꼭 알았어야 할것을 나는 전혀 모르고있었다. 물통을 들고 들어섰던 바로 그날 회의에 나-장호림의 문제가 별도로 상정되었으며 리형소가 바로 내 문제와 관련된 토론을 하였었다는것이다. 회의가 끝난후에도, 전쟁이 끝날 때까지도 누구도 그것을 내게 얘기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전쟁이 끝나 내가 별을 단 후에야 나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서 그 회의록을 직접 볼 기회가 생겼다.

회의가 있는 날 저녁식사때부터 리형소는 내앞에 갑자기 판사람이 되어 나타났다.

식사때 돼지고기가 몇점씩 차려졌는데 내옆에 앉아 밥그릇을 받아든 리형소가 제것을 내 밥그릇우에 옮겨놓았다.

《아마 우리 어머니 날 열달을 마자 못채우고 낳은 모양이야.》

《예?》

《네발고기만 배속에 들어가면 두드러기가 나거든, 흐흐!》

나는 그가 그렇게 소리내어 웃는것을 처음 보았다. 그것이 신기해서 나도 썩 웃어버렸다. 그후에도 돼지고기가 오를 때면 그는 늘 내게 없어주었는데 나는 정말 그가 네발고기를 못먹는줄 알고 사양도 없이 레사롭게 받았다.

저녁밥을 먹은 내가 불시에 동생생각이 치미는 바람에 슬그머니 사람들 틈을 물러나는데 담배를 꼬나문 형소가 왜 그러는지 히물히물 웃으며 내 곁으로 다가왔다.

《호림동무, 내 좀 조용히 물으게 있는데...》

나는 정색해지는 그의 얼굴을 여겨보며 그와 나란히 앉았다. 식사를 끝낸 전사들 몇이 우리옆에앉아 담배들을 피워물었다.

《뭘니까?》

《똥고 하니... 거 입대전에 집에서 닭을 쳐봤어?》

《아니요.》

《그럼 모르겠구만.》

《뭘말입니까.》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본전두 못찾을 소릴

괜히... 입만 아프게...》

그리고는 맛스레 담배를 빨았다.

《뭘니까?》

나는 속이 쓰여났다.

《뭐 특별한건 아니야.》 하고 형소는 덤덤한 표정으로 담배만 피웠다. 나는 그가 아예 입을 다물어 버릴가봐 조바심이 났다.

《뭘니까?》

내가 하도 절절하게 묻자 그는 히죽이 웃었다.

《다른게 아니라... 거 닳이 밤에 잘 때 다릴 들구자는걸 봤지?!》

《예, 봤습시다!》

《바루 그거말이요. 그렇게 한다릴 들구 장바서서 자자니 오죽이나 불편하겠나말이요.》

나는 형소의 물음이 어디에 가닿을지 몰라 어리둥절해졌다.

《사람들처럼 포대기는 못깎망정 척 누워라도 자면 얼마나 좋겠나말이요. 해대우에 올라가 그것두 불편스레 한다리쟁일 들구 자니 그걸 모르겠다 이거야.》

단순하고도 어딘가 천진스럽기까지 한 물음이었으나 나는 선뜻 대답이 떠오르지 않아 궁뎥거리다가야 얼추 대답했다.

《거야 뭐... 발이 시리니까 교대루 덤히느라 그러겠지요뭬.》

대답해놓고보니 그럴듯한것 같아 나는 벌썬 웃었다.

《발이 시려? 여름에두? 흐흐흐! 틀렸어! 틀렸어!》

와-웃음이 터졌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던 한 전사가 끼어들었다.

《그건... 오... 개새끼라든가 삶과 같은 짐승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 오... 경각성을 높이느라구 그러니다.》

《침략》이라는 말때문에 또 한바탕 폭소가 터졌다.

《흐흐흐! 비슷하다고 볼순 있는데 틀렸어! 호림이, 모르겠어?》

《모르겠습니다.》

《아, 그것두 몰라?》

형소는 피우던 담배를 비벼끄고나서 불쑥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는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차, 이런 성화라구야! 정 모르겠어? 두다릴 다들면 해대에서 떨어질게 아닌가. 그런것두 몰라?》

나는 어처구니가 없어 《애-》 하며 잡았던 그의 옷자락을 놓고말았다.

《흐흐흐!》

《하하하!》

전사들은 내꼴이 우스웠던지 배를 끌어안고 돌아갔다. 어처구니가 없어 나도 허허 웃고말았다.

하지만 형소가 급작스레 변했다는데 대해서는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하였다.

드바쁜 전투의 정황속에 틈만 있으면 나에게게 접어들어 《못살게 구는》 리형소와 전우들의 후더운 부대깁속에 나는 점차 본래의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을 다시 찾기 시작하였다.

세포회의가 있는지 나흘후에 중대에서는 배속되어온 두명의 공병전사들을 포함한 다섯명의 땅크습격조가 조직되었다.

누구나 바라면서도 아무나 들어설수 없는 그 책임적이고도 영예로운 대오속에 뜻밖에도 리형소와 함께 나도 들어설수 있었다.

땅크습격조의 훈련이 한달동안이나 맹렬하게 진행되었다.

×

떠나는 날부터 내리던 비는 런 이틀째나 출출내렸다. 전선을 넘어 적구 백여리어방까지 헤매던 우리 땅크습격조는 사흘째 되는 날 새벽무렵에야 끝짜기에 교묘히 들어박혀있는 땅크들을 들춰냈다. 반땅크지뢰와 반땅크수류탄, 폭약파위들이 들어있는 목직한 배낭들을 풀어놓고 아홉대의 땅크를 눈깜짝할새에 하늘로 날려보내고나니 우리의 기쁨은 하늘에 닿았다. 강행군으로부터 밀려들던 피로도 다 같이 하늘로 홀 날려갔다.

그러나 위험은 앞에 있었다.

땅크를 잃은 수백의 적들이 이골짜지골짜에서 쏟아나와 우리 다섯전사에게 덤벼들었다. 땅크값이라도 받아내자는 심산인지 놈들은 악을 쓰고 다 쫓아왔다. 아무리 달라도 적아간의 거리는 곧에 달린 돌맹이처럼 벌어질줄 몰랐다.

놈들이 우리의 통로를 깰새채지 못하게 하느라고 우리는 두 방향으로 달렸다. 나와 리형소는 목적지와는 정 반대쪽인 서남방향으로 달렸다. 간신히 산 하나를 넘어섰다. 이젠 한숨 돌리는가 했더니 마디에 웅이라고 푸른 강줄기가 막아섰다.

물에 들어서면 나는 돌맹이 한가지였다. 그래서 형소더러 너죽고 나죽고 한바탕 족치는게 어떠냐고 했더니 그는 내 마음을 짐작했던지 《죽긴 왜죽어.》 하며 무작정 나의 팔을 끼고 물을 향해 달렸다. 겨우겨우 강북판에나 들어섰을가 했는데 물위에 총탄이 날아오기 시작하였다.

형소는 나를 옆구리에 낀채 푸푸거리며 힘겹게 헤엄쳐갔다.

문득 나는 강한 쇠뿔뿔이여라도 얻어맞았을 때처럼 어깨박죽이 시큰해났다. 그다음 모든것이 꿈속처럼 아득하게만 여겨졌다. 물소리... 총소리... 총소리...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가? 나는 다시 희미하게 정신이 들기 시작하였다. 구름을 타고왔듯 모

든것이 편안하다.

나는 가고있었다. 누군가의 잔등에 업혀 가고 있었다. 이상스러운것은 나의 손에 울퉁불퉁한 자갈이며 나무등걸, 풀포기들이 스쳐지나는 것이었다.

한참만에야 나는 나를 업은 사람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여간다는것을 알았다. 왜 그럴까? 적정인가? 조용한데...

-누굴까?-

검푸른 새벽빛속에 모자쓴 머리가 보인다. 땀 흐르는 목이 보인다. 팔을 앞으로 쭉 뻗치더니 풀포기를 우악스레 거머쥐었다. 그리고는 가까스로 몸을 끄당졌다. 다음팔을 또 내밀어 바위면 바위, 나무면 나무 아무것이나 손에 걸리는대로 그것에 의지하여 힘겹게 몸을 당기는 것이었다. 이 사람도 아마 어디엔가 부상을 입은 모양이다.

죄스러운 생각에 나는 잔등에서 내리려고 몸을 움직였다. 그러다가 그만 칼로 쿡 찌르는듯한 어깨아픈때문에 신음소리를 내며 고개를 떨구었다.

《호림이!... 호림이!... 정신이 들어?》

목소리입자는 형소였다. 그는 가쁜숨을 헐떡거리며 기기를 멈추었다.

《좀 쉬었다 갈까?》하며 형소는 조심스럽게 나를 땅에 내려놓았다.

나도 리형소도 하늘을 향해 나란히 누웠다. 누고싶어 누운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에게도 일어나 앓을 기력이 없었던 것이다.

하늘에는 어둠이 채 가는지지 않았다. 그러나 희붉히 들리기 시작한 하늘을 조용히 바라보고있더라니 한결 정신도 맑아지고 아픔도 멎는 듯싶었다.

나는 형소가 어찌고있는지 보고싶어 슬며시 고개를 돌렸다.

형소는 눈을 감은채 반듯이 누워있었다. 허나 가슴은 심하게 오르내리었다.

큰 말개미 한마리가 형소의 귀를 거슬러 코잔등으로 벌렁벌렁 기여오르고있었다. 그놈을 잡으려고 나는 팔을 뻗었다.

《놔두지 뭐.》

《?》

《이놈두 아마 체편은 아는모양이지?》

《개미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알길래 입을 가지구두 물진 앓구 간지럽히기 만하지?》

창망중에도 나는 픽 웃고말았다. 그도 감았던 눈을 뜨며 빙그레 웃었다.

《아과?》

《아니요.》

《아프겠지. 조금만 참으라구.》

《여기가 어디쯤입니까?》

《강기슭에서 썩 멀리 오진 못했소.》

《그래요?! 그럼 아직 전선까지는...》

성한 몸으로도 힘든 그 멀고 험한 길을 이런 상태로 안되겠다는 실망이 엄습해오는바람에 나는 말꼬리를 흐렸다.

《좀 멀지.》

《꽤 가낼가요? ... 이래가지구...》

《그거야... 마음먹기탓이지.》

《...》

그다음 말이 없었다. 나는 침묵이 싫었다.

《상등병동지, 아버님은 무슨 일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 글썄... 저세상에 가서 무슨 일을 말아하는지. 허허!》

《...》

《아버진 왜정때 일본놈들한테 맞아죽구 어머니와 두 동생은... 후퇴때... 인민군후방가족이라구 미국놈들이 우물에... ...그래 결국 우리 집엔 나하구 내 그림자가 남았을뿐이지.》

그다음 또 그는 입을 다물었다. 어디선가 꽤 먼곳에서 따깡따깡하는 총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무어라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싶었으나 적당한 말을 고를수가 없었다.

《내 옛말 하나 해줄까?》

형소가 이번엔 먼저 입을 열었다.

《옛말이요?》

《글썄 옛말이라 해야 할지... 하여간 들어보라구.》

형소는 조갈이 저 터실터실 갈라터진 입술을 혀를 내밀어 추기고나서 거뭇한 하늘과 주고받듯 떠염떠염 답답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어느 한 화학공장에말이요. 동무나 나처럼 새과랑게 젊은 사람이 창고장으로 일했다네. 공장에서 좀 신임하던것 같애. 그러길래 창고장을 시켰겠지?》

한데말이요... 이 공장 자재과장이라는자가 반동놈에게 매수된 나쁜놈이었던말이요. 이놈이 음으루 양으루 쏠라닥거렸다.

이런 때 공장에 오래전부터 내려와있던 한 과학자가 인민생활에 크게 기여할 큰 발명을 했더랬소. 무슨 촉매제라든가... 몇년만에 했다는만. 그 발명품이 바로 그 젊은이가 일하는 창고에 납입되었네.

과장놈이 이걸 노렸지. 암만해두 틈이 나실 않아 놈은 아예 창고를 불사를 마음을 먹었지. 창고장이야 그 검은 속심을 알턱이 뭐야.

어느날 저녁이였네. 퇴근길에 올랐던 창고장이 소설책을 두고 온 생각이 나서 얼른 뛰여가 창고문을 열고 그걸 꺼내가지고 왔다네. ...아, 왜 이리... 숨찰가?

...한데 일이 참 애매하게 되였네. 그날밤에 창고에서 불이 일었거든.

발명품은 불에 타고 사무실금고에 들어있던 실험테타까지 없어졌네. 공장은 법석 끓었지.

과장이란자가 입에 게거품을 물었네.

<이건 고의다! 공장을 파괴하고 발명을 말아먹자는 창고장의 고의다!>

이러면서 그 근거를 꼽았네. 첫째로, 불이 이는 날 남들이 퇴근한 뒤에 창고장이 급히 창고안에 들어갔다 나오는걸 제눈으로 똑똑히 왔다는것, 둘째로, 창고자물쇠는 불이 붙을 때도 덩그렇게 채워져있었다는것이였네. 그러면서 자기는 원체 창고장을 탐탁치 않게 여겨왔는데 창고장이 수직 수직 일을 잘한건 뭐 자기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미봉책일수도 있다는거요.

<사람을 결만 봐선 참 모르겠군.>, <그렇게 일 잘하던 사람이 반동일줄이야...> 하며 공장이 술렁댔소.

청년은 눈앞이 캄캄했소. -이젠 다구나! 반동 혐의를 받은 나에게 구원의 손을 뻗칠 사람이 어디 있을텐가!-하구 생각했네. 자기의 청백을 아무리 호소했다야 변명처럼 들릴가봐 아예 입조차 다물었소.

드디어 판결을 내릴 시각이 왔소. 공장지배인, 당위원장, 부지배인들 그리구 당사자인 창고장과 증인인 자재과장, 사건을 담당한 내무원, 그날 경비했던 아바이... 지배인사무실이 터질듯 모였네.

할 말들을 다했소. 그러나 역시 자재과장의 말이 제일 무게가 있고 날이 섰소. 사고심의에서는 자료와 근거가 기본이니까.

<더 달리 생각하는분은 없겠지요?>

내무원이 책을 덮었소. 이제는 모든것이 끝났소. 그저 범조항에 따라 재판기관에 넘기는 일만이 남았소.

이때였소. 한사람이 불쑥 일어섰소. 당위원장이었소.

모두들 눈이 동그래서 그의 말을 기다렸소.

<내무원동무, 솔직히 말해서 사고와 관련하여 얻어진 증거앞에서 난 할말이 없소. ...하지만... 왜 그런지 난 그렇게 생각하고싶지 않소. 저 사람은 절대루 그럴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는 안될 사람이란말이요, 고의적으로 그런짓을 했다니 믿어지질 않소. 저 사람은 내가 잘 아오!>

당위원장은 흥분을 가라앉히느라 한동안 말이 없었소.

그 말이 너무 고마와 그는 눈물이 핑 돌았소. 사람들도 안도의 숨을 내쉬었소.

자재과장이 당위원장의 말을 가로챘소.

<그건 저나 여기 앉은 모든 사람들의 심정입니다. 아니라면 작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남다른 인연을 과학적증거의 우에다 올려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동무야 누구보다도 범죄의 흑백을 정확히 가려야 할 책임적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당위원장은 한참만에야 입을 열었는데 그는 단 열흘이라도 좋으니 말미를 달라고 요구했소. 사

고를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이 자기에게도 있다는 것이었소... 아 숨차군...

...그래 ...결국 한달후로 사건처리를 미루게 됐지...>

어느덧 하늘이 푸름하게 열리기 시작하였다. 형소가 문득 총을 잡았다.

《너무 지체했군. 또 가볼가?》

형소는 나를 업으려 하였다.

《싫습니다. 내절루 가겠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보려니 형소의 모색은 말이 아니었다. 우묵하게 꺼진 눈확, 피발진 눈,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 두드러진 광대뼈... 하루 밤사이에 판사람이 돼버렸다. 그꼴로도 나를 업겠단다. 나는 막무가내로 뻔쳤다.

《갈수 있어? 혼자?... 좋아, 가보자구.》

그러나 나는 갈수가 없었다. 팔을 쓸수가 없었다. 조금만 힘을 주어도 숨이 막히는것 같았다. 할수없이 나는 다시 리형소의 등에 업혔다.

리형소는 기기 시작하였다. 웅덩이... 바위... 물창... 자그마한 둔덕 하나를 기여서 넘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뭘?... 오... 옛말.》

형소는 가쁘게 숨을 토클고나서 말을 이었다.

《어떻게 됐겠나... 스무달만에 자재과장놈의 정체를 까밝히구 실험데라도 찾아냈지. 반동놈은 그후에 잡구...>

그 짧은이사는 사건이 까밝혀지는 날... 술한 사람들이 모여선 앞에서 당위원장을 부둥켜안고 엉엉 울었다네. 당위원장도 너무 기뻐 눈을 습벅이데. 그자리에 있던 술한 사람들이 모두 울었소. ...아, 왜 이리 맥이 빠질가...>

이야기는 끝났다. 풀썩을 기여가는 부스럭거리는 소리, 높아지는 형소의 숨소리만이 짙은 정적을 조용히 흔든다.

《그 창고장이 상등병동이지요?》

《나? 나란말이요? 그걸 어떻게?...>

《상등병동진 지금 울구있지 않나요.》

《엠클하다구야... 아... 줌... 천천히 갈가...>

형소는 동안을 두었다가 다시 이었다.

《웁네. 그게 바로 날세. 그 일이 있는 다음부터 난 누가 무슨 소릴 하든지간에 당에서 하라는대로만 했지...>

군대에 나오는 날 그 당위원장과 헤어지자니 정말 섭섭하데...

하지만 공연한 걱정이었어... 그런 당위원장은 어디 가나 있었거든... 아 숨차.》

《좀 쉬었다 갑시다.》

《쉬긴... 천천히 가면... 괜찮아. 아프지 않아?》

《아니요.》

리형소의 팔꿈치며 앞자락은 나를 업고 가느라 다 해졌다. 팔을 내밀 때마다 허연 면내의, 빨긴 살이 그대로 드러났다. 돌뿌다귀를 쥐고 가까스

레 몸을 끌어당기며 리형소가 내 이름을 나직이 불렀다.

《호림동무.》

《예?》

《호림이두 이젠 열여덟이야. 작은 나이가 아니지. 호림동무두 이젠… 당원이 될 준비를 해야지…》

마치 무엇에 놀라기라도 하듯 나의 심장은 세차게 놀뛰기 시작하였다. 쿵당거리는 심장의 박동소리가 몸밖으로 흘러나오는것 같았다.

《…》

나는 대답을 못했다. 당원이란 그 이름은 아득히 높은, 아직은 내가 바랄수 없는 그런곳에 있다고만 생각하였었다.

《듣나? … 싫은가?》

《예-예? 그야 뭐… 나같은게 어떻게…》

《못하는 소리가 없군. 당원은 뭐 특별한 사람이던가? …그것두 마음먹기 달렸지. 지금 호림이가 땅크를 까구… 부상당하구두 용기를 잃지 않는것두 다… 당에 대한 충실성이지…》

형소의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나를 잔등에서 떨구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며 기여갔다.

《그런데… 꼭 하고싶은 말은… 다 좋은데 의지가 좀 약해…》

호림이, 내 말을 명심해들으라구… 누가 누구를 하는 이 전쟁에서 우리 전사들의 그 누구에겐들 슬픔이 없겠나. 부모를 잃구, 형제를 잃구… 처자들을 잃구… 집을 잃구… 공장을, 학교를 잃구…그 많은 사람들이 다 호림이처럼 맥을 잃으면 미국놈과는 누가 싸우겠나. 이 땅은 누가 지키겠나?…

부모는 없었어두 우리에겐 장군님이 계시고 당이 있질 않나!…》

어디선가 문득 부스럭소리가 들렸다.

나도 형소도 그것을 들었다. 들은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꼈다.

귀를 강구었다. 조금 사이를 두었다가 다시 우리의 뒤쪽 그리 멀지 않은곳에서 와시시 풀썩을 헤치는 소리가 났다.

금시까지 맥을 못추던 리형소는 어디서 그런 힘이 솟구치는지 벌떡 일어나 총을 들고는 잘가닥- 격발기를 당겼다.

풀썩을 노려보는 형소의 눈에선 불찌가 흘렀다. 그렇게도 힘악한 표정을 비로소 처음 보았다.

그러던 그는 어찌된 일인지 《아, 저기…》 하며 나를 보고 히죽이 웃다가 총을 떨구며 털썩 땅우에 쓰러졌다.

나는 보았다. 잔술을 해치며 다가오는 사람들… 앞가슴의 자동총… 붉은별… 낮익은 얼굴들…

전우들이 형소가 땅을 적시며 흘린 피자국을 따라왔다는것을 나는 동무들의 품에 안겨서야 알

았다. 업혀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리형소였던 것이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나는 리형소를 다시는 만나지 못하였다. 사단군의소로부터 그는 또다시 먼먼 후방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그후의 소식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다가 전쟁이 끝난지 아홉해만에 나는 뜻밖에도 《대대장동무에게!》라고 사회주소로 보낸 형소의 편지를 받아보았다. 그 아홉해동안 리형소가 나를 찾기 위해 띄운 편지가 수백통이 넘을것이라는 이야기는 형소의 안해의 입을 통해 들었었다.

우연이라 할가 아니면 어쩔수 없었던 생활의 필연이라 할가… 내가 이곳 사단참모장으로 임명된지 두해가 지나 형소가 이곳 영예군인공장 초급당비서로 부임되어왔다.

하여 리형소는 편지로만 쏘아보던 나와 우리 가정에 대한 애정을 이렇듯 아낌없이 기울여주는 것이다.

나의 눈앞에는 정전직후 전승기념관에서 보았던 잊지 못할 전쟁시기 세포총회결정서 마지막조항이 금시련듯 눈앞에 삼삼하다.

《…여섯째로, 민청원 장호림동무가 집생각을 하지 않고 락천적으로 살며 싸우도록 도와줄것을 리형소동지에게 위임한다.》

물론 나는 오늘날까지도 변함없는 나에 대한 관심이 그때의 그 세포결정을 실행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형소의 깨끗한 가슴속에는 준엄한 나날에 받아안았던 당세포의 결정이 지울수 없는 깊은 흔적으로 새겨져있으리라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는다.

창밖에는 눈보라가 여전하다. 타래치는 연기마냥 휘휘 흩날리는 눈보라에 잠겨 뿌옇게 형체만 알리는 아득한 산발들이 전화의 그날을 부디 잊지말라고 말없이 속삭여주는상싶다.

당의 명령이라던 물속도 불속도 주저없이 뚫고 달려가던 그때처럼 살고있는가? 리형소처럼 살고있는가?

그래, 나는 그날을 잊고있다. 것처럼 살지 못하고있어 .

불현듯 자동차가 부족하고 훈련강령이 빠듯해서 공사기일을 보장하기 힘들다던 한 참모일군의 보고가 떠오른다.

나는 그 일군이 회의정신을 잘 모른다고 생각했지? 그럼 나는 알고있는가? 당조직의 결정이라면 죄를 버리듯 타고난 성미마저 다스려가던 리형소처럼 일할 각오가 되어있는가?… 되었다면 내가 세운 대책이란 무엇인가? 참모장은 그저 시키거나 하고 재촉이나 하고 추궁이나 하면 자기의무를, 당원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수 있는가?… 내가 참모동무의 립장에 서서 생각해본적이 몇번

이나 되는가?...

방문이 열리며 리형소가 올라왔다.

《시인같은! 그렇게 박아놓은 말뚝처럼 멍청히 서있지 말구 내려가자구. 여긴 사무실이 아니야.》

형소의 따뜻한 손길에 이끌려 나는 아래방으로 내려갔다. 소박한 식사가 펼쳐졌다.

형소의 인해와 무슨 이야긴지를 재미나게 소곤거리다가 입을 가리우며 소리없이 웃는 안해, 《큰 엄마! 나 거기 앓을래》 하며 까불대는 딸... 흠잡을데 없는 한집안이다.

《차린건 없어두 많이 들라구.》 하며 형소가 돼지고기편육이 담긴 접시를 내앞으로 끌어당겨주었다. 돼지고기를 보니 불시에 그 생각이 떠올라 나는 부러 시치미를 떼며 물어보았다.

《아직두 네발고기를 못먹습니까?》

《네발고기?!》

형소는 내가 알고 물어보는지 아니면 아직도 진짜 모르고 묻는것인지 가슴이 가지 않아 기연미연한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다가 내가 간신히 웃음주머니를 참는것을 보고서야 어깨를 들썩거렸다.

《하하하! 이젠 배웠어. 배우기가 영 힘들더군. 하하!》

나도 형소도 마주보며 웃는데 웃으려니 그때 일이 생각나서 눈망울에 물기들이 번들거렸다.

두 녀인이 그리고 나의 딸애는 우리가 왜 웃는지도 모르고 그저 좋다고 까르르 웃어댔다.

고향에 들어다오

-한 해외동포녀성이 부른 노래-

김련실

낮설은 이역의 밤하늘가에
휘영청 둥근달 은은한 빛을 뿌릴 때면
못견디게 못견디게 그리워지는
내 고향

뉘라서 천리길 멀다더나
마음은 벌써 고향집에 닿았는데
저 달빛 내 고향 바다가마을
함께 비쳐주고있으려니

다박솔 우거진 고향마을
가을이면 지붕을 뒤덮던 호박덩굴
내 울며 떠날 때 발목을 휘감던 잔파도
사무치게 안겨오는 고향의 향취여

머나먼 타향살이 배전에 오를 때
내 손에 동전 몇잎 쥐여주며
토스레 치마자락으로 눈물 흠치던
늙으신 어머니는 무고하신지

내 귀밑머리 희여지는 오늘에조차
저 남해가에 홀로 계신 어머니
그 젖픔에 안겨 어리광치는
동요시절의 꿈 얼마나 꾸었던가

그리움에
기다림에

쓰린 가슴 부여안고
언제까지 수난자의 피눈물만 흘릴수 없어

내 왔노라
고향으로 가는 길 찾기 위해
통일을 위한 민족대단합의 마당
범민족대회장으로

고향으로 가는 길은 통일
어머니를 만나는 길은 통일
이 가슴에 쌓인 소원 푸는 길이 통일이여서
이 길에 한몸 다바치려는 이 마음

정녕 통일은
《하느님》이 베풀어줄 《혜택》도 아니기에
그 누가
자비로 안겨줄 《선물》도 아니기에
너와 나 우리 겨레 손잡고 모두 일어나
민족대단결의 뭉친 힘으로
분단의 장벽 짓부시고
통일의 길 열어나가리니

그 길에서 이 한몸 쓰러진대도
내 낮은 살아 고향의 노래 안고가리니
진할줄 모르는 나의 노래를
고향아 들어다오 들어다오

문학작품창작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를 구현하는것은 우리 문학 발전의 절박한 문제

김영송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선민족으로 태어난 사람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지녀야만 우리 나라, 우리 겨레를 위하여 한생을 참되고 보람있게 살수 있으며 죽어서도 영생할수 있습니다.》

조선민족제일주의는 민족의 녀트로 숨쉬고 혁명과 건설에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근로자들과 운명을 같이하는 문학의 항구적인 주제이다.

당과 혁명에 이바지하는 문학, 조국과 인민을 위한 우리 문학은 마땅히 민족에 대한 존엄의식과 긍지감으로 인한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세차게 불타지 않으면 안된다.

조선민족으로 태어난 사람은 언제나 자기 조국인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심장을 불태워야 하며 그해야 자기 민족의 존엄을 한생을 다하여 지켜갈수 있다.

조선민족제일주의를 구현하는 우리 문학은 희망과 승리에 대한 신심만이 차넘치는 문학이다.

우리 인민이 지닌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자부심이며 주체의 조국에서 살며 혁명하는 자량이다.

오늘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혁명하는 민족적 긍지이며 자부심이다.

우리 인민은 이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승리와 영광의 길을 확신성있게 충성으로 걸어나가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주체조국의 끝없는 영예와 민족적존엄을 끝없이 빛내여주고계신다.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이 모든 영예와 행복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존함과 직접적으로 잇닿아있으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시고 나아가는 길에서만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의 끝없는 영예와 자량이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신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 우리 인민이 간직하고있는 민족적자존심의 핵을 이루고있으며 이것을 깊이있게 반영하고있는 여기에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주제로 하는 혁명적작품의 사상예술적높이와 그 혁신적특성이 있다.

문학작품창작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형상한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자부심과 긍지를 격동적으로 노래한다는것을 의미하며 당과 수령이 마련하여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 살며 일하는 끝없는 감격과 기쁨, 신념과 투지를 노래한다는것을 말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칭송의 사상감정이 깊이있고 진실하게 형상될수록 조선민족제일주의 구현문제는 그만큼 심화되며 형상의 철학적심오성이 담보된다.

당과 수령을 형상한 거의 모든 작품들에서 주인공들이 체험하는 끝없는 감격과 기쁨, 행복감이 우리 시대 인민들의 민족적긍지와 자량과 조화롭게 융합되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수령형상에 바쳐진 총서《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과 많은 단편소설들의 주인공들과 수령을 노래한 시문학에 등장하는 모든 서정적주인공들이 체험하는 사상정신세계에서 가장 주도적인 자리를 차지하는것이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살며 일하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이었다.

최근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지니고 다부작예술영화《민족과 운명》을 조선영화의 대표작으로 만들데 대한 당의 의도를 훌륭히 실현해나갔다.

다부작예술영화《민족과 운명》은 조선영화의 일굴이라고 할수 있는 대표적인 영화로 되였다.

다부작예술영화《민족과 운명》에 체현되어있는 조선의 녀은 다름아닌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가 제일이고 우리 사회주의조국과 우리인민이 제일이라는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이다.

영화에서는 최현덕, 차홍기를 비롯한 곡절많은 인생행로를 걸어온 주인공들의 생활을 통하여 조선민족된 긍지와 자부심을 지니지 못한 사람은 기필코 나라와 겨레를 배반하고 반역의 길, 치욕의 길을 걷게 되며 비극적인 운명을 면치 못한다는 진리를 실감있고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우리 수령, 우리 당, 우리 인민과 우리 사회주의조국이 제일이라는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다부작예술영화《민족과 운명》에 일관되어있는 기본사상이다. 바로 이것이 조선의 녀이며 조선의

넛을 집중적으로 체현하고있는 여기에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이 조선영화의 얼굴로 되는 근거가 있다.

가요 《내 나라 제일로 좋아》도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이 훌륭히 구현된 노래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가사 《내 나라 제일로 좋아》는 조선민족제일주의가 진한 노래라고 하시며 이 노래는 생활도 있고 철학도 있는 참으로 훌륭한 명가사라고 하시었다.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넓어도 내가 사는 내 나라가 제일로 좋다는 심오한 사상은 해외동포들뿐 아니라 우리 인민모두가 느끼는 한결같은 감정이다.

참으로 가사는 소박하면서도 생활적으로 정서 깊고 절절하게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심오하게 노래하고있다.

조국의 귀중함과 이 조국의 품에 안겨사는 인민의 끝없는 긍지와 자랑이 얼마나 절절하게 안겨오는가. 여기에는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살며 일하는 우리 인민의 끝없는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이 깊은 서정속에 절절히 노래되고있다.

이것은 우리 문학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주제가 무엇보다도 당과 수령의 위대성에 대한 주제와 하나로 잇닿아있는 주제라는것을 웅변적으로 말하여준다.

당과 수령의 위대성은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끓어번지는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날게 하는 원천이며 영원한 생명수이다.

우리 문학은 무엇보다도 당과 수령의 형상을 통하여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의 빛발아래 승승장구하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긍지를 깊이있게 보여 주어야 한다.

단편소설 《아리랑》(김원중)은 민족자주의식과 인민에 대한 사랑을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 계시며 우리 민족의 력사와 문화유산을 통해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지켜나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영상을 깊이있고 심오하게 형상하고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사랑의 빛발속에서 생을 누리며 혁명하는 우리 민족의 영예와 긍지는 끝없으니 참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민족이 제일이고 우리 조국이 제일인것이다.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주제로 하는 작품창작에서 나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그리는것이다.

그것은 민족의 위대성은 그 민족의 지도사상에 의하여 규정되기때문이다.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은 인류사상사발전에서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될뿐아니라 우리 시대와 미래 사회인간들이 지녀야 할 가장 혁명적인 세계관으

로 되기때문이다.

우리 작가들은 작품창작에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구현하면서 무엇보다도 민족의 위대성을 떨치게 하는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의 위대성을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묘사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한다.

우리 문학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구현하는 문제는 혁명적수령관을 핵으로 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인생관 주체의 생명관에 대한 심오한 예술적해명과 깊이 련관되어있다.

우리 인민의 이 높은 사상정신적품격을 떠나서 그들이 지닌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진실하게 밝힐수 없으며 그 본질적특성을 옳바로 리해할수 없다.

위대한 주제사상으로 살며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깊이있게 묘사하는것은 참으로 조선민족제일주의주제를 인간학적견지에서 깊이있게 밝힐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 작가들이 작품창작에서 또한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구현하는데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깊이있게 그리는것은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주제로 하는 작품들에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것은 우리 인민이 주체의 조국에서 살며 일하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생활적으로 구체적인 정황과의 통일속에서 진실하게 보여주며 형상의 생동성을 보여 주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우리 작가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훌륭히 보여주면서 그것을 우리 인민의 민족제일주의정신과 결합시킨 다양한 작품을 창작함으로써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예술적해답을 주어야 한다.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주제로 한 작품창작에서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형상적으로 밝히는것은 주인공의 성격을 진실하게 창조할수 있게 하는 근본조건으로 된다.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주제로 하는 작품창작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이 문제를 인간문제와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는것이다.

이 량자의 조화로운 사상예술적결합만이 조선민족제일주의라는 커다란 주제가 철학적으로 깊이있고 심오하게 밝혀질수 있으며 추상성이 극복되고 완벽한 형상이 이루어질수 있다.

조국에 대한 사랑,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는것은 참다운 인간의 량심과 의리에서 오는 가장 아름다운 사상감정이다.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체현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인간전형은 그 형상의 생리로 보아 조국의 경외에서 다른 나라 인민들과의 관계속에

서 선명하게 드러날수 있다.

그러나 우리 작가들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일하며 살아가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사상정신적특질을 민족들과의 관계속에서만 보여주려고 하는 일면성을 또한 극복하여야 한다. 자기것을 무시하고 남의것만 쳐다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는 밑빠진 사대주의자들, 교조주의자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주체형의 인간들을 진실하게 그려야 한다.

로동자일수도 있고 농장원일수도 있고 지도일군일수도 있는 이 다양한 인간들의 심장속깊이 자리잡고있는것은 혁명적수령관이며 자주식,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이다.

우리 작가들은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체질화한 이 다양한 인간들의 형상을 생활적으로 다양하게 진실하게 과보여주어야 한다.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주제로 한 작품창작에서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가진 우리 민족의 자랑을 형상화하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때문에 력사물창작을 조선민족제일주의주제와 밀접히 결부시키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여기서 우리 민족은 력사의 유구성과 이룩해놓은 물질문화적재부의 풍부성에 있어서 세계의 그 어느 나라 민족보다 못하지 않은 우수하

고 슬기로운 민족이라는것을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문학이 내세우는 조선민족제일주의를 구현한다는것은 결코 민족주의를 내세운다는것이 아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살며 일하는 우리 시대 인간들이 편협한 민족주의를 할수는 없는것이다.

우리 문학이 내세우는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작품에 구현하는것 그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신념으로 삼는 주체형의 인간성격의 창조이며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정신과 민족적자부심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우리 식대로 해나가기 위해서이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구현한 작품창작은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성격을 더욱 다양하고 풍부하게 펼쳐보일수 있게 함과 동시에 우리 문학의 전투적기능을 그만큼 높이게 한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작품에 구현하는것은 오늘 우리 문학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문제이다.

우리 문학은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더 깊이 구현하여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우리 혁명에 더 잘 이바지하여야 한다.

수필

레사로운 날의 생각

최성진

위대한것, 대단히 진귀하거나 아름다운것을 놓고도 사람들은 그것의 진가를 인차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창문가에 놓여진 화분의 꽃을 보면서도 흔히 사람들은 그 꽃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다가 날이 흘러가는 과정에 문득문득 《아! 참 곱구나!》, 《꽃색같이 독특하군!》 하고 새삼스럽게 생각하는것이다.

레사로이 흘러가는 저녁이다. 방송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있다. 이제는 해외에 사는 우리 동포들과 지어 외국인들까지도 즐겨 부르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라는 노래이다. 거리를 오가다가도, 텔레비죤수상기앞에 앉아있거나 학교앞을 지나다가도 흔히 들을수 있는 노래여서 어느덧 귀에 익고 몸에 밴 노래이다. 들으면 들을수록 민족적감정이 절절하게 안겨오고 조국에 대한 끝없는 사색을 불러일으키는것이어서 이 노래를 듣느라면은연중《노래란 참 좋은것이로군》 하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하여 자신도 모르게 노래를 따라부르게 되고 그러느라니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 나오는 기쁨진 화폭들이 눈앞에 선히 떠오른다.

우리 영화사에 특기할 자랑으로 되는 이 다부작예술영화! 이야기의 폭과 그 철학적깊이에 있어서 심원하기 그지없는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한부한부가 완성되어 세상에 나올 때마다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그런데 만사람을 더욱 놀래운것은 단순히 이 영화가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때문만은 아니다. 방대한 생활용적을 담고있으며 심오한 철학적사색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이 영화가 단 몇줄밖에 안되는 한편의 가요에서 태어났다는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어느 누가 가요 《내 나라 제일로 좋아》가 세상에 나왔을 때 이 노래의 가치를 다 리해했으랴. 노래를 지어낸 작가나 작곡가도 이노래에 담겨진 심원한 뜻을 다는 미처 몰랐을것이다.

보석은 빛을 뿌리기마련이다. 정말 가요 《내 나라 제일로 좋아》는 그 통속성으로 하여 그리고 우리 인민의 진실한 감정과 절실하고도 깊이있는 사상을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세상에 나오자마자 인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노래로 되었다. 사람들은 노래가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를 두고 저마다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하면서도 이 한편의 가요에서 세계영화계에 빛을 뿌리는 다부작예술영화가 태어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노래 《내 나라 제일로 좋아》를 가지고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을 만들어야 하겠다고 가르쳐주시었다.

한편의 노래를 가지고 다부작예술영화를 만들 데 대하여 가르쳐주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실로 이 영화가 세상사람들을 격동시키는 걸작으로 완성되어 나온것은 어느 재능있는 창작가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성과가 아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을 만들도록 하시고도 영화창작의 나날에는 이 영화를 걸작영화로 만들기 위해 창작가들이 찾아내는 대사 한마디, 배우들의 연기하나를 두고서도 귀중한 가르치심을 수없이 주시었다는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들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빛나는 예지와 불면 불휴의 령도가 있어 《민족과 운명》은 영화예술의 극치를 이루는 성과작으로 되어 세상에 나온 것이다.

위대한 령도자의 빛나는 예지와 령도예술에 대하여 생각해본다. 그러면 스스로 이런 물음을 제기하게 된다. 우리의 어버이이시며 스승이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천리혜안의 예지와 령도력은 어디에 그 시원을 둔것이기에 놀라운 기적을 안아오는것인가? 하고.

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안아오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령도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들은 수없이 많다. 심각한 결함이 있던 작품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단어 하나, 표현하나를 가필해주시여 명가사, 명시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작곡가들이 지어낸 수백편, 아니 수천편의 곡을 다 들어보시고 단번에 골라주신 가곡의 주제곡이 후세에 길이전할 명곡이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아직은 세상에 전해지지 않은 이야기만해도 그 얼마이라.

나는 언젠가 한 건축가를 만난적이 있다. 마침

퇴근시간이 지난뒤여서 우리는 나란히 수도의 거리를 함께 걸었다. 파아란 물위로 유람선이 떠가고 주체사상탑앞의 분수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솟구쳐오르는 대동강의 풍경, 멀리 락랑벌에 성곽처럼 일떠선 통일거리의 초고층 살림집들은 수정으로 다듬어세운듯 눈부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민족성과 감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귀중히 여겨주시는분이요, 그분께서는말이요, 우리들이 창작적 고민과 진통기를 겪으면서 점 하나 선 하나를 그려서 완성한 설계안들을 보아주실 때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민의 사상미학적요구와 감정을 잘 반영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곤하오.》

대동강의 장쾌한 분수를 바라보며 열정에 넘쳐 말하던 건축가-그는 자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몸가까이에서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곤하는 일꾼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인민》, 《우리 인민》하시며 그 《우리 인민》의 사상정서적 감정을 잘 반영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고 하던 건축가의 말은 의미심장한것이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 그이의 예지와 령도의 비범성에 대하여 그 시원에 대하여 사람마다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을것이다.

그런데 나는 건축가의 심정을 담아 이렇게 말하고싶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예지와 령도의 비범성은 우리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에 시원을 둔것이라고.

우리 인민의 사상정서적 감정과 지향을 누구보다 잘 아시며 우리 인민의 민족성을 누구보다 귀중히 여겨주시는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위대한 령도의 결실을 낳는것이다.

바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라는 노래에 담겨진 우리 인민의 감정과 지향을 누구보다 귀중히 여겨주시였기에 이 한편의 노래에서 대결작영화창작의 길을 내다보신것아니겠는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주체의 시대를 빛내여가는 우리 인민은 오늘도 행복하지만 래일은 더욱 창창하다.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조선민족이 제일이라는 생각이 이밤도 가슴을 끝없이 부풀어오르게 한다.

수필

덕의 흐름

양의선

새집에 이사온 이튿날이다.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니 안해가 낫모를 중년부인과 마주앉아 오손도손 무슨 의논을 하고있었

다.

그들 사이에는 갖가지 문양고운 유리그릇들이 놓여있었다.

《파르스름한 색깔이 좋지 않아요? 접시가 정말 하고 시원해보이구...》

《글쎄요. 전 그런데... 우리 세대주는 밝은 색깔보다 무게있는 색깔을 더 좋아하시기에...》

《그럼 노을빛나는 이걸 고르세요.》

두 녀자는 그릇들에 너무 정신이 팔려 내가 들어선 줄도 모른다.

그렇지도 했다. 희한한 유리제품들이었다. 저녁 형광등불빛에 유리고뿌며 접시, 크고작은 그릇들이 잘 세공된 단면들의 빛을 보석처럼 뿌리고있었다. 부엌치장을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멋지게 할까 원심을 쓰며 안달아하는 아낙네들한테는 보기만해도 탐나고 매혹할 물건들이었다.

허나 나는 그런 생각보다 갓 이사온 우리 집을 가정용품들을 들고 찾아준 손님이 누굴까 하는 호기심이 앞섰다.

옛날부터 우리 나라에는 누구네가 새로운 고장으로 이사를 간다던가 새살림을 잡을 때는 친척이나 친우들이 살림살이에 요긴한 물건들을 사들고오는 아름다운 풍습이 있다. 하지만 녀인은 분명 내가 늘 보던 처제도 아니요 안해의 직장동무들도 아니었다.

(누굴까?)

그제야 안해가 나를 띄어보고 반색을 했다.

《때마침 당신이 오셨군요. 인사하세요. 여기 서강공업품상점 판매원동무예요.》

《아! 그렇구만요. 이렇게 집까지 찾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가슴이 몽클해남을 금치 못하며 이렇게 말했다. 녀인도 자리를 일어 미소를 머금고 인사를 했다. 그 소박한 모습을 바라보는 나의 가슴엔 아지 못할 환희로움이 그득차올랐다. 솔직히 말해서 어느 친척친구가 왔든것보다 더 기뻐했다.

이사온 새집을 처음 찾아준 손님이 상점판매원이었다. 이 순간 나는 지금 상업부문에서 《정춘실운동》이 한창 벌어지고있는 때이니... 하는 생각도하였다.

허나 그것만이 아니었다. 판매원녀인의 소박하고 참된 모습에서 나는 사회적운동속에 움직이는 직업적인 인간의 모습만이 아닌... 주부라 할까, 보다 가깝고 친숙한 영상으로 안겨왔다. 안해와 함께 유리그릇을 끌라주고있는 살뜰하고 단아한 모습...

판매원이 돌아간 뒤에도 안해가 수정같은 유리그릇들을 불빛에 이리저리 비쳐보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할 때 나는 그보다 더 휘황한 영상앞에 깊은 명상에 잠겨 서있었다.

우리 당에서 《정춘실운동》을 발기한 때로부터 한해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운동의 생활력은 이렇게 매 가정의 부엌살림에까지 따사로운별이 되어 비쳐들고있지 않는가.

그 다음날은 식료상점에서 《우리 가정수첩》을 들고와 늙은이로부터 갓난애에 이르기까지 이름을 적어갔고 밥공장에서 집식구들의 생일까지 적어갔다. 생일이 언제인가를 알아봤다가 차떡, 송편, 설기떡 등 갖가지 음식들을 알맞춤 차려가지

고 온다는것이다. 말하자면 구역관내의 모든 상점 봉사기관들이 하루이틀사이에 우리 한가정의 주부가된셈이다.

많은것을 생각케 하는 현상이다.

오랜 세월 인류는 덕에 대하여 많이 운운해왔다. 명망있는 통치자, 정치가들의 덕망과 배성들의 어진 마음에 대하여... 하지만 어느 시대, 어느 세기에 단 한번만이라도 전인류적인것은 물론 어느 한 사람도 나라의 기장을 덕으로 세워본적은 없다. 피라미트나 에펠탑은 세울수 있었어도, 전승의 탑이나 나라와 민족의 위업을 자랑하는 수많은 기념탑은 세울수 있었어도 덕의 탑만은 세우지 못했다. 왜? 어째서?... 덕은 마음속에 세워지는것이다. 수천수만년의 년륜을 새긴 거대한 건축물들은 나라의 경제력과 인력, 판권을 총동원하여 세울수 있고 전쟁의 위훈도 지략과 총포의 위력으로 얻을수 있다. 허나 덕은 경제력으로도 법과 형벌로써도 총과 대포로써도 세울수 없다.

덕이란것은 보이지 않으면서도 가장 광휘로운 위치를 차지하려는 존재이며 무게로 가늠할수 없으면서도 가장 복잡하고도 심오한, 공고한 기초를 요구하는것이다. 덕이 깃들고자하는곳은 매개 사람, 민족, 인류의 심장이다. 인류의 기본을 덕으로 본 우리 조상들도 얼마나 안타까이 통절하게 덕을 부르짖고 호소하고 얼마나 많은 책자를 써냈던가. 어제와 오늘, 어느 나라 어느 대륙, 어떤 제도와 정치체제에서도 이룩할수 없었던 인류의 위업이 우리 나라에서 완성돼가고있다.

《정춘실운동》, 바로 이 운동도 사랑과 은정과 덕망의 대하이며 그 흐름이다. 수령과 지도자의 대해같은 덕망이 있고 그것을 신념으로 믿고 따르는 인민이 있어 일심단결의 대교향곡속에 성장하고 전진하는 심장들의 공동이고 키돋움이다.

수천수만년 인류력사상 이룩하지 못했던 인류의 대업을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성스러운 기치밑에 대중을 불러일으키고 위대한 령도자의 덕망을 태양과 같은 자양분으로 받아들이며 오직 그 해빛아래서만 진정한 행복과 삶을 향유할수 있다는 필생의 체험과 믿음, 신념으로 받아안은 인민의 호응에 의하여 거세차게 흐르고 솟구치는 운동이며 탑이다. 일년전엔 북방의 산간지대 상업관리소 소장이였던 정춘실이 가 오늘은 열, 백으로 늘어나 천만을 이루며 래일은 온나라의 매대와 일터마다를 이룰것이니 그 서로의 믿음과 사랑과 보살핌속에서 우리의 생활은 얼마나 행복하고 활기차게 꽃피날것인가!

수정빛 도는 유리그릇들을 찬장에 올려놓으며 행복에 겨워하는 안해의 모습을 보며 이 자그마한 가정의 진짜 주부가 당신뿐만아니라 온 나라라는 가슴부부는 흐뭇한 생각을 함께 나누고싶어 나는 끝내 참지 못하고 정겨운 목소리로 《여보!-》하고 부른다.

웃으며 돌아보는 안해의 눈빛과 온 얼굴에 비낀 행복이라는 그 광채로 하여 어딘가 한결 더 고와진듯이 여겨진다.

우리는 당의 군대

김영길

총을 떠난
병사가 있을수 없듯
당이어
그대를 떠난
군대를 생각할수 있으라

혁명의 총대를 억세게 잡고
천만리 이어가는
대오를 이끌어
불패의 무력으로 키워준
위대한 당이어

총이면
항일의 불길속에 버려진 총을 주고
넋이면
백두의 피끓는 넋을 준 우리 당

그대는 우리에게 주었어라
수호의 성새되어 이 땅을 안아지킬
불굴의 투지와 기개를
폭풍우도 불구름도 뚫고 헤칠
무비의 담력을

그대 준 슬기와 지략을 지닌
우리 무력은 일당백
그대 준 용맹을 지니여
하늘 땅 바다위에
철의 대오는 번개치고 우뢰치노라

아 한없이 숭고한 뜻과 의지
피와 숨결도 다 주어
강대한 혁명무장력으로 키워주고
금별을 수놓아가는 앞길에
영광의 축복도 안겨준 당이어

그대는
순간도 떨어저선 못살
우리의 운명
그대의 령도는
우리 혁명무장력의 생명!

만약 그대를 떠나
그대의 령도를 잃는다면
생의 젓줄기를 잃은듯
맥박치던 혈맥은 끊어지고
천만심장은 순간에 멎으리

아아 정녕
총으로 시작되고
총으로 수호되는 혁명의 길우에
백전백승의 사령관인
당의 령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가 없다면
천만의 총대는 있어 무엇하랴

투쟁의 이 진리
무장력의 이 좌우명을 새겨안고
당의 손길아래 백배로 강대해진
장엄한 철의 숲이
폭풍쳐 설레이며 웨친다 웨친다

당이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이시여!
우리는 그이만을 알고
그이만을 따르리
그이의 령도만을 생명으로 안고 사는
우리는 당의 군대!

세상에 지구를 깨뜨릴 힘 있다 하여도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불패의 이 신념 안고
우리 혁명무장력은
무적의 힘과 존엄을 떨치나니

휘몰아치는 비바람 광풍 속에
하늘땅이 흔들린다 해도
우리의 총대는 흔들림없이
영원히 당을 옹위하리라
당이어 그대의 령도가 있어
우리 혁명무력은 필승불패이어라

다시 출발지점에서

1

2월에 접어들자 해별은 한결 부드럽고 따뜻해졌다. 설계작업실 창문으로 흘러든 해빛은 책상 위의 도면을 어루만지듯이 빛나고있었다.

설계용책상 하나만이 남향벽면에 아담하게 놓인 방안은 언제나와 같이 정갈하고 조용하다.

서해광산 청년광구 책임기사 안상길은 벌써 여러날째 이 도면우에 정력을 쏟아붓고있었다.

지금 그는 종이우에 그어지는 연필소리만을 흥겹게 들으며 사색을 몰아가고있다.

서선지구 갈철광산들에 그 매장량이 풍부한 고질광석(이 광산에서는 별명으로 짜드레기라고 한다.)의 사별을 위한 기술혁신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의 자국이 찍혀졌는가. 정말 그 자국마다에는 광업부문의 술한 연구사, 기술자들이 남긴 모멸과 수치감이 그득히 고여있는것이다.

상길이기도 대학을 졸업하고 첫 사업으로 사별시험에 달라붙었다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물러선채 어언 10여년의 세월을 흘러보내고말았다.

그런데 3대혁명소조원 정운숙에 의하여 지난날에 남긴 이 《수난》의 자취를 지워버리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것도 물에 의한 사별방법으로 될수 없었다던 일부 사람들의 가정을 물리치고 짜드레기광석의 품위를 훨씬 높여놓은것이다.

이리하여 광산에서는 짜드레기를 다른 고품위광석과 배합하여 제철소에 보낼수 있게 되었다.

(짜드레기가 제철소 구경을 하게 되다니... 허결국 개천에서 룡 난셈이지...)

상길은 설계도면우에서 아롱거리는 해빛의 조화에 눈시울을 좁히며 허리를 폈다.

창턱에 놓여있는 진달래꽃병이 유난히 눈길을 끌었다. 활짝 피어난 진달래는 봄의 정취를 한껏 돋구었다.

그 진달래는 며칠전에 3대혁명소조원 정운숙이가 가져다 꽂아놓은것이다.

상길은 진달래꽃을 코밑에 가져다대고 마음껏 심호흡을 하고싶은 충동을 안고 창턱으로 다가섰다. 그바람에 눈앞에서 누런 반점이 아물거리며 현훈증을 일으켰다.

그러나 상길은 그것마저 유쾌하게 감수되어 몸을 한껏 늘कु며 기지개를 켜다.

이번 기술혁신은 운숙소조원이 성공한 습식방법과는 달리 광석사별에서 물을 쓰지 않고 마찰에 의하여 선별하는 새 착상에 기초하고있다.

그러나 상길이가 이 기술혁신에 달라붙기까지에는 참으로 착잡한 사연이 있었다. 그것은 소조

원의 성공을 부정하고 그것도 10여년전에 자기가 착상했던 건식사별을 시작해야 했기때문이었다.

지금도 상길은 불안과 망설임으로 모대기던 그때의 일을 잊을수 없었다.

...그날도 상길은 퇴근길에 윤숙이와 만나 함께 걸었다.

날씨는 매우 쌀쌀했다. 한낮에 질퍽이 녹았던 길바닥이 다시 얼어붙었다.

발밑에서는 얼음버께 부서지는 소리만이 야단스럽게 울리고있었다.

《참... 책임기사동지, 왜 이 좋은 광석을 짜드레기라고 할까요?》

윤숙은 도도룩한 이마에 잔주름을 잡고 곱게 휘어진 눈썹밑에서 시물거리는 눈동자를 반짝이였다.

상길이에게는 의외의 질문이었다. 그래서 첫순간 말을 떼지 못하고 소조원의 손에 쥐여진 광석을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그는 이 광산에서 10여년나마 살아왔지만 아직 이런 질문을 제기해보지도 못했다.

그런데 윤숙은 수리직장 소조에서 청년광구에 옮겨온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광구의 하나의 사물을 두고도 이렇듯 범상히 대하지 않는것이였다.

한동안 길바닥에서 얼음버께 부서지는 소리가 더욱 술가워졌다.

상길은 자기를 빠급히 바라보며 대답을 기다리는 소조원을 외면한채 말없이 걸었다.

한참 궁리에 음췄던 그는 헛기침을 돌구었다.

《...내가 이 광산에 왔을 때 이미 짜드레기라는 별명으로 불리우고있었소. 그건 아마... 기술혁신에 붙었던 사람들이 실패를 거듭하던끝에 모멸감을 면해보려고 짜드레기란 별명을 붙인지도 모르오. 나도 실패했을 때 그 별명에 공감이가더란 말이요.》

《아유, 그러니 패배자의 한숨소리라고 하는것이 더 적합하겠군요.》

《허...소조원동무, 요즘은 누구의 입에서 나왔던지... 짜드레기를 1년나마 물에 담고어두었는데 두 진흙껍질이 풀리지 않아 짜드레기처럼 애를 먹인다는 낱말까지 떠돌고있소. 그러니 그런 별명이 붙을만도 하지요.》

《저두 1년나마 물에 담고어봤어요.》

《으음. 그러면 소조원동무도 그런 낱말에 동감이겠군요?》

《글쎄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물에 담그지 않고 창턱에 놓은 광석은 열흘이 지나나마해

서 찰흙질깁데기가 풍화돼버리더군요.》

《허허, 10여년전에 나도 그러ру한 체험을 했었소.》

《그럼 책임기사동지두 이미 그때에 건식사별에 대한 착상을 했다는게 사실이군요? 전 얼마전에 그걸 알았을 때 기뻐서 어쩔줄 몰랐어요.》

윤숙은 걸음을 멈추며 손뼉을 쳤다. 벌써 그의 가름한 얼굴은 발기우리 상기되어있었다.

《그래서 건식사별을 추진시키자는거예요! 이젠 두사람이 한가지 착상에 도달했으니… 신심도 생기고 힘도 넘쳐요.》

《아니… 그건 무슨 소리요? 이제야… 짜드레기가 소조원동무의 습식사별의 성공으로 제철소 구경을 하게 되잖았소.》

상길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제야 그는 윤숙소조원이 자신을 건식사별로 유도하기 위해 별명의 출처를 들고나온것임을 깨달았다. 그런데 습식사별이 성공한 지금에 아무리 새 착상이고 두사람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해서 함부로 나설수 있겠는가…

《그럼 책임기사동지는 이 광석이 영원히 남에게 업혀살것을 바라시지는 않겠지요?》

《아…아 그런건 아니지만… 소조원동무, 광석품위 한두프로 올리가 어데 쉬운일이요… 그런것만큼 습식사별의 성공을 고착시키기 위해 빨리론문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렇수 없어요. 쇠돌품위를 더 올릴수 있는 좋은 착상을 묵여두고 저품위광석을 고품위광석에 업혀서 제철소로 보내는것은 죄악이예요.… 난 책임기사동지가 이미 건식사별의 착상을 얻고 있었다는것을 알고 무척 힘을 얻었어요.》

상길은 소조원의 말에 묵은 상처를 도려내는듯한 아픔과 함께 야릇한 흥분을 체험하였다.

사실 그것은 귀중한 착상이었다.

그러나 그때는 새 착상을 추진시킬만한 용단을 가지지 못하였다. 실패의 쓰라린 모태김속에서 주눅이 들어버린 상길에게 새 기술혁신을 내밀만한 담력은 생각할수도 없었던것이다.

그런데 윤숙소조원이 세월의 갈피속에 흔적도 없이 묻혀버렸던 지난날을 되새겨주고있지 않는가.

(소조원이 지지한다! 그때 저 소조원이 내곁에 있었더라면… 허나 그것은 죄다 지나버린 과거지…)

상길의 뇌리를 점차 휩쓸기 시작한 흥분은 금방 들추어놓았던 묵은 상처의 아픔으로 하여 다시금 사그러들었다.

초저녁의 푸릿한 하늘에 별들이 총총 내돌기 시작하였다.

상길은 별빛이 어리어 더욱 천진해보이는 소조원의 얼굴에서 눈길을 땔수 없었다. 더구나 지성이 스페이고 절절한 기대가 어린 그윽한 눈동자

에서 그는 여느때없이 친근감이 생겼다.

소조원의 눈은 빛났다.

《책임기사동지, 우린 어떻게 하나 건식사별을 해야 해요. 그래야 완전한 의미에서 이 광석은 자기의 수치스러운 오명에서 벗어날거예요.》

상길은 잠시 주춤했다.

《정 그렇다면… 소조원동무, 나한테 한가지 약속해주겠소?》

《뭐예요?!》

윤숙의 눈망울에 천진한 호기심이 반짝였다.

《…이번 기술혁신의 주인은 소조원동무고… 나는 보조원으로…》

《아니? 그건 왜 그래요. 내가 보조원이라면 몰라두…》

《아니요.》

상길은 강하게 도리를 저었다.

《문제는 든든한 이름이 주인이 되어 기술혁신의 중심에 서야 일이 잘되는 법이요.》

《호호, 좋아요. 둘이 같이하면서두 주인이 따로 있군요. 전 잘 모르겠어요. 누가 주인이든… 그렇지만 책임기사동지는 마음속으로 주인이라는 립장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저에게두 그걸 약속하죠.》

상길은 찢찢 소리내여 웃었다.

이렇듯 조심스럽게 건식사별에 끌려들긴 했으나 정작 이 일에 달라붙고보니 새 착상이 주는 량면과 희열에 상길은 모든 잡념을 고스란히 잊어버렸다.

그는 썸슴듯하는 왕성한 정력을 안고 일을 무섭게 내밀었다. 그리하여 오늘도 또 하루의 보람찬로동은 흥분속에 흘러가고있다.

문쪽에서 손기척소리가 났다.

문이 방싯이 열리며 해살이 금빛으로 부서진다. 그바람에 상길은 눈시울을 쏘프렸다.

문턱에 누군가 서있다.

《사색을 깨뜨렸군요.》

윤숙이가 실눈을 지으며 웃고있다.

《호. 책임기사동지, 내가 뭘 가져왔나 알아맞춰보세요.》

윤숙은 등뒤에 무엇인가 감추고선채 눈을 삼박이며 웃고있다.

《허허.》

《이것 보세요. 재미있지요!》

윤숙은 책상우에 무엇인가 툄렁 툄구었다.

오토기다!

책상우에서 오토기는 신이 난듯 동글동글한 몸체를 들까불며 기우뚱거린다.

《허허… 갑자기 이건 웬거요.》

《옥이에게 주는거예요. 성심언니는 의견이 많더군요. 먼저번 옥이 생일에 또 빈손으로 들어갔다면서요.》

상길은 그제야 딸의 생일에 빈손으로 들어갔다

가 얼굴을 붉혔던 일이 생각났던것이다. 하긴 작년 첫돌에도 금년처럼 같은 웅색을 당했지만...

《저... 그리고 성심언니는 정말 아까운 기술혁신안을 묵여두고있었던군요.》

《예?...》

상길은 첫순간 무슨 소리를 하는지 가늠이 가지않아 어안이 벋벋해졌다. 《이젠 성심언니가 무슨 기술혁신을 준비했던것마저 잊어버렸어요?》

《허, 언제 그런데까지 관심 둘새가 있습니까.》

상길은 일부터 능청을 부렸다. 모든것이 짐작이 되었다. 그것은 안해가 분석기사로 첫발자국을 떠던 처녀시절에 제기한 기술혁신을 넘두에 두고있는것이 분명하였다.

《전 무척 기뻐어요. 우리 건식사별의 후처리공정의 기술혁신안인데 적극 도와줘야지요.》

《허어... 저 뭐 됴직은 합니까?》

《아이참... 왜 안되겠어요.》

상길은 윤숙의 눈망울이 울통해지는바람에 얼굴에 담았던 느순한 웃음을 거두었다. 그의 안해 성심어도 대학을 졸업하고 한때 기술혁신을 제기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도 실패를 거듭하고 가정을 이룬다음에는 차츰차츰 열정이 식어버리고 세월의 흐름과 함께 망각의 갈피속에 묻어버리고말았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들고나온것이다.

그렇다면 안해는 낡은 도면우에 두툼히 올랐던 먼지를 털어 버렸단말인가?

《우리 집사람이 그것을 다시 시작하겠단건가요?》

《성심언니두 생각이 깊은가봐요. 그럴수록 우리가 적극 도와줘야죠.》

《예... 난 또 시작하겠다는줄 알았구만. 허허, 그건 젊은 혈기에... 기술자들은 누구나 한번씩은 겪는 <성홍열>이나 같은거지요.》

《아니? <성홍열>이라뇨?》

《허, 누구나 대학을 졸업하면 기술혁신에 달라 붙지요. 그러나 대부분이 실패를 거듭하다가 점차 자기직무에 묻혀버리거나, 특히 녀성의 경우엔 가정일에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허허. 그러니 <성홍열>은 아주 사망률이 높은 셈이요.》

《아유, 책임기사동진 어쩌면 그런 룡담을 서슴없이 할수 있어요.》

입술을 잘근잘근 씹고있는 윤숙의 눈망울에는 서운한 표정이 서려들고 눈자위는 불깃해졌다.

상길은 윤숙의 반응을 가늠해보면서 담배를 피워물었다.

사실 이 룡담속에는 얼마간의 진실이 담겨져있다. 연구기관과 달라서 현장에서는 자기직무에만 정열을 쏟아붓는것만해도 힘에 부치다. 더구나 조건이 잘 마련되지 않고 실패를 거듭하다가 물러나서 모멸감을 감수하기란 얼마나 괴로운가.

《정말 나도 소조원의 부추김이 없었다면 아직까지... <성홍열>에서 ...》

《아유 그만하세요.》

윤숙은 낯을 찡그리며 귀를 막았다.

《허허.》

《책임기사동지, 저는 그런 룡담을 다시는 귀에 담지 않겠어요. 성심언니는 분석실기사로서 아주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꼭 도와주자요.》

상길은 윤숙의 지꿨은 요구앞에 덤덤히 앉은채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담배연기를 피워올리며 연필방아만 쪼고있었다.

2

그날밤이었다.

상길은 밥상을 물리고 습관대로 담배를 피워물었다. 아래구들에는 깊은 잠에 든 옥이가 쉼근거리고있다.

아이의 머리맡에는 오토기가 잠자리를 지키는 보초병마냥 눈을 부릅뜨고있다.

윤숙이가 상길에게 주었던 그 오토기다.

어느덧 부엌에 나갔던 성심이 행주치마에 손을 문내며 방안에 들어섰다. 오늘밤따라 그의 행동이 몹시 조용하다.

《여보... 저... 》

《...?!》 .

상길은 안해에게 너그러운 눈길을 보내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는 안해의 주저가 충분히 이해되었다.

안해는 소조원의 부추김을 받고 기술혁신에 다시 붙었다가 실패하는 경우를 왜 생각하지 않겠는가. 더구나 아이를 가진 가정부인이 욕망을 앞세웠다가 뒤감당을 꽤 해낼수 있겠는지?

이런 매일수록 심사숙고하도록 도와주는것이 남편의 의무가 아니겠는가. 분석실에서 자기의 직무에만 성실하해도 힘에 부칠것이다.

상길은 바재이고있는 안해에게 동정이 갔다.

《오늘 윤숙소조원동무와 만났됐소?》

《네, 집에 왔됐어요.》

상길은 제 짐작이 맞았다고 생각되었다. 그는 안해의 아련한 모습을 살피며 헛기침을 돌구었다.

그런데 몸가짐을 웅색하게 가졌던 성심이 조심스럽게 몸을 세우며 책쪽에서 먼저 말을 걸어오는것이였다.

《요즘 건식사별에 착수했더군요. 어떻게 그런 일에 당신이 나서요?》

상길은 예상외의 말에 어리둥절해졌다. 안해의 말은 전혀 뜻밖이다.

그의 머리속에는 안해에게 서둘러 기술혁신에 술덤병물덤병 접어들지 말라, 가정부인이야 자기 직분에 성실하면 된다는 등 교훈적인 말을 준비

해놓고있는데 오히려 먼저 역습을 해왔다.

《소조원동무가 습식사별시험을 성공하기까지에 얼마나 고심에 찬 나날을 보냈는지 알지 않아요. 그리구 모두가 소조원의 성공을 치하해주고있는데… 당신 하는 건식사별은 소조원의 성공을 부정하는것으로 되지 않을까요?》

《아니…?》

상길은 자신이 무색해지고 억이 막혔다. 그는 목단추를 끄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도무지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중심을 가늠할수 없다.

《아니요, 습식사별의 주인도 소조원이고 건식사별의 주인도 소조원이요, 난 어디까지나 방조자요. 그러니 누가 누구를 부정하는것이 아니지 않소.》

상길은 창문가에서 물러서며 이렇게 내뱉듯 말하고는 고개를 돌리며 곱지 않는 눈길을 안해에게 보냈다.

성심은 얼굴을 숙인채 옥이의 포대기를 여며주며 침묵을 지키고있다. 한동안 옥이의 숨소리만이 고르롭게 울리고있었다.

《그리구 왜 당신은 윤숙동무의 소조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다는걸 생각 못해요. 이제 실패하는 경우 소조원동무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냥 떠나가게 되겠지요.》

《아니 그럼 내가 소조원의 명예를 말아먹는 일을 하고있단말이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오.》

상길은 안해의 말을 밀막아버렸다. 사실 그는 이렇듯 우격다짐으로 밀막아버리긴 했지만 안해가 새삼스레 깨우쳐준 진실만은 부정할수 없었다.

윤숙소조원의 소조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새로운 의미를 띠고 그의 골수에 파고들었다.

이 기술혁신이 순풍에 돛을 단것처럼 되어간다면 몰라도 어떤 애로와 난관이 겹쳐들지는 모르지않는가.

상길은 잠시 진정을 하고서 안해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건식사별이 실패한다고해도 소조원이 성공한 습식사별은 엄연히 남아있지 않소. 누가 뭐라고 하는 소조원의 성과는 영원히 존재해있을게 아니요.》

상길은 이렇게 목소리는 높였으나 도무지 안정은 할수 없었다. 어째서인지 남의 성과를 부정하고 나선것 같은 깨름직한 생각뿐만아니라 그로부터 벗어질수 있는 비난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귀에 쟁쟁히 울려오는것만 같았다.

《소조원의 성공을 공고화하기전에 건식시험사별을 추진시키는것이 어땠가… 소조원의 성과에 그림자를 던지는것 같아서 깨름직해요.》

《걱정마오. 소조원이 이룩한 창조물은 누구도 무너뜨릴수 없소.》

상길은 힘을 주어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을 담보할만한 기술적지표는 아직 완성되지 못했었다.

그에게는 이것이 또한 피로운 일이었다.

성심은 더는 대꾸하지 않고 머리를 숙여버렸다.

방안은 답답한 침묵이 흘렀다.

상길은 방안에 더 머물러있는것이 고통스러워 밖으로 나오고말았다.

사위는 어두웠다.

구름덮인 하늘에는 별빛조차 보이지 않는다. 바람이라도 시원히 불어왔으면 싶었으나 갑갑하도록 잠풍한 날씨였다.

상길은 뒤집을 지은채 거리에 나섰다.

그는 지금 어디로 걸음을 옮기는지조차 가늠이 가지 않았다. 인차 걸음을 멈추고 사위를 둘러보았다. 소조원의 습식사별장을 가보고싶은 생각이 부쩍 솟구쳤다.

(소조원의 습식시험사별에 대한 기술적데타를 잡아서 생산능력을 확정해놓으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소조원의 성공은 아주 공고해지지 않겠는가. 그다음에라도 건식사별은 할수 있다.)

밤하늘에서는 축축한 안개가 소리없이 내리기 시작하였다.

멀리 광구로 통한 도로는 안개가 습배여들어 어둠속에서도 기름기가 돌듯이 번들거렸다.

3

안상길은 요즘 몹시 바쁜 나날을 보내고있다.

월말에 들어서면서 긴장한 쇄물생산계획을 추진시키는것만하여도 아릅찬데 우회천공사까지 겹쳐들었다.

이 우회천이란 광산의 로천채굴장이 넓어지면서 이름없던 실개천을 멀리 우회시키는데서 생긴 이름이다. 이 실개천은 가물때는 거의 말라붙었다가 비만 오면 골짜기들에서 모여든 흙탕물이 범람하여 애를 먹인다.

그런데 상길은 요즘 참모부에 제기하였던 소조원의 습식시험사별의 기술적데타를 잡을데 대한 것이 승인이 되어 더욱 바쁘게 되었다.

정말 상길의 어깨우에는 일이 겹치고 쌓이는 셈이었다.

건식사별시험이 당장 성공되지 않는다 해도 습식방법의 기술적데타를 고정하고 능력을 확정해놓으면 소조원의 명예에 대해서는 티끌만한 흠집으로도 되지 않을것이며 광산은 그를 두고두고 추억할것이다.

이제는 이모저모 신경을 쓰던 잡념은 바람처럼 사라지고 마음은 홀가분해졌다.

상길은 요즘 월말생산과 우회천공사에 대한 실무적인 대책을 세우고는 곧바로 습식시험사별장

에나와 살다싶이하고있다. 광산에서는 생산실적을 높이는 방도의 하나로 짜드레기광석을 예비로 보고있는만큼 책임기사가 여기서 목새기고있는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였다.

와르릉... 와르릉...

지칠줄 모르는 시험사별기의 진동음이 못기체의 마찰음을 눌러버리며 세차게 돌아가고있다.

수채통에서 떨어져내린 쇠돌이 강력한 수압에 밀리어 거센 흐름으로 사품치고있다.

짜드레기는 토해기와 사별기들을 거쳐 조구통으로 떨어져내리며 쇠돌폭포를 이루고있다.

상길이기도 사면공들의 열정에 호흡을 맞추며 일손을 놓을줄을 몰랐다. 작업도밀으로 약간 드러난 그의 대머리에 흙물이 튀고 땀발이 섰다.

벌써 해는 기울고있다.

어느덧 상길은 시험사별장의 공정마다에서 잡은 자료를 종합하기 위해 물호스를 사별공에게 넘겨주었다. 그는 공정마다에서 측정자료를 모아가지고 시험사별장의 립시 가설막에 들어섰다.

방안은 바깥에서 본것과는 달리 밝고 정갈하였다. 온돌식으로 된 방안에는 한열으로 책상과 서류함이 놓여있고 함우에는 진란이화분이 놓여있다.

지난해초에 시험사별을 시작하면서 꾸린 휴게실이다. 립시로 지어놓은 가설막치고는 썩 쓸모있고 깨끗하다. 더구나 윤숙소조원의 알뜰하고 정갈한 솜씨가 숨겨여있어서 더욱 상쾌한 기분을 돋군다.

상길은 장관라크대우를 낸 노란 방바닥에 긴장을 풀며 앉았다. 구들은 따끈따근해서 좋았다.

상길은 이어 책상에 마주앉아 측정수치들을 적은 종이장을 펴놓았다.

그는 로동에서 오는 가벼운 피곤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하는것 같아 유쾌한 기분으로 전자수산기를 꺼내놓았다.

상길은 전자수산기 수자판을 연방 눌렀다. 그럴때마다 그의 눈앞에서는 아라비아수자들이 방긋방긋 웃으며 춤을 추듯이 문자판에 답이 새겨진다.

《아유 여기 계신걸... 무슨 일을 그렇듯 골똘히 하고계세요.》

윤숙소조원이 어느새 휴게실 문턱에 서있다.

《아, 소조원동무구만...》

상길은 윤숙의 목소리에 용수철이라도 튀듯이 탄력있게 일어서며 책상우에 펼쳐놓았던 자료들을 급급히 거두었다.

습식사별에 대한 능력을 확정하는 일이긴 하지만 소조원이 어떻게 생각하고있을지 모르는 일이여서 아직은 비밀에 붙여놓는것이 좋을것 같았기 때문이다.

《난 책임기사동지가 우회천공사때문에 그리로 가신줄 알고 거기서 한창 헤맸군요.》

《왜 거기서 헤맸소? 무선전화기로 찾지 않고... 고장이라도 생겼소?》

상길은 윤숙의 어깨우에 걸친 휴대용무선전화기를 눈여겨보며 물었다.

《아니예요. 우회천공사형편도 알고싶어서 나가봤지요.》

《뭐 아직 장마철이 멀었는데...》

《아이 화분이 시들었군요.》

윤숙은 구들에 올라서다 말고 아쉬운듯 손벽을 마주잡았다. 그의 눈길이 미친 진란이꽃이파리는 맥을 놓고 늘어져있었다.

그는 화분쪽으로 다가가며 물병부터 찾아들었다. 그리고 물병을 기울여 화분을 적셨다.

습식시험사별기간 윤숙이가 얼마나 애지중지다루던 화분인가! 그런데 요즘은 누구도 돌보지 못했다.

《허, 화분이 주인을 잃었었구만...》

《밑에서 꽃몽오리가 뽀족이 내밀기 시작했었어요. 그런걸...》

윤숙은 진란이꽃밑에서 이미 시들어버린 잎사귀를 뜯어내며 아쉬워하였다.

《일없소. 진란이는 물을 흠뻑 마시면 인차 되살아나니까... 이제 활짝 피여날거요.》

상길은 창가로 걸음을 옮기며 위로하듯 말했다.

창유리에 저녁해빛이 피빛으로 물들었다. 벌써 사별장 구석쪽에는 우중충한 그들이 질어가고있다.

방안은 침침한 음영이 무섭게 드리기 시작하였다.

《책임기사동지, 우린 여기서 너무 시간을 많이 낭비했지요?》

《그렇소. 이젠 날자도 얼마 남지 않았소.》

《가시자요. 여기 더 머물러있겠어요?》

윤숙은 진란꽃화분을 앞가슴에 안고 일어섰다.

《아니? 화분은 어디로 가져가요?》

《우리 작업실로 가져가자는거예요.》

《작업실은 걸려있겠는데...》

《저에게두 열쇠가 있잖아요.》

상길은 이제 이 방에도 곧 주인이 생길터인데 화분을 그냥 두고가라고 말하려다가 그냥 윤숙을 눈길로 바래왔다.

방안은 이미 어두워졌다. 상길은 전등불을 켜고 다시 책상에 마주앉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허, 건식사별장에 화분까지 옮겨간다? 참 야단인데... 기술혁신이 하루이틀에 될것두 아니구... 흐음...)

장밤 쏟아진 비가 날이 밝았는데도 멎지 않고 퍼부었다.

이상기후현상은 예상외로 일찍 장마를 몰아왔다.

광산의 로천광구들에서는 장마피해를 막기 위한 어려운 전투가 벌어졌다.

청년광구의 타원형 막장길로 생산지휘용 승용차가 달리고있다.

《찌르륵… 찌르륵…》

상길은 승용차를 세우고 등반이에 옷몸체를 기대며 무선전화기의 감도를 조절하였다.

《…찌르륵… 책임기사, 책임기사를 찾는다.》

상길은 무선전파를 타고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에 서둘러 송화조점스위치를 누르며 급한 마음을 송화구에 불어넣는다.

《나 책임기사, 책임기사 하단막장… 하단에 있다. 무슨 일인가?》

《여기 우회천합수목으로, 빨리 오라.》

상길은 무선전파를 타고 울려오는 갈린듯한 목소리가 누군지 잘 알수 없어 마음은 더 급했다.

《무슨 사근가? 대답하라…》

《뽕프조립 끝났다. 빨리 오라 찌르륵…》

갑자기 무선전화의 감도가 끊어졌다. 아마 상대방에서는 급한 모양이다. 이미 책임기사가 무선전화로 응답했으니 의례히 우회천으로 오리라 타산한것 같았다.

그바람에 상길의 마음은 더 조바심이 커졌다.

그는 무선송수화구를 다시 조절할새도 없이 승용차를 우회천합수목으로 급히 몰아갔다.

합수목에 온 상길은 똑우에 올라서며 주위의 형편을 날카롭게 살폈다.

아득히 산골짜기로부터 서너갈래의 시누런 물길이 련련히 사품치며 합수목으로 밀려들고있다.

이 범람한 물결은 제방쪽에 부딪치며 허공중에 뽀얀 물보라를 휘뿌린다. 그럴 때마다 제방쪽은 순식간에 물에 잠기여 사방은 허허바다로 변한다.

너무 일찍 장마가 닥치여 우회천공사에 참가한 사람들이 골탕을 먹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감당해내야 한다. 물론 지금 현상적으로는 당장 제방쪽이 물러날것 같지만 아직 한두시간은 견딜것이다. 그러나 미리 뽕프를 조립하고 대책을 세우는것은 좋은 일이다.

상길은 급히 뽕프장으로 들어섰다.

뽕프장안에서는 수리공들이 뽕프배관의 마지막 련결을 끝내고있었다. 그제야 상길은 무선전화기로 찾던 목소리의 주인이 뽕프수리공 김동무인줄 알았다.

《김동무, 이 뽕프가 어디서 왔소?》

상길은 뽕프가 낮이 익은것 같아 물었다.

《네? 저 습식시험사별장에서 해체해왔습니다.》

《뭐요?》

상길은 눈꼬리가 들리였다. 이것은 예견하지도 못한 일이다.

《예비뽕프수리는 어떻게 됐소?》

《아직 … 날개가…》

상길은 주먹을 부르짖였다. 아무리 우회천이 사품치는 물결의 광란속에 있다고 해도 그만한것을 감당 못할 광부들이 아니다.

제방쪽을 정 감당하지 못할것 같으면 최악의 경우 우회천의 흐름을 저수갱으로 떨굴수도 있는 것이다.

쇠돌을 다루는 광부가 그만한 담도 없이 무슨 일을 치르겠는가.

《정신들이 있소. 그게 어떤 뽕프라고 함부로 손을 대오?》

상길의 눈섭이 곤두섰다. 누구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

《도무지 눈치도 없고 의리도 없는 행동이 아니고 뭐요. 그래 우리 광부들이 이 뽕프가 없어서 당장 제앞을 감당 못하게 됐소.》

뽕프수리공들은 얼굴이 시뻘정게 달아서 목을 움츠리고있다.

윤숙소조원이 뽕프장안의 분위기를 살피며 들어섰다.

《책임기사동지, 뽕프는 제가 떼오라고 했어요.》

《예? 소조원동무가?》

상길의 표정은 착잡스레 일그러졌다.

그는 한숨을 툇으며 비웃자락을 제끼고 담배를 꺼냈다. 그리고 후들거리는 손으로 담배가치를 수리공들에게 내주고는 이어 불까지 달아주었다.

《책임기사동지, 이 기세로 한시간만 더 퍼부으면 뚝이 견디지 못할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타산해서 미리 뽕프를 투입하자고 했어요.》

윤숙의 휘여든 눈섭끝에서는 아직 비방울이 또 글뜨글 맺히며 흐르고있었다.

《소조원동무, 그리고보니 우리가 체구실을 못했소.》

상길의 목소리는 푹 가라앉아있었다.

《수리공동무, 25호뽕프를 빨리 수리해서 보내줘야겠소… 아… 그럴것없이 장마가 멎으면 인차 이 뽕프를 습식사별장으로 되돌려보내주오.》

《알았수다.》

수리공은 이마의 깊은 주름살을 펴며 느슨한 웃음을 띄웠다.

《뽕프를 투입하시오.》

상길의 지시가 떨어지자 수리공은 삼극스위치를 넣었다.

순간 시퍼런 화광이 튀면서 뽕프의 용 쓰는 소리가 지심을 흔들며 일어났다.

뒤이어 대형뽕프의 동음이 모든 소음을 눌러버리며 요란한 물소리가 진감하였다.

《아! 물소리에요!》

윤숙은 뽕프장의 예비항구로 밖을 내다보며 소리쳤다. 그의 쟁쟁한 목소리에는 환희가 넘쳐있었다. 폭우는 여전히 숙어들줄을 모르고 쏟아져 내리고있었다.

소조원은 상큼한 목뒤로 함함히 흘러내린 머리 카락을 쓰다듬으며 창구에 매달려있다.

상길이라도 뽕프장의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있다.

천지는 온통 물소리뿐이다. 그 물소리는 상길에게 무엇인가 상기시키면서 깨우쳐주고 속삭여주듯이 마음속에 축축히 젖어들었다.

(내가 일을 쓰게 못하다보니 소조원이 자기 심혈이 깃들어있는 뽕프를 떼왔지... 정말 자기의 성과를 서슴없이 바쳐서 광산을 지키려는 저 높은정신세계를 귀중히 사주어야 한다. 저런 정신 앞에서는 어떤 이상기후도 엄혹한 재난도 맥을 찌를 수 없지... 이제 장마가 끝나면 뽕프도 돌려보내고, 소조원이 꼭 습식에 대한 연구논문도 완성하도록 도와주자...)

뽕프의 물소리가 점점 더 요란해지고있다.

줄대같이 퍼붓던 무더기비도 이제는 지친 모양이다. 비소리는 점차 잦해지고있었다.

5

바다를 낀 이 지대의 봄은 유난스럽다. 한번 바람이 터지면 하늘에 뽕얀 바람꽃을 일쿠며 온통 휘날릴갈 기세로 불어대는것이다.

낮부터 시작한 바람은 저녁이 되어도 자지 않고 더욱 세차졌다.

어스름속에 저물어가는 광산마을의 불빛은 세찬 바람에 오돌오돌 떠는것처럼 반짝이고있다.

그러나 계절은 어쩔수 없었다.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도 꺼밋꺼밋 부풀어오르는 대지에서, 들판의 파릇파릇 돌아나는 새싹들과 검푸러지는 나무가지에서 봄의 숨결은 앓아갈수 없었다.

퇴근길에 오른 상길은 바람에 떠밀리며 걷고있었다. 그는 오늘 한나절이나 윤숙소조원을 찾아 광구의 채굴장이며 박토장과 사별장을 비롯하여 소조가 가있을만한곳은다 찾아 헤메였으나 종내 시간만 허비하고말았다.

무선송수화기로도 행방을 알아내지 못하였다.

소조원을 찾기 시작한 리유는 습식사별장에서 너무도 놀라운 사태가 벌어졌기때문이다.

사별장은 온통 뒤죽박죽이 되고말았다.

감속기며 권동기를 비롯한 중요설비들이 거의 해체되어있었다.

상길은 이 사태앞에서 아연해지고말았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네?》

수리공 김동무는 일손을 놓으며 고개를 기웃거

렸다. 그는 책임기사의 얼굴이 너무도 험악해서 목을 움츠리기까지 하였다.

《정신이 있소? 어떻게 이럴수 있나말지요?》

《아니? 저 책임기사동무가 하고있는 건식사별장에 보내라고 하기에...》

《뭐요??》

상길은 순간 자기의 귀를 의심하였다.

《내가 하는 건식사별장이라니?》

《소조원동무가 그러면서... 설비를 그쪽으로...》

《소조원동무가 그러다니?...》

소조원이라니? 그렇다면 더욱 영문을 알수 없는 일이었다. 어떻게 그가 자기의 습식사별장에서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설비를 떼내게 되었는가.

우리 광구를 위해 뽕프를 떼더니 이번에는 《나의 건식사별》을 위해 또 떼낸단말인가. 아니 그것이 어떻게 《나의 건식사별》일수가 있는가. 그렇다면 더우기 윤숙을 만나야 했다. 그랬으나 소조원처녀는 그 어디에서도 만날수 없었던것이다.

어느덧 집이 가까와졌다.

창문에 불빛이 환하다. 그 불빛을 바라보니 옥이의 천진한 어리광이 선히 안겨왔다.

상길은 딸애를 안으면 하루종일 초조와 불안으로 모태기던 만스름이 얼마간이라도 사라질것만 같았다.

아담한 단층집 토방에 올라선 그는 습관대로 신발을 털고 문고리를 잡았다.

그런데 방안에서 귀익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니 윤숙소조원이?...

방안에 들어선 상길은 한순간 놀라움으로 멍청히 선채 천진하게 웃고있는 소조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윤숙은 웃음을 머금은채 상길에게 따끈한 자리를 내주며 문걸로 옮겨앉았다.

상길의 가슴속에는 안타까움과 불만이 부글부글 피어올랐으나 어떻게 말을 뱉으면 좋을지도 무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그래서 한동안 말없이 부스럭거리며 담배를 피워물었다. 무척 즐기는 담배이지만 오늘따라 몹시 쓰거웠다. 하긴 하루종일 줄담배를 피웠으니 그럴만도 하였다.

《소조원동무... 어떻게 된일이요?》

상길은 안해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나가자 다소 침착한 어조로 말머리를 떼었다.

《무엇말이에요?》

상길은 쓰겁게 입맛을 다시었다. 지금껏 설비를 뜯어놓은것때문에 찾아다녔고 또 윤숙이도 그 내막을 묻는다는것은 뻔히 알겠는데 영 모르쇠를 하고있다.

《허어... 설비를 몽땅 뜯어내야 일이 됩니까?》

《네, 그거야 건식사별장에 더 필요하잖아요.》

상길은 탕개가 풀린듯 한동안 덤덤하였다.

물론 감속기며 권동기를 비롯한 일부 설비들이 건식시험사별장에 필요하다는것을 몰라서 묻는 말은 아니다.

그런데 동문서답이라고 소조원은 아닌보살하고 있으니 참으로 대화조차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아가 동하고 말았다.

《그런 설비야 자재과나 설비과에 제기하면 해결받을수 있지 않소.》

《될수 있어요. 날자는 걸리겠지만... 그러나 그 가까운 설비를 사장시킬순 없잖아요.》

《사장이라니?... 흠...》

상길은 어처구니가 없어 코김을 불었다.

그 설비들이 어떻게 사장이라고 보겠는가.

짜드레기의 습식사별의 성공은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일정한 의의를 가지고있다.

소조원은 물에 의한 사별방법으로는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최고품위를 기록하였으며 짜드레기를 제철소에 보내는데 이바지하였다. 그리고 사별방법의 기술적특성을 잘 고찰하면 다른 편관 공정들에도 참고가 될수 있는 기술적문제들이 도출될수도 있을것이다.

사실 상길은 소조원이 자기 광구에서 습식시험사별을 시작했을 때 강건너불보듯하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건식착상만을 절대시한 나머지 툭툭하게 도와주지 못했다.

이것이 지금껏 그의 가슴에 맺히고있다.

그리고 소조원이 자기광구에서 성공시킨것만큼 그것을 공고히 하도록 적극 도와주어 얼마 남지 않은 소조기간을 빛나게 장식하도록 받들어줘야 한다.

그래야 광구책임기사로서의 의무를 다 한것으로 될것이며 인간으로서의 도리도 어긋나지 않을것이다.

그런데 소조원은 자기의 습식사별의 성과를 마구 혈어내리고있다. 과연 그 리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상길은 소조원의 처사가 리해되지 않았다.

《책임기사동진... 요즘 습식사별에 너무 신경을 쓰시는것 같아요.》

《사업에는 선후차가 있고 또 실패나 성과의 자취도 남는 법이요.》

《아이 저하고는 건식사별을 추진시키자고 약속하잖았어요. 그런데 뭇때문에 습식에만 자꾸...》

윤숙이도 저으기 흥분하여 말을 더듬었다.

《소조원동무... 그래 건식사별이 하루이틀에 끝날일이요?》

《물론 저두 그렇게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습식을 뜯어내면 어쩡니까? 그리고 소조원은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해야지...》

《아유, 제가 무엇이예요. 왜 자꾸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막 안타까와요.》

《리해할수 없소. 리해할수 없단말이요.》

윤숙은 상길의 주름진 얼굴을 보며 지친듯 한숨을 토했다. 상길이에게는 그 한숨소리마저 가슴속을 저며내듯 파고들었다.

부엌에서는 잦은 칼도마장단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들어오고있다.

상길은 그 칼도마소리에라도 기운을 얻은듯 큰기침을 하면서 말을 이었다.

《래일 설비를 되돌려보내겠시다. 소조원동무.》

윤숙은 그 소리에 몸을 흠칠 떨었다.

《참 책임기사동진 너무해요. 그러실줄은 몰랐어요...》

윤숙은 한숨을 토폴며 말끝을 흐렸다.

상길이도 침묵을 지켰다.

한동안 방안은 고르롭지 못한 숨소리만 높았다.

《물론 저두... 책임기사동지에게 미안한 생각은 없지 않아요.》

《?...》

《성심언니 말까지 듣고보니 책임기사동지의 심정이 충분히 리해는 됩니다.》

《허, 또 옥이 엄마 말을 들었소.》

상길은 허구프게 웃었다.

《주위에서 것처럼 <비난>이 일어나고있는데 나까지 보채구... 시름만 얹혀줬으니... 마음고생이야 많았겠지요.》

《...!》

상길은 가슴이 몽클해졌다. 소조원은 자신의 립장을 어느정도 리해하고있지 않는가!

그런데 뭇때문에 것처럼 건식사별에 열을 올리는가?

《그렇지만 책임기사동지... 우리가 그 <비난>이 두려워서 자기립장이라는 울타리를 치고있을때...습식사별에서 생산한 저품위광석이 납의 등에 업히여 서슴없이 제철소로 흘러갈거예요. 저는 이것이 더 무섭고 두려워요.》

상길은 첫순간 눈앞에서 불티가 튀는듯한 착각에 사로잡혀 몸을 흠칠 떨었다.

과연 자신이 시대앞에 혁명의 요구를 거슬리면서 자기 립장을 대치시키는 속물로 되고만단말인가.

다음순간 그의 머리속에는 강한 반발심이 옥치밀어올랐다.

《그만하시요. 내 이제 무슨 소린들 안들겠소.》

《책임기사동지, 제가 너무 외립되게 말씀드렸다면 용서하세요. 그러나 책임기사동지가 이제 건식시험사별에서 물러서면... 계속하던 시비군들의 비난은 없어지지 않을거예요. 그러나 그 비난이 두려워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고 기술자의 립장을 저버려보세요. 그렇다고 마음이 편할가요?》

《소조원동무, 제발... 그만해주시요.》

상길은 애원하듯 윤숙의 말을 제지시켰다. 그

는 소조원의 주장을 받아들일수도 반박할수도 없었다. 아니 부정하고싶었으나 그럴수 없는 자신에 화가 치밀어오르고 억울하기 그지없었다.

결국 10여년전에 모멸감을 안고 주저앉았던 그 종착점에, 그때와는 다른 불안한 덧짐을 더 받아 안고 되돌아온셈이다.

(아... 일은 참으로 팽랑하게 되는군...)

상길은 옥이가 버둥대며 울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깊은 상념에서 깨어났다.

윤숙이가 옥이를 안아일으키며 오토기를 안겨 준다. 그러나 옥이는 오토기를 뿌리쳐버린다. 그 바람에 방바닥에 떨어져 몸체를 들까불며 돌아치더니 통방울눈을 부릅뜨고 서고만다.

그러자 윤숙은 유쾌하게 웃으며 오토기를 다시 옥이에게 준다. 또 뿌리친다. 오토기는 또 선다.

옥이는 그것이 재미나는지 어느새 울음을 그치고 오토기를 연방 집어던진다.

《아유 우리 옥이 잘한다. 호호. 오토기 아무리 늑혀놓으려 해도 어데서건 일어서죠. 그래서 난 어렸을 때부터 오토기를 좋아한것 같아요. 우리 옥이두 그래서 좋아하지! 호호.》

상길은 옷방의 침대에 올라가 손깍지를 머리에 받치고 누워버렸다. 그의 눈앞에 오토기가 어른거린다.

《오토기 아무리 늑혀놓으려 해도 어데서건 일어서죠... 호호.》

상길은 윤숙의 천진한 웃음소리를 되새기며 더는 그를 설복할수 없다는것을 느끼게 되는것이였다.

6

건식사별장은 쥐죽은듯이 정적이 깃들어있었다.

상길은 쇠메를 틀어쥐고 일어섰다.

그의 눈앞에는 두번째 시험사별에서 실패한 잔해들이 어수선하게 흩어져있었다.

해는 서컨 산마루에 기울어졌다.

상길은 마사진 설비를 뜯어내려고 쇠메로 내려쳤다. 쇠메질소리는 설핏해진 해살에 실리어 푸른하늘 저 멀리로 퍼져가듯 울려퍼지고있었다.

그 메질소리의 메아리는 상길의 가슴을 흔들며 시험사별에서 실패하던 그때의 일을 가슴을 저미며 되새겨주고있었다.

그에게 있어서 두번째 건식시험사별의 총화회의가 사고심의회회의로 번져질줄은 몰랐었다.

분위기는 매우 험악하였다.

《책임기사동지, 건식사별이 지금 어떤 무서운 난국을 빚어놓았습니까? 소조원의 습식사별의 성공마저 뒤집어엎고... 결국 이런 후파를 가져왔습니다. 이젠... 한사람의 공명때문에...》

상길은 가슴이 활랑거리고 귀가 웅웅거리는바람에 더는 가려들을수 없었다.

한동안 그의 뇌리는 사고기능이 마비돼버린듯 아무런 생각도 없었다. 그러나 이윽히 시간이 흐르자 리성의 목소리가 뇌리속으로 메아리처럼 흘러들었다.

(어떤 비난도 난 참아야 한다. 이제 떠나야 할 윤숙소조원을 위해서도 그래야 한다.)

상길은 정작 이렇게 생각하니 다소 마음이 안정되는듯하였다. 그런데 상길은 무대에 나서는 소조원을 보고는 다시 마음이 어수선했었다.

방안은 잠잠해졌다.

《이번 설비사고의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상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것 같았다. 이젠 오래지 않아 소조기일을 마치고 떠나야 할 사람이 책임지면 어찌자는것인가.

《...저는 소조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조급성에 사로잡혀 모든것을 침착하게 처리해나갈수 없었습니다. 저의 이런 심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조급성을 부채질했고... 이런 사고를 저지르는데로 떠밀었습니다.》

상길은 머리를 떨구었다. 가슴이 저려들어 견딜수 없었다. 이제 소조를 마치고 떠나게 되는 연약한 소조원의 어깨우에 책임을 지운다는것이 참을수 없이 괴롭혔다.

어느새 회의가 끝났는지...

상길은 회의장에서 바로 건식시험사별장으로 왔던것이다. 그는 가슴을 저미며 파고드는 생각때문에 안정할수 없었다.

(아... 나는 주인공실도 변변히 하지 못하다나니... 책임질수도 없고... 떠나는 소조원에게... 아.)

상길은 메자루를 힘있게 틀어잡았다.

《여보...》

《?!...》

상길은 안해의 목소리에 흠칠 머리를 들었다. 안해의 아련한 모습이 다가왔다.

《소조원이... 소조원이 책임을 맡아나섰드군요.》

《그렇소...》

상길은 안해의 떨리는듯한 말소리에 부아가 동한듯 투박하게 응수했다.

《그런데 소조원동무가... 소조기간을 연장하겠다는게 사실인가요?》

《뭐요??》

상길은 억이 막혔다. 그것은 너무도 뜻밖의 일이었다.

건식사별의 실패를 책임지고 소조기간까지 연장단말인가? 그제서야 언젠가 짜드레기광석의 시험사별이 끝날 때까지 처녀로 늙어도 광산에 남아있겠다고 하던 말이 떠올랐다. 그때는 그 말을 룡담으로 스쳐보내지 않았던가.

《소조원이 기간을 연장한다는 말을 들으니... 어쩐지 가슴이 좋지 않군요.》

《됐소. 그만하오.》

상길은 안해의 말을 밀막아버리고 쇠메를 힘껏 휘둘렀다.

쨍 ... 쨍르릉...

쇠메질소리는 건식시험사별장의 온 골안을 휩

끌며 메아리쳐갔다.

상길은 실패의 잔해가 마치도 자신이 저지른 지난기간의 허물처럼 느껴져서 참을수 없었다.

사실 그는 건식시험사별에 착수할 때부터 소조원에게 주인의 자리에 서달라고 하지 않았던가. 지금 생각하면 벌써 그때부터 자신이 실패앞에서 남의 비난앞에서 멀찍이 물러서겠다고 미리부터 발뺌한것이 역겨워졌다.

상길은 메질을 멈추지 않았다.

사별장어구로 소조원이 걸어오고있었으나 그는 눈여겨보지도 않았고 안해의 존재마저 잊은듯 메질에만 정신을 쏟았다.

《아... 책임기사동지... 미안해요. 저때문에...》

상길은 그제야 죄책을 지팽이처럼 짊으며 윤숙을 흘끔 쳐다보았다. 소조원의 말이 그의 가슴에 이상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던것이다.

《미안하다구요? 저때문이라구요?》

상길의 얼굴이 대번에 붉어졌다.

《무시하지 마시오. 무시하지 마시오.》

《?!...》

윤숙은 상길의 급작스런 반발에 아무 대꾸도 못한채 입술만 감빨았다.

《책임기사동지!...》

이윽고 소조원의 목소리는 목메인듯 절절하였다.

상길은 얼굴을 번쩍 들었다. 그의 너부죽한 얼굴에 번들번들 진땀이 흘러 구리빛으로 번득었다.

《소조원동무, 말해주오. 솔직하게 말해주오. 그래 내가 건식사별의 실패를 책임질 자격이 없는가 말ियो. 그래 건식을 책임질수 없겠소.》

《아니... 책임기사동지!!》

상길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머리를 숙였다.

한동안이나 잠자코있던 그는 빛나는 눈길로 윤

숙을 바라보았다.

《소조원동무, 나를 용서하오. 이제부터는 내 모든걸 책임지겠소. 지난날에는 내 주인구실을 못했소. 사실ियो.》

《아... 알아요. 리해해요. 저는 책임기사동지가 그러리라는걸 믿고있었어요.》

순간 윤숙의 그윽한 눈에 맑은것이 즐쩍이 고여올랐다. 그리고 눈가에는 맑고 생신한 웃음이 함뿍 어리여있었다.

한가닥의 미풍이 불어와서 소조원의 앞머리카락을 조용히 날리었다.

서편 산마루에 저녁노을이 붉게 타고있었다.

《소조원동무... 그런데 안됐어... 우리가 다 계구실을 못하다나니 소조기간까지 연장한다니... 미안해요.》

성심이가 가슴을 저미는듯한 목소리로 한마디 끼여들었다. 그러자 윤숙은 놀라는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어 방그레 다시 웃음을 띄웠다.

《언니! 걱정마세요. 전 소조기간을 연장하지 않아요.》

윤숙의 목소리는 젖어있었다.

《저는 마음놓고 떠나요. 책임기사동지랑 언니랑있지 않아요. 주인들이 말ियो요. 그러니 건식사별은 기어이 성공할거예요!》

상길은 윤숙의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축축해서 돌아섰다.

《소조원동무, 고맙소. 걱정마오. ...여보, 우린 너무도 오래동안 <성홍열>을 앓은셈ियो. 그러나 늦지 않았소. 우린 다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출발지점에 섰으니말ियो.》

상길의 말은 절절하였다.

윤숙이와 성심이도 가슴이 후터워졌다.

서편산마루에 저녁노을이 지자 하늘에는 등근달이 빛나고있었다.

백두산

양성우 (남조선)

저 백두산에 못가게 하네, 저 백두산에
내가 가리라
물이란 물은 다 내 물이고 산이란 산은
다 내 산인데
저 백두산에 내 어찌 못가리

내 손으로 이 깊은 밤을 으스러지게 찢고
저 백두산에 내가 가리라, 저 백두산에
나를 부르니
남과 북의 말뚝 뿔히는 꽃피는 길을
손뼉치며 다리걸며 내가 가리라

흙이란 흙은 다 내 흙이고
풀이란 풀은 다 내 풀인데
내 땅에서 내 발바닥으로 저 백두산에

내 못가네
저 백두산에 내가 가리라
저 백두산에 내 어찌 못가리
멍어리 한시절이 드디어 끝나고
남과 북의 말뚝 뿔는 꽃피는 길을
얼싸안고 덩더렁 내가 가리라

저 백두산에 내가 가리라
저 백두산에 못가게 하네
저 백두산에 내 어찌 못가리
내 손으로 이 칼날의 숲을 불놓아 태우고
살아서 저 백두산에 내가 가리라
(남조선소책자 《민중통일》에서)

사랑의 권리

강선규

(전호에서 계속)

6. 잠들수 없는 밤

인민대학습당의 시계종소리가 대동강 물안개를 타고 은은히 들려온다. 나는 그제서야 강변을 줄곧 거닐고있는 자신을 깨달았다.

수도의 밤은 소리없이 깊어가고있었다. 하지만 나는 친우의 편지를 받은 초저녁부터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힐수 없었다.

유보도의 빛밖은 무리등밀에 이르자 나는 윤석의 편지를 다시 펼쳐들었다. 범상히 스쳐버릴수 없는 사연들이 글줄마다 새로운 의미를 안고 마주쳐왔다.

《...그날도 나는 새벽교대에 갠안으로 들어갈 차비를 하고 사무실에서 노래의 악상을 익히고있었네. 막장의 탄부들에게 보급할 새로 나온 노래였네. 이 일은 탄광당비서로서 내자신이 스스로 맡아나선 고정분공이기도 하다네.

한창 손박자를 치면서 흥얼거리는데 전화종이 울리더구만. 무심결에 송수화기를 들던 나는 깜짝놀라 몸을 일으키며 옷매무시를 바로잡았네.

뜻밖에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몸소 걸어 오시는 전화가 아니겠나! 창졸간이라 나는 문안 인사조차 변변히 못올리었다네.

그이께서는 먼저 탄부들과 일군들의 안부를 물으신 다음 한 청년굴진소대장과 가정을 이룬 평양의 처녀연구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기 시작하시었네. 자네도 잘 알고있는 그 소설을 쓰는 청년과학연구소의 애인말이야.

후에 안 일이네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전날 보건부문 일군들과 담화를 하시다가 적십자병원의 안과치료집단이 실명위기에 처했던 굴진소대장을 완전히 회복시킨 사실을 보고받으시고 몹시 기뻐하시며 치료과정에 있는 의사들의 공산주의적소행과 탄부와 처녀연구사와의 아름다운 사랑에 대해서까지 세심히 료해하시었다네.

언젠가 말했지만 굴진소대장의 애인은 우리 탄광에서 연구사업을 하고있는 인물도 마음씨도 고운 지성적인 녀성이라네.

그는 탄광사람들이 사용하는 음료수를 약수로 전환시킬 기특하고도 대단한 연구목표를 설정하고있었다.

굴진소대장이 그동무의 연구를 적극 뒤받침하며 도와주었네. 인간과 노동계급을 위하는 처녀의 진정을 무엇보다 값높이 사고싶었다고 하네.

명확끝에서 물길을 끌어오고 수원지를 만들고 애로와 난관, 실패와 곡절 등... 무슨 일인들 없었겠나.

하지만 그들은 주저않지 않았네. 시료배낭을 나누어 지고 걷고걸은 밤길만해도 헤아릴수 없다네.

서로돕고 이끄는 과정에서 그들은 사랑을 알게 되었고 일생을 같이 할 언약을 하게 되었네. 그런데 총각의 시력이 점점 감소되더니 덜컥 자리에 눕게되었다네. 합병증이 온것이었네. 그의 병치료에 기울인 처녀의 정성은 말로서 다 표현할수가 없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하도 사려깊이 물으시기에 나는 어려움을 다 잊고 어머니앞에서처럼 낱말이 아뢰이였네.

우리 탄광집단의 뜨거운 관심과 의사선생들의 희생적인 노력으로 총각은 눈동자를 별처럼 빛내며 고향에 돌아왔네.

굴진소대장은 자기에게 광명을 다시 안겨준 이 고마운 제도를 위해서라면 한몸을 석탄처럼 깎그리 불태우리라 굳게 마음다졌다네. 그 불타는 마음이 새로운 발과공법을 성공하게 하였고 총성의 석탄산을 높이 쌓아올리게 하였네.

그런가 하면 연구사처녀는 새로운 중화제와 첨가제를 발명하여 탄광마을의 음료수를 효능높은 약수로 만들었다네. 고질적인 속탈로 주머니에 약을 떨구지 않고 다니던 나도 그 덕을 톡톡히 보네.

사람들은 나날이 건강해져서 일에 더욱 성수를 내고 석탄산은 나날이 높아만 가고... 사회와 집단의 리익에 뿌리를 둔 사랑의 힘이란 이처럼 강하며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네. 또 그 아름다움은 비할바 없는것이라네.

온 탄광마을의 축복속에 그들이 결혼식을 치른 다음 우리는 양지바른 산기슭에 새집을 짓고 나무와 꽃을 옮겨다 아담한 정원까지 꾸려주었다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들에게서 얼마후에 옥동자가 태어날것이라는 나의 이야기를 마저 들으시고 호방하게 웃으시며 무척 만족해하시었

네.

그 동무들이야말로 우리 제도가 베풀어준 사랑의 권리를 참답게 향유할 줄 아는 진정한 혁명동지들이라고, 그런 혁명적인 동지관계로 인연을 맺고 꽃피운 사랑이기에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한없이 소중한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네.

그러시고는 신혼부부에게 자신께서 보내시는 축복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거듭 부탁하시는것이 아니겠나!

나는 그만에야 목이 꺾 메여 대답을 인츰 올리 지 못하였네. 눈물이 앞을 가리웠으나 자애로운 그이의 영상은 더더욱 거룩하고 인자하신 모습으로 안겨왔네.

혁명과 건설의 중하를 한몸에 안으시고 그토록 분망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탄광마을에 피어난 한떨기 이름없는 사랑의 꽃향기까지 일일이 헤아리시다니! 뿐만아니라 이렇듯 값높이 평가해주시다니!...

여보게, 우린 참으로 복받은 시대에 살고있는 행운아들일세. 온 나라를 행복한 대가정으로 꾸려가시는 그이의 위대한 품속에 나와 자네 그리고 우리 인민모두가 안겨살고있단말이네.

이 숭고한 사랑의 세계를 떠난 우리의 생명이란 무엇이겠나?...

시원한 강바람이 뜨겁게 달아오른 나의 얼굴이며 가슴노리를 스치고지나간다.

《윤석이, 자네의 심정이자 곧 내 심정이네. 우리가 순간이나마 그 하해같은 사랑을 잊는다면 무슨 인간들이겠나.》

나는 곁에 있는 친구와 말하듯이 열렬히 부르짖었다. 젖어든 눈시울을 스며버거리며 발걸음을 옮기는데 어디선가 귀에 익은 노래소리가 울려온다.

밤하늘 별들이 반짝여 어둠을 밝혀주듯
언제나 다정한 손길로 우릴 안아주는 품
그리워 그리워 자애론 그 품이

밤은 깊었으나 잠들지 못하고있는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었다. 어디서나 사랑에 목메인 인간들의 노래소리가 밤하늘에 울려퍼지고있었다.

사랑!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 시작은 어디이고 끝은 또 어디인가?!...

인류는 참된 사랑의 세계를 갈망하면서 참으로 멀고먼길을 걸어왔다. 사랑을 위하여 사람들이 흘린 피와 눈물만 합치여도 아마 대양을 이룰것이었다.

하건만 인간이 물질세계의 유일한 주인으로, 력사창조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지 못하였던 그 세월에 사랑의 참뜻은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었고 사랑의 권리는 더더구나 향유할수 없었다.

력사와 갈피마다에는 이 세상에 제나름대로 전

해내려오는 사랑에 대한 전설과 이야기 또한 홍수처럼 범람하였다. 인정세태적인것, 도덕률리적인것, 이성간의 애투한 《로맨스》나 세속적인 사랑... 진정한 의미에서 그것들은 사랑이 아니었다. 어떤것들은 너무나 진부하고 치사스러워 사랑이라 표현하기조차 부끄러울 지경이었다.

과연 수수천만년 기원해온 인간생활의 참모습, 자주적인 인간으로서의 인민대중이 사랑을 알고 사랑의 권리를 마음껏 향유하게 된것은 언제부터인가?...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 걷고 또 걷던 나는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는바람에 고개를 번쩍 들었다. 주광색 후광에 받들리어 거연히 솟은 주체사상탑과 누리를 환히 비치는 봉화가 한눈에 안겨왔다. 그 봉화를 우러르며 서있는 행복의 군상들과 주체시대의 인간상들!...

나는 엄마의 품에 안겨 활짝 웃고있는 복동이를 형상한 조각상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정답게 속삭이였다.

《애야, 우리는 정말 행복하구나. 이 불멸의 탑아래서 사랑을 할줄 아는 인간으로 살고있으니 말이다.》

어찌 너와 나뿐이랴! 온 세상을 밝히는 저 광휘로운 빛발속에 영예군인의 눈과 팔다리가 되고 저 서슴없이 달려가는 처녀도 태어나고 전사들의 생명을 위해 폭발하는 수류탄을 몸으로 덮은 인민군대의 지휘관도 태어나며 물에 빠진 어린애들을 구원하려고 생명을 서슴없이 바치는 사회안전원도 태어나고있는것이다.

애인과 탄부들을 위해 팔과 다리를 바친 재동 탄광처녀 옥화의 사랑이야기는 오늘에 와서 하나의 아름다운 사회적기쁨으로 되었다.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언어적의미가 생긴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으나 오늘 우리 사회에서처럼 그것이 자주적인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리념으로, 인간호상간의 혈연적인纽대로 꽃피난 때는 일찌기 없었다.

우리의 크고작은 생활, 우리의 행복과 보람, 우리의 운명과 미래도 모두 이러한 사랑의 화원에 뿌리를 두고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수천만의 꽃송이들이 앞을 다투어 만발하는 인간사랑의 대화원!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며 벌과 나비처럼 찾아오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세계를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꾸고 자래우신다.

년간계획을 완수하고 결혼식을 하는 제대군인 탄부들에게 손수 선물도 마련해주시고 한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의 환갑날도 남먼저 생각하시는 은정과 보살핌! 얼음장에 실려 난바다로 떠가는 어로공처녀를 구원하려고 공화국의 룡해공군을 다 동원하시고도 마음을 못놓으시여 온밤을 전화기앞에서 떠나지 않

으셨다는 전설같은 이야기! 한 로혁명투사가 중
태에 빠졌을 때 몸소 수술립회인으로 되시여 초
불처럼 꺼져가던 생명에 새 숨결을 안겨주셨다는
신화적사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창조하시는 이 영원
불멸할 사랑의 서사시속에 우리 인민의 영생하는
삶이 있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룡성변영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기에 사람들은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뿔어오
르는 흙모의 정을 노래에 담아 부르고 또 부른
다.

잠시도 헤어진다면 만나고싶은 마음
만나면 스스럼없이 안기고싶은 품이여
그 품은 그 품은 어버이사랑의 품

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품이여
그 품은 그 품은 어버이사랑의 품
...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따라부르던 나는 눈굽
이 뜨거워지고 망막이 뽕양게 흐려지는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러나 눈물속에서 바라보이는 주체
사상탑은 더 아득히 높아보였고 평양의 밤은 더
더욱 아름다운 절경으로 부각되고있었다. -끝-

병사의 보람

진철현

총을 잡고
또 하루
산마루 초소에서
솟는 해를 남먼저 맞을 때면
가슴 뿌듯이 안겨오는
병사의 보람이여

새벽잠을 깬 산새들도
방울을 굴리며 축복하느나
발밑에는 나를 반겨
떨기떨기 이슬을 머금은
붉은 진달래

이럴 때면
떠오르는 생각
조국이 준 첫 군복 입고
군기앞에서 사진을 찍던
거기서부터
병사의 보람은 시작되었던가

목에 겨불내 나도록
힘겹던 천리행군길
속눈썹의 무게도 헤아려지던 길에서
분대장의 감사를 받던
잊지 못할 그날부터였던가

비바람에 군복색은 바래여도
빨간 령장빛
마음에 더 붉게 물들여진 그 나날의
하루하루를 거쳐
병사의 보람은
이 가슴에 깊숙이 젖어들었나니

아, 공민으로 총을 잡고

이 땅을 지켜가는 나의 삶
레사로운 수고도 군공으로 크게 헤아려
가슴에 복무메달을 달아준
어머니당의 손길이여

이 땅의 하많은 사람
저저마다 보람은 달라도
군복을 입지 않고 지닐수 없고
총을 잡지 않고 안을수 없는
병사의 참된 삶
최고사령관동지를 무장으로 받들어가는
조선인민군전사의 더없는 보람이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내 눈앞에 삼삼한
당중앙청사의 불빛
사색깊은 창문가의 그 고요도
여기서 지켜지고
조국의 안녕도 여기서 담보되기에

보람중의 보람은
그 누가 다 몰라도
조국수호의 첫 자리
우리 당이 세워준 믿음의 그 첫 자리에
내가 서있는 크나큰 긍지이거니

성스러운 그 사명감을
두어깨에 얹고
세상에서 둘도 없는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우리 당을
한목숨 다 바쳐 옹위해가는
병사 나의 끝없는 보람이여
아, 나의 영원한 영광이여!

어서오세요

제 1 부

손광수

(전호에서 계속)
찬봉집
 파일이며 먹을것을 랑손에
 쥐고 승강기에서 내려 집에 들
 어서는 찬봉.
 《여보.》
 《여보.》 하고 앵무새가 대답
 하자 그제야 안심이 되는지...
 《오 있구만.》
 기분 좋게 들어서는 찬봉.
 《여보.》
 이번에는 분명 안해의 목소
 리가 아닌 소리다.
 그제야 머리를 기웃거리며
 중얼거리는 찬봉.
 (흐흐, 이 사람이 늘그막에
 습박꼭질을 하자는건가?)
 방안문을 열기바쁘게
 《쩍-쩍-》벼락치는 소리에 벌
 령 나가넘어지는 찬봉.
 방바닥에 쏟아지는 호두알,
 사과알.
 이때 순복이 들어선다.
 《아니 여보. 출장갔다 언제
 오셨어요.》
 엿이 막혀 말을 못하는 찬봉.
 《호호, 갑자기 병어리가 났
 소?》
 《뭐 병어리? 여보, 이게 도대
 체 뭐요?》
 앵무새장을 가리키는 찬봉.
 《예, 은아가 련관부문을 연구
 한다면서...》
 《뭐뭐? 련관부문?》
 아, 참는것도 한도가 있는법
 이다.
 《여보, 내가 없을 때 좋은 영
 향을주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집이 동물원이요 장마당이
 요.》
 그제야 자세를 바로잡는 순
 복.
 《여보, 당신 몇주일 나가계시
 더니 목청이 높아졌수다래...》
 《뭐요? 허 참...》
 쓰거운지 일어나 옷방으로
 올라가는 찬봉.
 들려오는 소리,
 《여보!》
찬봉방
 찬봉 여전히 순복을 닦아세
 운다.
 《여보, 가 시집보낼 때 주려

던 삼면정대창문가리개는 다
 어떻게 했어...》
 《은아가 가져갔수다. 재주동
 물사를 꾸린다면서...》
 《뭐 재주동물사? 이게 보자
 보자하니까...》
 어디론가 나가는 찬봉.

민폐집
 관상용완구가 가득찬 방이다.
 《아버지, 고레가 걸어가게 해
 달라.》
 조르는 민폐 아들.
 《오냐, 달려가게 해주마.》
 《야 좋구나!》
 바람을 너무 세게 넣었는지
 팟! 하고 터진다.
 부엌에서 나오던 민폐 처 은
 남이가 투덜거린다.
 《홍, 당신 하는 일이 그저 그
 령지요.》
 《아니 뭐?》
 찬봉이 이런 때 들어선다.
 달려나가는 민폐 아들.
 《할아버지.》
 《오, 우리 철남이냐?》
 《할아버지, 맛있는거 많이 가
 저왔나?》
 보파리를 뒤지는 철남.
 《야, 이녀석 장난질하다가 또
 손을 안씻었구나. 어서 손을 씻
 어.》
 《예!》
 세면장으로 들어가는 철남.
 꽃가지에 앉아있는 두마리의
 원앙새가 그려진 족자.

민폐방
 민폐를 설복하는 찬동.
 《그래도 다섯사위중에 제일
 믿음이가는건 임자야. 자네야
 완구도안가니까. 핑계도 좋지
 않나.
 은아의 마음을 돌려세워주
 게.》
 《헤헤, 제가요?》
 《이 애비가 욕도 해봐, 얼러
 도 봐. 하 이젠 집안을 동물원
 으로 꾸려왔다니까...》
 부엌에서 아버지의 말을 엿
 듣는 은남.

동물원수족관 펌프실
 기대를 돌아보는 직장장.

《직장장아바이.》
 은아가 무슨 도안을 보인다.
 《애기동물사를 하나 꾸려야
 겠어요.》
 《애, 너 이게 얼마나 복잡한
 정력을 요구하는 일인지 알기
 나 하나?》
 《야 직장장아바이, 애기동물
 들을 인공포유해서 새끼때부터
 사람들을 엄마처럼 따르게 하
 고 중요한건 관상가치를 높여
 동물원을 흥성거리게 하는 동
 물탁아소를 꾸리자는거예요.》
 《아니 뭐? 동물탁아소? 허허
 ... 애, 하늘에 별은 따고싶지
 않나?》
 그런 생각은 싹 그만둬라. 새
 끼한테 어미가 있어야 하는거
 야.》
 《직장장아바이, 새끼를 낳고
 죽는 어미들도 있구 건강이 나
 쁜 어미들도있는데 한방에 넣
 고 과학적으로 사육하면 좋지
 않은가요?》
 《허참... 그러니 애기동물사
 를 꼭 꾸리겠단말이나?》
 《자요.》
 도안을 안겨주는 은아.
 그것을 들여다보는 직장장
 웃고만다.
 《허, 꼭 만화영화에 나오는
 집들 같구나 허허...》
 《호호...》

호랑이조각알
 민폐가 화판을 메고오다가
 금방 달려들듯한 돌범을 바라
 보며 흠칫 놀란다.
 《허허, 팬찮아.》
 돌범의 발통을 끌어주는 민
 폐.

호랑이사
 누워있는 범을 그리는 민폐.
 속사판에서 번개같이 달리는
 민폐의 손.
 민폐를 쏘아보다가 벼락같이
 달려드는 호랑이.
 《따옹!》
 《으악!》
 란간을 뛰어넘다가 넘어지는
 민폐.
 떨어진 그림들을 주어가지고
 혼비백산하여 달아난다.

다가오는 만삼과 부딪치는 민패.

《영?》

《헤헤, 이거 마안합니다.》

점잔을 빼며 걸어가나 속은 한줄이다.

성성이사

그제야 어깨를 으시시 떠는 민패.

(에이, 시작부터 험치 않는데...)

바지가랭이를 터는 민패.

안도의 숨을 쉬며 화판에 화보를 퍼본다.

(음. 아버님이 이걸루 설복하라고했지.

발명권을 받은 제 동창생이 화보에 난걸 보면야...)

겨드랑이에 화보를 끼고 하품을 하다가 정지되는 민패의 얼굴.

성성이가 화보를 빼는것이 아닌가.

눈이 화등잔만해지는 민패.

화보를 가지고 달아나는 성성이.

《아니 저게 야, 그걸 가지고 어디가니 영.》

화보를 입에 물고 그네우에서 기세를 올리는 성성이.

《헤헤, 야 그걸 찢으면 어떡하니. 영?》

돌을 던지는 시늉을 하자 성이 나서 공중을 날아오르는 성성이.

《야, 그게 없으면 우리 가시령감한테 난 쫓겨난다. 쫓겨나...》

더더욱 날치는 성성이.

저편에서 청년들이 달려온다.

《야! 이거 야단났구나.》

달아나는 민패.

개사

문에 《섯 위험》이라는 글이 썩여진것도 볼새없이 들어서는 민패.

사방에서 달려드는 사냥개들.

《으악!》

어쩔줄 모르는 민패.

《헤헤 야, 제발... 제발... 나하구 헤헤 친하자...》

일리기도 하고 소리도 쳐보나 왼팔을 물어뜯는 사냥개.

《으악!》

눈을 지끈 감고 뛰어나가는 민패.

구내

삼십륙계 줄행랑을 놓는 민패.

먹이를 가지고 나오다가 그 모양을 바라보는 은아 놀란다.

《아니, 아저씨가?》

성성이사

청년들이 성성을 둘러싸고 법석고아대고있다.

《야, 저 성난것 좀 보라.》

《무슨 일이예요?》

들어서는 은아.

《<대성>이가 화보를 로획했어.》

《예? 대성이 이리와. 겁낼것 없어. 화보를 가져와.》

성성이가 은아에게 화보를 주며 씩 웃는다.

놀라는 청년들.

《야, 제법인데...》

《신통하다애.》

화보를 들여다보는 은아.

《아니, 이 애가?》

다우쳐묻는 명애.

《애가 누구야?》 대답대신 의혹에 잠기는 은아.

(이 화보가 어떻게 여기에...)

생각에 잠겼다가 무엇인가 짐작하고 픽 웃는 은아.

찬봉집

앵무새가 재롱을 부린다.

《어머니!》

까불거리며 들어서는 은아.

《아이구 우리 막내 이제야 오니?》 가방을 받아주는 순복.

《아버지 계시나요?》

《오냐, 계시다!》

어머니를 향해 눈을 곱게 흘기는 은아

《호호.》

발걸음을 죽여가는 은아.

은아방

《아이, 더워!》

실내옷을 갈아입고 아버지한테 달려간다.

《은아 안녕!》

앵무새 소리.

《안녕!》

전설

신문을 보는 찬봉에게 매달리는 은아.

어리광을 부린다.

《아버지 호호 다섯째 아저씨가 우리동물원에 왔댔어요. 그림을 그리러 왔던것 같어요.》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는 은아.

《오, 그 사람이야 완구도안가니까. 허허, 그래 뭐라고 하더냐?》

아버지는 시치미를 툭 댄다.

그 모양이 우습던지 은아가 말한다.

《응- 날 만나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는데요 뭐.》

《뭐라구?》

《아마 우리 맹수사엔 별로 흥미가 없었던가 봐요.》

《망할녀석, 아 동물이라 할진대 맹수가 기본이지. 이견 동서남북도 몰라.》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된거야.)

순복 차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빈정거린다.

《그 사람이 뭘 창안하느라고 간계아니요?》

《뭐? 맹수사는 안들리고 오소리사나 가는 주제에 창안은 또 무슨 창안!》

《예? 허허, 령감두 참.》

《호호.》

무엇이 그리 통쾌한지 그냥 웃어대는 은아.

(이 사람이?)

급하게 일어서는 찬봉.

민패집

머리에 수건까지 동이고 앉고있는 민패.

그앞에 찬봉이 이마를 짚어 본다.

《오. 그러니 경찰을 했다 그 말인가?》

《예...》

《음, 그런걸 난 또 무서워서 안들려나 했지?》

《예? 아 무섭다니요. 체네들 두 다하는 일인데...》

《영? 하하하.》

《허허.》

기가 막혀 웃고있는 민패.

《내 딸 여섯을 낳아놓구 나중엔 별고생을 다하는군. 자 그럼 난 가겠네...》

일어서는 찬봉.

《아버지 이 맥주는...》

《내 바빠서 그러니 임자나 어서 들게. 이번에 가게 되면 앵무사관리공총각을 잘 살피게. 은아와 어떤 사인가 하는걸 말이야.》

《아니 그럼...》

그 소리에 낫색이 달라지며 돌아보는 찬봉.

제풀에 놀란 민패 입가에 어설픈 웃음을 띠우며 말한다.

《예... 헤헤 가야 합지요.》

웃으며 나가는 찬봉.

웃웃을 벗어던지는 민패.

(과연 지독두 하시기나!)

캐득거리며 웃어대는 은남.

《짜지요 짜. 처제도 하나 둘

러 세우지 못하면서...》

곰맹기새사

동물들의 상태를 관찰하며
수첩에 기록하는 은아.

명애가 숨가빠 들어선다.

《은아, 큰일났어. 직장장아바
이가 우리의 동물재주를 그 무
슨 사양관리기계로 오해하구
실장모임에서 과업까지 주었다
는거야.》

《뭐? 호호...》

《애 너 무슨 방도라도 있
니?》

《명애, 차라리 잘 됐어. 아예
공개하자. 동무들과 함께 토론
에 불이잔말이야...》

《야 그러다가...》

걱정하는 명애.

앵무새사

저울결에 걸린 권투장갑.
앵무새먹이를 준비하고있는
만삼.

《여 만삼동무, 은아동무가 학
교에서 무르익힌 동물재주를
발표한대. 안가겠어?》

《흥, 가보라우. 난 안가겠
어.》

어깨를 툭 치는 동팔.

《여 동문 곰권투인가 뭔가
하다가 한번 실패하더니 왜 주
눅이 들어서 그모양이야. 독수
리한테 쫓기는 까투리처럼...》

권투장갑을 툭 치는 만삼.

《흥, 좋을대루 생각하라우.
남의 속은 알지도 못하면서...》

구내언덕길

삼륜차를 몰아가는 직장장.
그것을 뒤에서 미는 만삼.

《아버지. 어데 가세요? 그런
데 이진 어디에 쓸 골동품이예
요?》

《허 이너석 말조심해라. 넌
아직 모르냐? 이게 바로 은아
가 연구하는 톨동사양기 부속
이다.》

《예? 허허...》

《이너석 허파에 바람이 찻
냐?》

만삼 혼자 중얼거린다.

《아버지는 톨동사양기가 그
무슨 기계로 아는 모양인지?》

《뭐? 뭐라구.》

《아. 아니예요. 아버지. 제가
은아동무한테 가져다주고 오겠
어요.》

그제야 안장에서 내리는 직
장장.

《오냐.》

다리를 두드리며 웃는 직장

장.

쟁사

은아를 둘러싼 청년들이 환
성을 지른다.

손시늉을 해가며 열을 올리
는 동팔.

《대단해. 성성이가 모자를 쓰
고 접대두 하구, 화장도 하구
곰권투 프로레스팅!》

《야!》

《여, 그뿐인줄 알아. 잘만하
면 동물들이 비행기두 탈수 있
어.》

《뭐? 허허 이 친구.》

청년들이 서로 은아네를 칭
찬한다.

부끄러워하는 은아.

《동무들, 이러기를 말아요.
아직은 공상에 불과한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꿈과 리상은
절대로 공상이 아니요.》

《옳소.》

청년들이 기세를 올린다.

《동무들, 우리의 선배인 직장
장아바이랑 열대의 동물들을
우리 나라 기후에 순치시키고
먹이조건을 개선하느라고 얼마
나 피라는 노력을 들였는지알
지 않나요.》

우리 청년들이 그분들의 뒤
를 이어 동물들을 톨동적으로
키우는데 성공한다면 동물관리
에서 또하나의 전진이 이룩될
뿐아니라 동물원의 관상가치도
훨씬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물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생활에 대한 즐거
움과 랑만, 사업에 대한 끝없는
희열과 열정을 안겨준다면 얼
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박수가 터진다.

《옳소!》

명애가 발짝 일어선다.

《우리 퇴근이후에 자기 말은
동물들에게 한가지이상의 재주
를 배워주자요.》

《좋아. 발기자는 은아동무니
까 동무가 총연출을 맡소.》

《좋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은아의 얼굴.
터지는 선물과 함께 본격적
인 재주훈련이 시작된다.

호랑이 공굴리기 높이뛰기를
시키는 명애.

곰 기초훈련을 시키는 청년1
원숭이 훈련을 시키는 청년2
강아지들에게 재주를 배워주
는 처녀들

성성이 특기동작이 늘어간다.
담배를 배워주는 은아. 불까
지 켜준다.

여기에 올리는 주제가.

남모르게 품어온 꿈 여기에
서 짝이 트고
푸르른 아지를 펼치여가네
어서 오세요 정답고 유쾌한
동물원으로

그러면 웃음이 넘쳐요 그러
면 즐거워겨요

주제가 음악속에 성성이가
은아가 시키는대로 돌기를 하
고있다.

열정적으로 훈련을 주는 은
아.

수도칸

땀흘린 얼굴을 씻는 은아.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며 성
성이방에 들어서는데 이게 웬
일인가?

성성이가 은아의 치마를 입
고 손가방의 거울까지 꺼내여
화장을 하는것이 아닌가?

《아니? 야!-》

환희에 넘치는 은아 눈물이
핑 돈다.

꽃술이 우거진 구내길.

《동무들, 대성이의 머리가 움
직이기 시작했어요.》

은아가 기쁨에 겨워 날듯이
달려간다.

《동무들.》

동물사들에서 머리를 드는
청년들.

《뭐?》

《대성이가?》

앵무새를 운반하다가 너무
기빠 넘어지는 만삼.

청년들 서로 부여잡고 발을
동동 구른다.

동물원을 더욱 알뜰하게 꾸
리여가는 청년들의 모습이 노
래속에 안겨온다.

희망이 꽃피는곳에 로동의
보람이 있네
우리는 이 땅의 주인들 락원
을

꾸리여가네
아 희망이여 끝없는 기쁨이
여

꽃피는 청춘시절을 여기서
빛내여가리

동물사를 돌아보며 흐뭇하게
바라보는 직장장.

《허, 너석들 좋아들은 한다.》
청년들의 웃음소리 들려온다.
겹에 질려 동물사를 왔다갔

다하는 민패.

《하, 이거 할수없이 오긴 왔는데 어떻게 한다...》

맥없이 주저앉았는데 은아가 살금살금 다가와 두눈을 가리운다.

《으악-》

놀라는 민패. 달아나려 한다.

뒤이어 웃음소리.

《아저씨, 은아예요.》

바빠하는 민패.

《아저씨, 어떻게 여기에 왔어요?》

《오- 완구도안때문에 유원지에 왔다가 은아가 보고싶어서...》

《피 거짓말, 다섯째언니가 보내서왔지요?》

《오?》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쓴 화살이구.》

《뭐? 화살?》

《생각안나요? 전번날 성성이한테 빼앗겼던 화보.》

민패 속대사.

(에이구.)

《그 화보에 차라리 내 동창생이 없었으면 좋았을걸.》

《영?》

《과학원에 다니는 내 동무... 아버지가 그 화보로 날 설복하라고 아저씨를 여기에 보냈지요?》

(아이쿠 눈치챘구나.)

《참, 아저씨 내가 동물재주 구경시켜줄가?》

《동물재주?》

《응. 호호호.》

코끼리사

코끼리잔등에 올라가서 기초 훈련을주는 동팔.

《<모란>이 앓았! 좋아, 일어섰!》

여기에 들어서는 은아와 민패.

《동팔동무, 수고해요.》

《수고하십니다.》

《우리 아저씨예요.》

동팔 《모란》이에게 지시를 준다.

《자, 모란이 반가운 손님이 왔는데 인사를 해야지. 차렷! 인사!》

민패에게 경례를 하는 《모란》.

놀라는 민패 감탄한다.

《오- 야- 그녀석 재간이 원숭이 못지 않구나. 잘한다.》

박수를 치며 먹을것을 주는 민패.

기뻐하는 은아.

구내길

무엇인가 설명하며 걸어가는 은아와 민패.

《은아동무!》

청년 3이 다가간다.

《충연출동무! 곰훈련을 두단계로 나누었는데 일없겠소?》

《어디 좀 보지요.》

수첩장을 들여다보다가

《힘들더라도 결정한대로 세단계로 내밀자요.》

《하, 이거 내가 너무 서둘렀는가? 그럼 그렇게 하겠소.》

머리를 기웃거리는 민패.

(충연출?)

반기며 은아에게 다가간다.

《애 은아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대단하긴요? 아저씨, 동물재주 구경한 값으로 날 도와주지 않겠어요?》

《떨 말이나?》

《응, 그럼말이에요.》

《허- 이젠 막 내리먹이는구나. 에할수 없지. 그럼그리는 일이라문야.》

민패를 붙잡고 발을 동동 구르는 은아.

《야- 우리 아저씨가 제일이야.》

갑자기 정색해지는 민패.

(가만, 이러다가-두 몽둥이에 맞을게 아니야.)

민패의 집

동물재주도안을 한장한장 그려나가는 민패.

성성이사

《대성》이에게 원통굴리기를 배워주는 은아.

개 산수를 배워주는 경실.

코끼리 도립전회를 시키는 동팔.

곰, 원숭이 훈련을 시키는 청년들.

개 유희를 시키는 명애.

구내에서 청년들이 재주도안을 놓고 노래속에 토론한다.

하마실

나란히 크게 입을 벌리는 하마.

박수치는 관중들.

그것을 바라보며 흐뭇해하는 직장장 머리를 끄덕인다.

원숭이사에서는 알락원숭이들이 해바라기를 한다.

코끼리사

직장장이 코끼리사로 들어서

는데

《좋아》 하는 동팔의 목소리.

《영?》

눈이 커지는 직장장.

코끼리가 코로 동팔을 감고 빙글빙글 돌아가고있는것이 아닌가?

《아니, 저녀석이.》

달려가는 직장장.

《더 높이-》

동팔이의 소리.

소래기를 지르는 직장장.

《야, 이녀석아. 어서 내리지 못해! 이녀석, 코끼리는 맹수야, 맹수! 죽자고 그래!》

달아나는 동팔.

《이녀석들이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단말이야. 한번 혼살을 내주어야지.》

어디론가 달려가는 직장장.

성성이사

청년들이 성성이에게 복채를 쥐여주며 법석 고아맨다.

복을 치는 성성이.. 좋아라 춤을 추는 청년들.

여기에 동팔이 뛰어든다.

《여, 직장장아바이가 와! 그만하지 못하겠어. 직장장아바이야.》

《뭐? 직장장이 온대.》

《야단났구나.》

복새통을 피우는데 직장장이 노기동등하여 들어온다.

《뭐야?》

결에 있는 동팔을 쥐어박는 직장장.

어색해하는 동팔과 청년들.

《다시 해봐.》

가까스로 억제하는 직장장의 얼굴.

성성이가 기가 나서 복을 친다. 엉치까지 흔들거리는 성성이.

《영?》

키득거리는 청년들.

《이녀석들!》

불이 실룩거리는 직장장. 억이 막힌 모양인지 씹 나간다.

원숭이사

금방 안에서 요동치는 원숭이들.

그알에 머리를 수긏하고 청년들이 서있다.

성을 삭이느라 오락가락하는 직장장.

《요즘 동물원의 공기가 예전 같지 않다했더니 영? 도대체 이게 무슨것들이냐 영? 발기자가 어떤 녀석이야. 하 이견 정말... 사양관리를 잘해서 관상

동물들을 보존하는것이 관리공의 임무라고 내 몇번이나 말했느냐?》

눈을 금뻥하는 만삼.
《다들 나가 깊이 생각해보거라!》

청년들 나가고 만삼이만 남는다.

《이녀석, 동물채주를 꼬드긴녀석이 네녀석이이지?》

《아버지, 동물들도 일정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뇌혈전이 온대요.》

《뭘 뇌혈전? 이놈아, 여긴 교예극장이 아니라 관상용을 기본으로하는 동물원이야 동물원...》

무언가 말하려다가 《씨》하고 나가버리는 만삼.

수족관

진귀한 물고기가 대형 어항 안에서 노닐고있다.

모임에 어지간히 지친듯 직장장이 무겁게 말한다.

《...에 끝으로 요즘 젊은녀석들이 그 물동사양기계는 만들생각은 하지않구 동물채주에만 미쳐서 돌아가는데 경험 많은우리가 잘 타일려줍시다.》

《예-》 모두들 대답한다.

《물고기실장.》

《예?》

《자네 요즘 물개한테 지능교육을 주고 조약훈련을 시킨다고 하던데 풍전리 앞바다에서 잡아온지 석달도 안되는 물개가 사람이 뛰어오르라면 뛰겠다고 함데?》

《예? 하하.》

《하하 젓먹이한테 말고기를 먹이는 셈이지.》

따라웃는 실장들.

《당에서는 우리를 믿고 나라의 귀중한 재부를 맡겼는데 가능한껏 관상용으로 안전하게 보존하자는것입니다. 한건의 사고도 없이 키우는 여기에 사양공들의 보람이 있는게 아니겠소!》

이때 말실장이 일어난다.

《저...》

《말하오.》

《저 하루종일 우리안에 갇혀있는 말도 말입니까?》

《영? 아니 여보, 당신눈엔 버새로 보입니까? 허허.》

《저 청년들의 의견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말답게, 맹수는 맹수답게 키워야 오래 보존할수 있고 또 운동적견지에서 놓고 볼때도 옳

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상용의 안전한 보존! 이견 우리동물원의 생명과 같소. 뭐니뭐니해도 사양관리가 기본이요. 사양관리에 집중합시다.》

사업수첩을 탁 덮으며 결론짓는 직장장.

노래속에 펼쳐지는 사양관리 장면들.

코끼리에게 먹이를 먹이는 동팔.

락하생을 까먹는 앵무새.

호랑이에게 고기먹이를 주는 명애와 청년들.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해하는 직장장.

청서들도 밤을 까먹고있다.

뱀이 날새게 토기를 잡아먹는 장면이 펼쳐진다.

직장장이 머리를 끄덕인다.

(허허... 뻘어.)

원숭이사

도립전화를 하고 도립을 서는 원숭이.

좋아서 바라보던 직장장. 제정신을 차리고 소리친다.

《야 이놈아, 오늘부터 중지야 중지. 허, 이게 안되겠군!》

직장장을 피해서 달아나던 원숭이가 울방자를 틀고앉아 뻘히 올려다본다.

은아의 관리원실

(이애들이 모두 어디에 갔나?)

무심결에 은아의 책상에 있는 그림도안들을 보는 직장장.

《영?》

운동 동물채주도안들이 아닌가?

(이녀석들을 그저...)

어디론가 나가는 직장장.

련못가

만삼 련못에서 사료를 씻고 있다.

지나가던 은아가 다가온다.

《아니, 만삼동무!》

《영?》

《만삼동무, 못에서 먹이를 씻으면 호수가 어지러워져요. 제가 가져다 씻어드릴게요.》

《허, 언제 남 걱정할새 있어. 제코나 씻으라우.》

《예? 호호.》

《동물채존 제발 단념해. 완고한 우리 아버지밑에선 그게 한갓 꿈이야 꿈.》

《호호, 만삼동문 암초가 막아선다구 우리 배를 안타실 작성이군요.》

《뭘? 시라소니두 한번 빠졌던 함정을 피해간다지 않아. 비키라우.》

고집스레 또 배우에 뛰어내리는 만삼.

《오, 그래서 새롭게 동지를튼곳이 앵무새사양공이었나요? 남자가...》

약을 올리는 은아.

《뭘? 남자가 어쩔다는거야. 그게 바로 안전한 항로에서 단 한번의 실수도 없기를 바라는 우리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사랑관이라는게야.》

《예? 호호.》

먼발치에서 두사람이 노는 꼴을 바라보던 직장장.

《에이, 시라소니같은 녀석.》

강가루사

벌떡 서있는 강가루곁에서 전화를 거는 직장장.

《거 맥주공장 판매과장방에 좀 대라.》

강가루가 귀를 종긋하고 듣는다.

《어 자넌가? 여보게 찬봉이, 자네 은아교양을 좀 똑바루 하라구. 아, 그애가 요즘 똥판지같은 일을 자꾸 벌려놓는게 이 직장장을 난처하게 만든단말이야.》

판매과장방

전화를 들고 능글거리는 찬봉.

《뭘 우리 은아가... 하하, 아니 그애야 내가 임자한테 맡겼는데 임자가 말아 교양을 해야지 나야 별채간이 있나?》

다시 강가루사

《거 요즘 우리 만삼이하구두 틀렸어. 만나기만 하면 싸움이야... 가만보면 뒤에서 부추기는 녀석이 있는것 같애. 그림을 그려가지고 다니면서 복잡하게...》

판매과장방

《아, 여보게, 너무 신경을 쓰지 말게. 내 대책을 세우지. 음.》

전화기를 놓으며 기뻐하는 찬봉.

《허허, 우리 민폐가 일을 제법 해제끼는 모양이군. <관상용>이 전화까지 걸어오는걸 보면...》

민폐집

제주그림에 열중하고있는 민

패.

은남이가 그림을 보고 감탄하여마지않는다.

《아니 여보, 이게 당신네 완구공장에서 생산할 완구들이예요?》

《흥. 똥단지같이 완구는 또 뭐야?》

그러거나말거나

《야 이것만 생산되면 아이들이 너무좋아서 막 춤을 출거예요.》

은남이가 민패의 잔등을 두드리며 간지럽힌다.

《여보, 내가 바가지를 굵은 보람이있지요. 당신 동물원에 드나들더니 영 판사람이 됐군요.》

그제서야 제정신을 차린 민패. 생각을 굴린다.

(가만 이것이 그럼 동물완구도안이 될수 있단말이지.)

《아이구, 요 곰 춤추는걸 좀 보라...》

그좁한걸 가지고 뭘 그러냐는듯 시치미를 떼는 민패.

《... 뭐 요좁한걸 가지구 소란스럽게 놀아. 어서 물이나 떠와.》

물그릇을 안겨주는 민패.

《예!》

은남 좋아서 나간다.

(그러니 관상용완구로부터 춤추는 완구로 된다! 야 이거.》

민패 너무 좋아 환성을 지른다.

사슴방목장

직장장이 초급당비서와 방목장을 돌아보고있다.

《...비서동지, 우리한테 언제 이런일이 있었습니까. 재삼 말씀드립니다만 이진 정말 공상입니다. 아, 하늘의 별도 따고 싶어하는 젊은 녀석들이 하자는대로 내버려둔다면 관상용동물들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난 그게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하하 그래요? 그러니 어제 날의 공상이 오늘은 현실로 실현되는 시대가 아닙니까.》

더구나 다른 나라의 누가 못했기때문에 우리가 못한다는법이야 없지 않습니까.》

《허 저 그렇긴 한데...》

《우리가 처음 트레이크해협과 지브랄타르해협에서 진귀한 물고기들을 들여왔을 때 그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는 6개월 이상 기를수 없다는것을 직장장동무랑 15년째 기르고있지 않습니까?》

《예. 허허 그거하구야 어디.》

《아. 아닙니다. 우리 과학연구집단은 세계적으로 인공교잡을 성공못한 성성이와 서우의 새끼를 받는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이진 로세대의 탑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동물재주는 그것을 장식하는 아름다운 화원이 될수 있지않을까요?》

민패집

틀동완구가 《쿵작작》하며 돌아간다.

은아가 너무 기뻐 쿵쿵 뛴다.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동물재주도안이 이렇게 빨리 깡충깡충, 틀동완구가 뒤통은 정말 몰랐어요.》

《하하. 고맙다, 은하야. 네 동물재주덕에 이제부터 아저씨 전국틀동완구 창작경기에 출전하게 된다. 네가 내눈을 띄여주었구나.》

《호호 아저씨두 참... 고맙다는 인산 제가 먼저 해야 할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있던 은남이가 남편에게 묻는다.

《그러니까 이진 다 은아가 띄워준것들이예요?》

대답대신 눈을 흘기는 민패.

당비서방

협의회가 한창이다. 책임기사가 일어나 열변을 토한다.

《동물들의 본성은 야생적입니다. 때문에 일정한 운동은 건강에 해롭지 않습니다. 동물들을 자기 특성에 맞게 재주를 피우게 해야 한다는 은아를 비롯한 우리 청년들의 제기에 전적인 동감입니다.》

오늘 우리 관람자들은 관상용도 좋지만 바로 움직이는 동물들을 보고싶어합니다. 우리 맹수연구집단이 동물들의 지능과 운동능력을 분석해본데 의하면 십분 가능합니다.》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던 당비서가 조용히 말한다.

《오늘 협의회에 우리 청년들이 뭘좀 보내왔는데 잠깐 쉬고 합시다.》

웅성거리는 일군들.

당비서가 책상우에 지함을 올려놓는다.

《직장장동무, 열어보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요? 에이...》

손을 젖는 직장장.

그 모양이 우습던지 모두 웃는다.

《하하하...》

당비서가 지함안에서 틀동완구들을 꺼내서 갈라놓는다.

《창 창 창》

《빠 빠 빠》하고 돌아가는 틀동완구들.

일변되는 분위기.

《자, 어느것이 더 보기 좋습니까?》

관상용완구와 틀동완구가 갈라진다.

《허허, 이게 보기 좋지요.》

이구동성으로 틀동완구를 집어드는 일군들.

난처해하는 직장장. 차마 좋다는 소리도 못하고...

기사가장이 일어선다.

《동무들. 우리는 대담하게 한 발 더 전진합니다. 동물들의 생물학적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보고 동물들의 재주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싸움도 시켜보자는겁니다.》

눈이 사발만해지는 직장장. 옆사람에게 소곤거리며 묻는다.

《영? 여보. 기사장이 이자 뭐라구 그랬소?》

《동물싸움을 시키잡니다.》

더더욱 놀라는 직장장.

《뭐? 동물싸움? 음-》

이마를 찌프리며 입을 다시는 직장장.

성성이사

처녀들이 웃으며 달려온다.

《은아-》

《은아, 우리의 동물재주가 승인됐어.》

《뭐?》

《그리구 네가 정식으로 총연출로 임명됐단말이야. 그 틀동성완구가 은을냈어.》

《뭐 그게 정말이야.》

《그럼! 자, 받아.》

사과를 씻던 은아. 성성에게 사과를 던진다. 날아가는 사과. 그것을 받고 손을 흔드는 성성이.

노래가 터진다.

좋아라 달려가는 처녀들.

축하의 꽃보라인양 분수가 창공을 날린다.

타조와 성성이가 춤을 추며 반긴다.

사자며 코끼리도 처녀들에게 인사를 보낸다.

깡충거리는 황새들, 알락원숭이들. 손저어부르는 성성이새끼.

답례를 보내는 은아와 처녀들.

호랑이와 서우도 좋아라 뛰

논다.
 3. 자전거바퀴를 수리하는 청년
 먹이를 주는 동팔 기빠서 웃
 는다.
 그것을 바라보며 하늘소의
 머리를 쥐어박는 직장장의 찌
 greater진 얼굴.
 직장장을 보고 웃는 붉은코
 원숭이와 표범.
 달려가는 처녀를 꽃속에 감
 추어진다.

민폐집

흐뭇하여 들어서는 찬봉.
 《이 사람 있나... 민폐.》

방안에 온통 채주동물 그림
 판이다.
 그것을 보고 놀라는 찬봉.
 《이건 도대체 뭐가? 가만. 이
 사람이 이거 끌고나오라 했더
 니 오히려 끌려가는게 아니야.》
 코끼리완구가 찬봉을 바라본
 다.
 《아니 아버지 오셨어요.》
 은남이가 반긴다.
 《네 남편 어디 갔니?》
 《은아를 돕겠다구 동물원에
 갔는데요 뭐.》
 《아니 뭐?》
 더더욱 열이 오르는 찬봉의
 얼굴.

《팔여섯, 사위다섯. 당장 모
 이지 못할가. <폭풍>. <폭풍>이
 야!》
 《예?》
 혼비백산하여 달아나려다가
 룰동완구지함을 쏘는 은남.
 《이건 또 뭐야!》
 《찾찾장》
 《쿵췌췌》
 찬봉에게로 줄을 지어 달려
 드는 완구들.
 이그러진 찬봉의 얼굴이 정
 지되면서

제1부 끝

전호가에 새겨쓴 글발 외 1 편

심봉원

그 누가 먹을 찍어 쓴것 아니여라
 내 총잡고 지켜선
 그날의 전호가
 바위에 새겨쓴 저 글발은

포화속 전사들
 격전을 앞둔 그 숨엄한 순간
 심장에 꿰는 피
 총창에 찍어 쓴 글발이여라

덧쌓인 이끼속에
 세월의 흔적은 짙어가도
 변함없이 빛나는 저 글발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인생의 막장에서 시들다
 수령님 품에 안겨 재생한 그들
 나라의 주인으로 떳떳하던
 그 세월 그 제도를 목숨으로 지키자고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린 신념으로 새겨 썼거니

그 신념
 철천지 원수 미제를 모조리
 《함정골》 천길 시공창에 처넣고
 주체조선의 본때를 누리에 떨친
 불멸의 그 위훈 가슴가슴을 불태워주나니

3세 4세
 새 세대 병사들도
 로병인 나도 변함없이
 저 글발 심장에 안고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를 위해
 한목숨 서슴없이 내대려니

한치의 땅도 나의 살결처럼
 풀 한포기 한그루 나무도 나의 생명처럼
 안고사는
 위훈의 이 전호가에서
 영원한 신념을 안겨주는
 오, 불멸의 글발이여!

병사의 맹세

애젊은 시절
 성스러운 군기앞에서 다지던 맹세
 군인선서의 그 메아리로
 오늘도 이 심장은 높뛰고있어라

한번 있는 생의 길에
 한번 다진 병사의 맹세
 귀밀머리 희여졌다 변하랴
 포화속을 헤쳐왔다 그 맹세 잊으랴

그 맹세 저버리면
전화의 날 조국을 위해 생을 내대던
그 마음을 저버리는것

그 맹세 잊으면
심장은 가슴에 뼘다 해도
나하나의 목숨만을 위하는것

수필

위훈에 대한 생각

전용칠

황금이삭 설레는 들의 황홀경을 바라보며 감탄
하기에 앞서 거기에 바쳐진 성실한 농민들의 땀
과 노력에 대하여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땀과 노력이 스며있는것은 사실이며 바로
그것이 황금의 전야를 안아키운 《밀거름》이 아
니겠는가.

병사생활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수 있다.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는
썩 오래전, 군사야영의 어느날 훈련에서 땀을 흘
린 야영생들앞에서 훈련에서 흘리는 병사들의 땀
은 진정으로 량심에서 솟아나오는 충성의 땀방울
이 되어야 하며 고귀한 땀을 흘리며 몸도 마음도
단련할 때 우리는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
이할수 있다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나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잊혀지지 않는
한 전사의 모습을 그려보군한다.

...그날, 새 교육년도 훈련에 진입한 한 구분대
에 내려가 어슬쩍까지 글을 쓰던 나는 잠시 밖으
로 나갔었다. 헌데 누군가가 밖에서 기계체조를
하고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낮에 만만적이 있는
역대우같은 그 전사였다. 얼굴에 흐르는 땀이 달
빛에 번들거리는것으로 보아 어지간히 훈련을 한
듯싶었다.

《철봉때문에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사는 장대한 몸을 가다듬으며 어쭙게 웃었
다.

《그만하고 들어가오. 그러다 감기에 걸리면 어
찌겠소.》

《전 계획한 오늘 과제를 다 못했습니다.》

나는 전사의 열정을 굳이 막고싶지는 않았다.

《그럼 말이라도 좀 들이지.》

우리는 쉽터의자에 무릎을 나란히 하고 앉았
다.

《동문 정말 몸이 좋구만.》

《입대전에 고향사람들은 저의 성격이 호방하고
몸이 역대우같다고 하면서 영웅감이라고 했습니

아, 피끓는 시절에 다진 맹세
영원한 내 삶의 호소여
이 몸이 살아 숨쉬는 한
그 맹세 다하는 길에 변함없을
아, 이 마음이어

다. 허허...》

전사는 허구프게 웃고나서 뒤를 이었다.

《사실 전 학교땐 체육엔 그닥 관심이 없었습니
다. 같이 입대한 전사들은 저를 보고 <철봉에 매
달리면 모래자루더군>하고 뽕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위훈의 꿈을 안고 군복을 입은
내앞의 첫 장애물이 철봉대라고야 어떻게 생각했
겠습니까.》

나는 그의 말이 선뜻 리해되지 않았다. 툴툴하
고 우람찬 체구, 검실검실한 얼굴, 술진 눈섭에
주먹이 소라같은 이 전사가 철봉대에 매달려 꾸
무럭거리던 전사였던 말인가. 오늘낮에 그는 철
봉동작을 잘 수행하지 않았는가.

《물론 지금은 어느정도 하지만... 애를 먹던 초
기에는 나도 좀 하느라면 되려니 했는데 손바닥
에 물집만 늘어나고 좀처럼 동작은 해결되지 않
았습니다. 전 동무들보기가 부끄러웠고 지휘관들
을 대하기가 면구스러웠습니다. 차차 제가 말수
더구가 적어지고 우울해지자 분대장동지가 절 부
르더군요. <락심하지 말라, 결심하면 못할 일이
없다. 수신평방밖에 안되는 체육훈련장에서 기를
펴지 못하는 전사가 어떻게 대지를 주름잡아 달
리며 위훈을 세울수 있겠는가. 훈련에서 흘린 땀
이 전투에서 빛난다는 격언을 잊지 말라. 그제
땀을 아끼지 않고 훈련하면 된다>고. 난 큰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결국...
노력하니까 되더군요. 철봉동작을 수행한 그날
전 너무 기쁘던 나머지 눈물까지 흘렸댔습니다.
글쎄 남들은 별치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의
군무생활에서는 하나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체험한것은 땀이 곧 위훈을 낳는다는
진리였습니다.》

땀이 곧 위훈을 낳는다!...

늘쌍들어온 말하면서도 정통을 찢른 말이다.
물론 기계체조를 못하던 전사가 기체에 숙련되고
대렬동작이 원숙치 못하던 병사가 옛 근위병들의

그 힘차고 역센 걸음으로 걸을 때 그것이 곧 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의 위훈을 위한 병사의 디딤돌로 쌓이게 되고 그 나날속에 병사는 래일의 영웅으로 성장해가는것이다.

그러나 지난 시기 많은 군인들과 접촉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엔 영웅이란 어디까지나 영웅인것만큼 남다른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보았고 《나도 일단 싸움만 일어나면 위훈을 세울수 있다》고 말하는 동무들도 보았었다. 노력은 적게 하고 큰 영예를 갈망하는 기율어진 사고방식이 이런 대답으로 변신하는것이다.

그러나 력사는 공정한것이여서 땀을 아끼는 전사에게 위훈을 준 일이 없다.

돈으로 살수도 없고 어디서 빌릴수도 없는것이 바로 위훈이다.

위훈! ...그것은 땅에 씨를 묻은 농군이 봄내 여름내 땀을 흘려 황금날알을 거둬들이듯 병사 자신이 땀흘려 마련해야 한다.

《...전 구대원들이 몇년동안 흘린 땀을 단 1년 동안에 다 흘리려고 합니다. 명장밑에 약졸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대렬동작도, 체육종목도, 사격도, 강행군도 잘해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사라고 떼뻑이 말할수 있을게 아닙니까.》

전사는 이렇게 말하며 다시금 기재로 다가가는 것이였다.

훈련장엔 전사의 의지를 시험하듯 눈보라가 울부짖기 시작하였으나 땀으로 위훈을 마련해가는 전사앞에서는 무력했다.

믿음과 뜨거움에 젖은 눈길로 이윽도록 전사를 지켜보는 나에게는 이 훈련장이 단순히 훈련장으로만 느껴지지 않았다.

그렇다! 우리의 훈련장은 마당거우와 백석탄의 군정훈련장에 이어진 성스러운 훈련장이다. 그 훈련장에서 위대하신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투사들이 조국광복의 신념과 용맹, 무적의 힘을 키워 강도 일제를 때려눕혔듯이 오늘의 이 훈련장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의 훈련명령을 기어이 관철하기 위해 일떠선 일당백병사들의 불패의 전투력이 다져지는것이 아닌가!

나는 얼마전 어느 한 병사의 수첩에서 본 뜨거운 시구절이 떠올라 그것을 마음껏 웨치고싶었다.

...

영웅도 장령도
군화를 갈아신으며
의지를 두쇠기둥처럼 다듬어 세워준
위훈의 시작점
오, 훈련장이여

여기서 용맹의 나래 다듬고
땀으로 너를 길들인
위대한 장군의 병사
불타는 포화를 뚫고
웃으며 오를수 있으리라
금별이 빛나는
위훈의 그 언덕에!

수필

친우의 성장을 두고

정순은

세상만물이 변해가는 모양은 천태만상이다. 더 아름답게, 더 고상하게 제 모습을 일신시켜가는 자연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본래의 아름답던 제 모습을 불품없이 변색해버리는 자연의 세계도 있다.

이러한 리치는 인간세상도 마찬가지일것이다. 본래와 좋았던것도, 아름다웠던것도 다 켜버리고 인간본연을 떠나 추악한 인간으로 떨어지는 폐인이 있는가하면 떼뻑치 못했던 자기의 과거와 결별하고 참된 진로를 찾아 아름다운 인간으로 성장해가는 참인간도 있다.

나는 이것을 나의 친구의 성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체험하였다.

나에게는 소꿉시절에 한 친구가 있었다.

그의 집과 우리 집은 가까이 이웃하고있었으며

마을에서 동포라고는 우리 두 집뿐이였다.

우리는 배꼽까지 다 드러내놓고 마을이 좁다하게 뛰어다니던 그 시절부터 서로 손등 한번 꼬집어보며 싸워보지도 못한채 학교갈 나이에 이르렀다. 그래서 두 집의 부모들도 우리를 기특하게 여기며 무척 사랑해주었다.

그러던 어느날 우리들 사이에 서로 큰 싸움을 판을 벌려 두 집의 부모들을 아연실색케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날 싸움은 말이 싸움이지 실상은 내 혼자서 성이 잔뜩 올라 친구를 꼬집고 쥐여 흔들면서 덤벼들었지만 친구는 나에게 주먹 한번 들지 않았고 내가 꼬집으면 꼬집는대로 잡아흔들면 흔드는대로 나에게 제물을 맡겨버렸던것이다.

그러나 두 집 부모들이 황황히 뛰쳐나와 우리

를 뜯어말렸을 때에 매맞은 그 친구가 울음을 터친 것이 아니라 매를 든 내가 오히려 영영 소리내면서 울어댔다. 어린 마음에도 친구와 싸운 것이 어찌나 슬펐던지 입안으로 흘러드는 눈물을 감쌀 때 슬피 흐느껴 울었다.

아버지 손목에 끌려 집에 돌아와서도 나는 침대에 얼굴을 묻고 오래동안 흐느껴 울었다.

이날 우리 사이에 일어난 싸움은 그 친구가 나와 한 약속을 저버린 것 때문에 일어난 싸움이였다.

우리는 초급학교입학을 앞둔 며칠전부터 다같이 조선학교에 다니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우리는 한학급, 한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손가락을 걸고 약속하였다.

그날부터 우리는 손가락을 걸어잡고 있는 이 약속을 다짐하곤 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으로 되었다.

그런데 친구는 이 약속을 저버리고 어머니의 강요에 못이겨 일본학교에 가버린 것이다.

친구의 어머니가 제 아들을 일본학교에 보내기로 한 결심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진 마음이었다.

친구의 아버지는 이름난 어로공이었고 더우기 낚시에서 뛰어난 솜씨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친구가 5살나던 어느 겨울날 바다로 나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하였다.

그날 나와 친구는 바람부는 바다가에서 서로 붙들고 오래동안 슬피 울었다.

그때부터 친구는 홀어머니의 슬하에서 자라게 되었고 따라서 그의 가정은 궁핍속에서 생활을 이어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때부터 친구의 어머니는 돈, 돈을 벌어야 한다. 오직 돈이 있어야 내 아들을 구원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그 어머니의 생활의 좌우명으로 되었다. 그때부터 돈 이외에 그 어떤 것이라도 타협하지 않게 되었다. 그의 정신과 육체의 모든 것을 지배한 것은 돈뿐이었다. 그리하여 그의 어머니는 제 아들을 일본학교에 보내여 졸업후 일본회사에 취직시켜 큰 돈자리를 얻도록 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로 되고말았다.

이렇게 나와 그 사이에 맺어졌던 친구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다. 나는 조선학교에, 그는 일본학교에 다니는 것으로서 우리는 서로 제각기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세월은 흘러 내가 고급부 2학년에 진급하였던 어느 비오는 날이었다.

초봄답지 않게 제법 소리치며 쏟아붓는 비를 우산으로 받으며 나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이때 나의 몇보앞에서 네명의 일본학생들이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스러운 것은 네명중의 한 학생이 껴보지도 못한 자기의 우산을 한손에 들고 다른 우산을 높이 들어 자기보다 머리 하나만큼이나 더 작은 학생의 머리에 받쳐

들고 자기는 비를 그대로 맞으면서 물참봉이 되어 뒤따르고 있었다.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모습이었다.

나는 그들의 옆을 스쳐지나면서 얼핏 눈길을 돌려 그 가련한 학생을 바라보았다. 나는 순간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 가련한 학생은 바로 나와 이미 결별한 친구였다.

그도 나를 본 순간 어찌나 놀랐던지 그의 입에서는 《아!》 하고 비명소리 같은 것이 흘러나왔다.

《칠남이!》 하는 나의 격한 목소리에 그는 다시 한번 와들 놀랐고 그의 눈길은 허둥대며 발끝에 떨어졌다.

나는 한걸음 다가가 아직 허공중에 들려있는 우산을 잡아내리우고 무섭게 그를 쏘아보았다. 《너도 조선사람이나? 바보, 머저리.》 하고 쏘아주려고 하는 찰나에 일본학생들이 나에게 싸움을 걸며 달려들었다. 그리하여 나는 일본학생들을 상대로 싸움을 벌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한것은 그 친구가 나에게 달려든 일본학생들을 막아서며 그들을 무섭게 후려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결국 그 친구와 일본학생들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나는 옆에서 지켜보는 구경꾼이 되고말았다.

일본학생들은 손에 들었던 우산까지 내버린채 《조센징, 어디 두고보자.》 라고 욕설을 퍼부으며 도망치고말았다. 했으나 나의 마음속에는 친구에 대한 고마운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이날 나는 친구의 손목을 붙들고 그의 어머니에게로 달려갔다. 그의 어머니는 물주머니가 된 우리를 놀란 눈길로 바라보았다.

나는 숨가쁘게 금시 있었던 사실을 밝히고 칠남을 조선학교에 옮길것을 요구해나섰다. 모든 사실을 알아차린 그의 어머니는 깊은 한숨끝에 돈을 위해서는 그런 모욕쯤은 참을 수 있다고 한마디로 잘라 말하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나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그들도 이제 자기를 뉘우칠 날이 곧 올 것이니 더 잘 도와주라고 나를 타이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말씀에 조금도 믿음이 가지 않았다. 이제 와서 그와의 친구관계는 다시 이어질 수 없다. 다만 옛 추억속의 친구로만 남아있을 것이다. 지금에는 비록 일본학생들의 우산이나 받들어주는 데 그치고있지만 래일은 그들을 상전으로 받들어 모시는 노복으로 굴러떨어질 것이다. 그의 진로는 이 길밖에 없을 것이다. 돈에 예속된 사람들이 가는 길이란 달리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그의 운명이 서글퍼짐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해 여름방학의 날이 왔다.

나는 《하기교양선전대》에 속하여 일본학교에 다니는 우리 조선학생들속에 《우리 말 배우기》, 《조국을 더 잘 알고 민족의 넋을 고수하자!》 활동에 참가하게 되었다.

어느날 총련지부위원장선생님은 나를 만난 자리에서 나의 옛친구였던 김철남을 우리 말 강습에 참가시킬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나는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으나 한번 해본 용기도 있고 하여 그에 응하였다.

나는 그날로 친구의 어머니를 찾아갔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나의 말을 들을려고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 이튿날도 그 다음날도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고 찾아갔다. 이렇게 되자 친구의 어머니는 자기 집은 이미 총련과 관계를 끊었으니 더는 찾아다니지 말것을 강요해나섰다.

친구는 소리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어머니와 나의 얼굴을 바라보고있었다.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가에는 이름할수 없는 간절함과 죄스러운 빛이 어려있었다. 나도 그런 그가 불쌍도 하고 측은한 생각도 들어 눈곱이 뜨거워짐을 금할수가 없었다.

이런 일이 있는 며칠이 지난 어느날 뜻밖에도 친구가 우리 말 강습이 진행되고있는 지부사무소에 불쑥 나타났다. 나와 동무들은 환성을 지르며 그를 맞이했다. 우리는 서로가 눈물이 글썽하여 부둥켜안았다.

그러나 이런 기쁨도 한순간에 지나지 않았다. 이때 문이 벌럭 열리며 그의 어머니가 들어와 그를 끌고 나가버렸다. 그리하여 친구는 자리에 앉아보지도 못한채 제 어머니에게 끌려가고말았다.

나와 동무들은 그런 어머니가 말할수 없이 야속했으나 별도리가 없었다.

여름방학도 끝나가고 우리의 선전대활동도 마감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 강습에 친구를 단 하루도 참가시키지 못한것으로 하여 마음 한구석에는 허전함을 금할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이었다. 이날 불쑥 친구가 우리 집에 나타났다. 그런데 웬일인지 언제나 근심과 시름이 실려있던 그의 얼굴에는 전에 찾아볼수 없었던 흥분이 어려있었다.

의아한 눈길로 자기를 바라보는 나의 손목을 덥석 잡더니 무턱대고 자기 집으로 나를 이끌어갔다.

그의 집에는 어느 어촌에서 어로공으로 일한다는 외삼촌이 와있었다.

내가 집에 들어서자 그 외삼촌은 나를 오래전부터 알고있기라도 했던듯이 우리 철남이를 잘도와주는 좋은 친구를 만나서 기쁘다고 하면서 나를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그옆에 앉아계시던 철남의 어머니도 오늘은 웬일인지 나를 보고 쌀쌀하게만대하던 예전과는 다르게 따뜻한 웃음을 보내주며 나를 맞아주는것이였다.

내가 자리를 정하고 앉자 외삼촌은 조용해진 목소리로 조국의 동해바다어장에서 있었던 감명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는것이였다. 그들이 탄 고기배는 포구로 돌아갈 날이 다 되었으나 전혀 물고기를 잡지 못하다싶이 했었다. 막다른 곤경에 빠진 그들은 할수없이 조국의 령해에 들어서서 서둘러 물고기를 잡아내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조국의 령해를 지키던 조선인민군해병들이 탄 경비정이 나타나 우리의 배는 꼼짝할수 없이 나포되게 되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들이 일본에서 사는 동포들임을 확인하자 해병들은 손을 뜨겁게 잡아주며 친절히 환대해주었으며 같은 동포, 같은 겨레인데 왜 조선의 바다에서 고기를 못잡겠는가 하고 하면서 오히려 고무해주더라는것이였다. 그래서 외삼촌이 한발 나서며 감사하다고 말씀드리자 한 해병이 외삼촌의 손을 잡고 우리가 감사의 인사를 받을 일이아니라 하면서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해병들이 조국의 령해를 순찰하다가 혹시 일본에 사는 동포들의 고기배를 만날수 있는데 동포애를 가지고 잘 돌봐주도록 하라고 가르치시였다고 뜨겁게 말하더라는것이였다.

그래서 외삼촌과 어로공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감사를 드리며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고 하였다.

외삼촌은 자기의 말을 여기서 끝내면서 지금 일본에 사는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조선민족이면서도 조국을 모르고있으며 자기에게 은혜로운 조국이 있고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중의 하나가 여기에- 하고 외삼촌은 말을 끊고 웃음어린 얼굴로 자기 누이의 얼굴을 바라보는것이였다. 그러자 친구의 어머니는 젊은 처녀시절처럼 얼굴을 활짝 붉히며 《이젠 그만 하세요. 내인체는 알겠다니까요.》하면서 나의 손을 꼭 감싸 쥐는것이였다.

그후에 안 일이지만 《우리 말 강습》에 왔다가 어머니에게 끌려간 친구는 멀리에 있는 외삼촌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전화를 했었는데 그 즉시로 외삼촌이 달려왔던것이였다.

세월은 흘러갔다.

나의 친구는 조선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으며 장학생으로서 조국의 참된 아들로 준비해가고있다.

참으로 생각깊어지게 하는 친구의 성장, 그 어머니의 몰라보게 변모된 모습이다.

나는 친구와 그의 어머니의 성장을 보고 생각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품, 그 은혜로운 품이 있어서 내 조국이 빛나고 그 빛나는 조국의 품이 있어 사람은 사람마다 참된 인간으로 아름답게 성장해가는것이라고.